



10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10호

(루게 468)



◆◆◆◆◆◆◆◆◆◆ 차 례 ◆◆◆◆◆◆◆◆◆◆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자	3
어머니당에 영광을	6
새날의 지평선	7
력사의 그날에	8
언제나 백두산에 사는 마음	8
인민을 위한 그이의 사랑	9
꽃피는 봄에도 눈오는 겨울에도	9
금강의 이름없는 바위에도	10
그 빛나는 자욱우에	10
생각은 한뫼으로	11
30 분간	12
10 월의 창가에서	17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19
잊을수 없는 불빛	24
읽을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시편을 놓고	25
김일성 광장 (외 1 편)	26
무명고지	26
어머니당앞에 (외 1 편)	27
추억	28

옛집터앞에서	28
청산리의 들길을 걸으며.....	29
못가에서 만난 너전사	30
해방	31
출근부앞에서	39
친선의 수만리길우에서	40
무지개 비낀 순천땅에서.....	44
좋은 친구.....	47
위훈과 량심, 조국	55
병사와 아이들	57
고개속인 금빛이삭아!	60
대학앞을 지나며.....	60
나의 또 하루여	61
문학창작에서 나타나는 자연주의적경향.....	62
불이여, 타오르라	64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자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에 일대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의 주체문학은 1980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문학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킬것을 중요한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최근에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라는 강령적문헌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들과 원칙적요구들, 그 구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문헌은 무엇보다먼저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히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오늘 혁명과 건설이 매우 심도있게 다방면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은 그 어느 력사적시기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을 우리앞에 펼쳐주고있으며 이 현실생활의 다양성은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생활령역을 포괄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원만히 실현되면 될수록 인간생활은 더욱 다양해지며 인간들의 개성 또한 다양하게 발현되기마련이다. 인간생활의 다양성은 그만큼 다양한 주제의 탐구를 요구하며 인간개성의 다양성은 그만큼 참신하고 다양한 인간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더욱 광범한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기적과 혁신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현시기 다양한 주제의 작품 창작에서는 우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

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이미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장편소설들과 다부작영화문학 **《조선의 별》**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창조한 귀중한 경험을 살려 반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 세계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오늘 작가들앞에는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당의 은덕을 노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당의 고마운 은덕만을 노래하여서는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할수 없다. 당의 위대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만 폭넓게 구현될수 있다. 작가들은 당의 진두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고결한 인간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문학예술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속 빛내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교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 주제의 작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국은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것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참다운 인민의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싸운 항일혁명선열들과 애국선열들의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하며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실천적모범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이자면 어떻게 살며 일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주제의 작품에서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함께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가장 존엄있는 민족이라는것을 깊이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과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작품도 많이 창작해야 한다.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일단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싸워나가도록 군민일치의 사상을 감동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반영한 군사물주제에서는 다양한 군사정치훈련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새것을 지향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며 새것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모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반대하고 진보적이며 혁신적이며 혁명적인것을 지향하면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함에 있어서는 해당한 주제분야의 생활을 일반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참신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생동하게 체현하고있는 새로운 인간성격을 창조함으로써

주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결국 다양한 주제의 작품 창작은 다양한 생활소재의 탐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종자를 형상적으로 체현한 새로운 인간성격들을 다양하게 창조하는데 귀착된다.

문헌은 다음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다양한 문학예술형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고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자면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키자면 문학작품창작을 앞세워야 한다. 그것은 문학이 모든 예술의 사상예술적기초이며 문학예술발전의 선결조건이기때문이다. 문학작품창작을 앞세울데 대한 방침은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을 선행시킴으로써 모든 문학예술 작품창작에서 인간학적요구를 옹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본질적요구가 있다.

작가들은 문학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작가들은 우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각색하여 훌륭한 영화와 가극, 연극을 만들수 있으며 소설의 종자를 가지고 좋은 무용작품도 만들수 있다.

작가들은 또한 서정성이 풍부한 시문학작품들과 아동들의 심리정서적특성에 맞는 아동문학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작가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문학을 앞세워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창조하는데 이바지하며 좋은 가극문학과 극성이 강한 희곡문학을 창작하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피바다》식가극과 《성황당》식연극 창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시화된 가사문학을 창작하여 음악부문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며 무용, 미술, 교예 부문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다같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문학예술부문에서 대작만 창작하지 말고 소품을 창작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무용소품과 음악소품,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한 짧은 극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모든 화원을 더욱 활짝 꽃

피워나가야 할것이다.

문헌은 다음으로 혁명적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첫째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한다는것을 말한다. 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하고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하며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성과와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며 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작품에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으며 자연주의, 형식주의적 잔재요소들과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고 형식만을 내세우는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수정주의적요소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인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는것이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은 특색이 있고 독창적이어야 볼 재미가 있고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이 남의 작품을 모방하는것은 창작가로서의 량심이 없는 행동이며 남의 작품에서 표절하는것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작가들은 현실은 다양한데 하나의 류형을 만들어놓고 그 틀에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을 맞추려 하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개성과 특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거세하려는 그릇된 창작태도이다. 우

리는 이러한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백명의 작가가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르고 특색있는 백가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높은 당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그것을 독창적으로 형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작품 심의사업과 평론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해당 전문일군들이 작품심의사업을 집체적으로 하고 평론활동을 강화하여야 창작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제때에 극복하고 창작사업을 개선할수 있다.

심의원들은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을 가지고 작품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창작가들의 창작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비평이 없이는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는것만큼 평론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야 한다. 평론가들은 특히 작품창작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정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며 그러한 요소들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자질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예사상학습과 결부되고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며 전공부문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또한 현실체험을 강화하여 들끓는 현실의 본질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과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냄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력사적문헌은 주체문학건설에서 나서는 주체방향과 구현방도, 문학예술형태발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창작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파업과 수행방도 등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 문헌을 더욱 깊이 학습하고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어머니당에 영광을

차영도

걸어온
자욱자욱에
무슨 꽃을 뿌려
그 은혜 감사타 하리
수수천만 아들딸
마흔여해를 안아키운 어머니!

흘러온
그 많은 낮과 밤은
무슨 노래에 삼가 담아야 하리
우리에게 이 행복 안겨주며
고스란히 바쳐온 해와 달-

아, 정녕
천만의 아들딸들을 안아키우기에
세월의 낮과 밤을 이어
사랑만을 준 어머니!

축복하노라
우리들수록 생각은 더욱 깊어
충심으로부터 그대의
창건기념일을 축복하노라
당이어, 어머니시여

조용히
추억을 더듬으면
우리의 기억속에 떠오르는
못잊을 그 모든것-

그것은 오직
흘러간 세월의 그 해와 달 속에
그대 기울인 사랑뿐
그대 베푼 은혜뿐...

곳은날 비 뿌리면
그 비바람 다 막아주고
추운날 눈이 오면
그 눈바람 다 막아주는 품

정녕 끝없는 심혈과 사랑으로
인민의 존엄 만방에 펼쳐주고

비범한 정력과 예지로
주체의 내 조국 누리에 빛내주면서도

한조각의 그늘이
자식들의 마음속을 가리울세라
해빛을 주고 봄빛을 주는
고마운 당!

못잊어라
당은
40 여년을
아, 것처럼 우리 오래도록 눈익혀온
어머니모습 !

그때문에
어머니당의 이 명절날엔
드리는 꽃다발 그리 아름답고
드리는 감사 그리 뜨거웁나니

무심히 생각되지 않아라
이 아침 우리의 머리우에
송엄히 나뭇기는 당의 기발,
아, 그 기폭의 정깊은 스적임소리-

묻노니, 한없이 송엄한 저 기폭의 나뭇김소리
한평생 아들딸들을 품 안아 키운
어머니의 그 살뜰한 정
정겹게 새겨드는 이 마음아

정녕 그 하나의 붉은 기폭
천만의 아들딸들을 불러
모진 시련의 언덕을
다 이겨넘은 우리 당!

오로지 그 기발 세기의 폭풍속에 추켜들고
주체의 조선을 이끌어나가는 길에서
우리모두를 혁명의 전사로 키워준
강철의 우리 당!

세월이 갈수록
생각 더욱 깊어지는 어머니-

인자함과 강의함은 이룰데없고
무진한 활력과 비범한 천리혜안은
따를바 없는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조선로동당 !

폭풍도 두렵지 않아라
당과 함께라면
진절도 산악도 웃으며 넘으리

어머니당을 따르는 길이라면

오 , 당이여 어머니시여
이 땅에 해와 달이 무궁토록
그 빛나는 위업 세기에 떨치며
이 나라의 수수천만 아들딸 거느리시여라
나가는 승리의 한길에
영광만이 길이 빛나라!

새날의 지평선

윤병규

곳은비 내리던 고원의 날씨도
영광의 이날을 알아서인가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
눈부신 금나락의 대지

더없이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절하듯 물결쳐 안겨오는
무연한 밀바다우에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어버이수령님!

발판수의 새 물길 자리도 잡아주시고
기계는 요구대로 다 주겠다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푸셨으니
이제는 마을길 내리셔야 하련만
한낮이 기운 시간의 흐름도 잊으시고
포전길을 걷고 거니시여라

기계화, 화학화도 일찌기 펼쳐주시여
해마다 대풍 드는 벌이여도
한포기 이삭을 저러히 뜨겁게 쓸어보심은
전선이 남으로 굽이치던 포화의 그날에도
여기, 북으로 떠나보내신 땅크들이
천년 원시림을 갈아번지던
첫 개간의 준엄한 날들을 생색하시여선가

천천히 둔덕길에 오르시여
먼 들끝을 오래도록 바라보심은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주인 모를 목발에 손수 씨를 뿌리신
아, 잊지 못할 조국진군의 그 봄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여선가

이윽고 환히 웃으시며
큰결을 옮기시는 수령님
어깨우로 손 높이 드시여라
-이제는 우리
공산주의농장의 본보기로 꾸립시다!

오 광복의 해발을 안겨주신
여기 백두의 기슭에서
오늘은
공산주의 새날의 지평선을 열어제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손길이어

영광님처라
백두삼천리벌이여
너는 수령님 평생의 사랑속에서
세월이 갈수록 더 복된 행복을 꽃피워가거니

밝아온 새력사의 언덕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아래
대지에 펼쳐진 열매도
천만년 풍요히 설레일 금나락도
은혜의 태양
사랑의 태양
그이앞에 목메인듯
설레이며 들먹이며 절을 하누나!

력사의 그날에

김정호

한점의 등불은 타오르고있었다
화전의 나지막한 초가집
못잇을 그 들창가에-

그 밤
송화강기슭
울창한 스무나무숲속에선
밤새들 새날을 꿈꾸었고
화전의 먼 하늘가엔
은하수 유난히 밝게 흘렀어라

력사의 그 밤
우리 수령님
《ㄷ. ㄷ》의 강령을 한자한자 새기며
심혼을 바쳐가실 때
새날은 동터오고있었다
어둠이 밀려가는 저 하늘가엔
아, 붉은 노을 붉은 노을

피의 동란
력사의 교훈을 밝히시며
혁명을 모색하고
투쟁의 진로를 개척하신
혁명의 영재 **김일성**동지 !

보석같이 빛나는
백전백승 진리의 글발을 새기시며 밝혀가신
한점의 등불,
수천만 가슴들에 불씨를 심어주어

가사

점점의 불꽃 불의 대하 이루었거늘
머슴청년은 호미를 쥐었던
그 마디 굵은 손에 무장을 잡고
풀무간의 마치를 들었던 더벅머리총각
투쟁의 붉은기 높이 들고
나섰도다, 혁명전에-

그 불빛
꺼져가는 조선의 숨결에
생명이 되었고 냇이 되었고
우리 당의 첫 뿌리 되었고
창공에 솟아 나뭇길
붉은 기치에 밝은 빛을 주었도다

아, 위대한 《ㄷ. ㄷ》의 기치
폭풍을 부르며 솟아올랐도다
혁명의 첫 출발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으로,
투쟁의 진리를 밝히는 불멸의 등대로!

못잊어, 못잊어
력사는 저 무궁한 하늘가에
영원한 글발로 새겼도다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혁명의 시원을 열어주신
1926년 10월 17일
아, 력사의 그날을

언제나 백두산에 사는 마음

안정기

행복의 창문가에 꽃향기 풍기여도
언제나 백두산을 못잊는 마음
천지에 몰아치는 눈바람 같이
밀림에 휘날리던 붉은기 같이
한생을 살리라 해와 별 우러러

유혹의 봄바람이 손저어 부른대도
눈덮인 백두산에 뿌리둔 마음
새월에 녹지 않는 만년설 같이

장군봉 받드는 충암과 같이
변치를 앓으리 해와 별 우러러

험한 길 홀로 가도 하늘땅 끝에 가도
내 오직 백두산에 살아갈 마음
눈속에 피어난 만병초 같이
백두에 빛나는 노을과 같이
열정에 불타리 해와 별 우러러

인민을 위한 그이의 사랑

크와쉬가 아그베꼬

평화의 목소리 울려오네
사랑의 목소리 울려오네
구원의 목소리 울려오네
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내 잊을수 없어라

김정일 동지를

그이는 인민의 친애하는 벗
그이는 세계가 낳은 아들
뜨거운 사랑 흘러넘치는
그이의 넓은 품에 인민은 안겨사네

품이 버글도록 인민을 안으시고
두팔로 인민을 받드셨나니
인민들 따사로운 해빛 한껏 받으라고

그이는 참된 향도자
그이는 은혜로운 해방자
그이는 절세의 위인

빛나는 예지를 지니신분
그이의 모든 사랑은 인민을 위한것

그이의 미소는 인민의 행복
우리 그이의 사랑의 큰뜻 따르리
오, 친애하는 그이를 노래하리
천지개벽을 이룩하신 그이의 노래를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참된 사상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의 향도의 별
이 세상 만민에게
사랑의 빛발 뿌려주는 별
우리 그이께 감사를 드리노라

(필자는 가나 37 호군대병원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임)

꽃피는 봄에도 눈오는 겨울에도

리광선

꽃나이지절이니
귀한 사람 사진도 끼워있을거라고
늘 노래를 부르며 다니니
새 노래도 빠짐없이 적혔을거라고

누구나 생각했다데
꽃피는 봄에도
눈오는 겨울에도
항시 들고다니는
소조원처녀의 빨간 수첩에

씨슈음을 해도 비료를 쳐도
그 수첩 펼치고 소조원이 하는 말에
막혔던 생각도 다 풀리고
새롭게 마음도 확 트이여

누구나 한번 보고싶었네
백가지 농사일 다 설명하고

농장원들 속마음도 다 적혀있는
소조원처녀의 빨간 그 수첩

집집의 장독도 열어보고
자꾸만 무엇인가 적던 그 수첩
논두렁 포기포기 콩그루도
세여보며 적어넣던 그 수첩

구수한 낱알향기 별 가득 넘친
풍년든 그 밤에 별들은 보았네
날가리에 등실 걸린 달도 보았네
풍년수확고 큼직이 적어넣는걸

바로 그것이였다네
당에 기쁨 드릴 만풍년을 위해
3대혁명 그 한길로 농장을 떠밀어준
소조원의 진정어린 그 마음

금강의 이름없는 바위에도

송명근

금강의 단풍잎은
천만의 꽃손 흔들어흔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반기는가
부서지며 흐르던 맑은 물도
억만구슬 뿌리며 멈추어서고
산천정기에 취하신듯 미소지으시며
허리에 손을 짚으시는 지도자동지
옥류동굴안을 둘러보시며
해설원의 설명도 귀담아들으시더니
문득 한 바위를 가리키시었네

-저 바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금강산이 생기고
길이 열리어
찾은이 수수천만이었도
이름 준이 하나 없던 저 바위
사람마다 스쳐지나던 바위
금강의 바위마다 깃든 전설
다 알던 해설원도 어쩔줄 모르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의 손을 다정히 이끄시며
이쪽으로 비껴서서 쳐다보라고

-그래 저 바위가
원췌를 향해 일떠선 병사의 모습같지 않습니까?

순간
해설원의 눈에 비껴드는 불굴의 군상이여
증기를 틀어잡고 멸적의 불을 뿜는듯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으로 굴러내리듯

-해설원동무,
저 바위를 《사수바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강산을 지켜 용맹을 떨친
351 고지의 영웅사수들을 잊지 않도록...

아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만 솟아 수수천만년
이름없던 하나의 바위에도
위대한 예지의 빛발이 비껴
승업한 뜻이 어리고
금강의 모습은 새로와지나니

황홀함에 잠기여
젖어오는 해설원의 눈곱
이름없던 저 바위앞에
높은 뜻 새겨갈 천만사람 그려보며
심장은 웨쳤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복받은 강산이여, 빛나라!

그 빛나는 자욱우에

리영복

또다시 그이께서는
그 땅을 걸으시었다
두해전 늦은 봄날
문득 찾아오시여
크나큰 믿음의 파엽 주시던
그 력사의 땅을-

친애하는 그이를 반기여
더욱 키를 솟구는듯
구름가에 치솟은 1 만톤프레스
산악처럼 거연히
름름한 자태 드러내는데

사랑스런 전사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는듯
대견스레
이쪽에서 보시고
저쪽에서 보시고
다시 또 보아주시고...
ㄱ

이 우람찬 기체
세상에 보란듯 태어난것이
그리도 기특하시여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로동계급이 그리도 미더우시여
크나큰 기쁨을 느끼시는 그이

그것이 바로
두해전 이 구내길을 걸으시며
자신께서 펼쳐주신 구상따라
솟구쳐오른 기적임은 잊으신듯

그것이 바로
충성스런 로동계급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걸린 고리를 다 풀어주시며
힘차게 떠밀어주신 그 빛나는 결실임을
조금도 생각지 않으시는듯...

한평생 인민 위해 인민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길을 이으시며
 이 나라 방방곡곡에
 새 창조의 자욱 새겨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걸으신
 그 숭고한 자욱우에
 자립의 위용 펼치며
 우리 식의 1 만톤프레스가 솟아올랐고

그이 다녀가신 자욱마다에
 대기념비들 숲처럼 솟구쳐올랐나니

아, 이 강산은 어데 가나
 그이의 자욱으로 빛나고
 그 자욱우에 위대한 창조물이 차넘치는
 주체의 나라!
 그래서 더욱 빛나는것이여라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이어!

생각은 한뫼으로

강수명

노을이 붉게 타는
 이른아침에도
 별이 웃는
 깊은 한밤에도
 내 생각은 오직 하나뿐

조국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를 헤쳐갈 때도
 대륙과 대륙을 넘어
 멀리 하늘을 날을 때에도
 한뫼으로 흐르는 나의 생각

어이하면
 은혜로운 해발아래 새삶의 숨결을 받아안은 이
 한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으신 뜻
 언제면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울수 있을가

아, 내 진정
 어떻게 하면
 친애하는 그이께
 기쁨만을 드릴수 있을가

외진 산골
 이름모를 벽촌에 핀 한떨기의 꽃
 길가의 조약돌마냥 버림받던 이 몸을
 안아키운 자애로운 그 품

지혜의 나래를 활짝 펴라고
 어제는 과학의 전당에 세워주시더니
 오늘은 주체의 외교전법 누리에 펼쳐가라고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빛나는 예지

심원한 사색으로
 미숙한 내 생각을 퇴워주시고
 걸음걸음 나갈 앞길
 환히 밝혀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
 베풀어주신 그 은정, 그 신임
 내 무엇으로 헤아리면
 그 깊이와 끝을 다 알랴

바라시는 그 높이와
 주시는 그 믿음에
 한생토록 보답해도
 너무도 모자랄것만 같아
 언제나 안타까운 이 마음

그래서 야자수 무성한 아프리카남단에서
 저도 모르게 눈길 들면
 내 마음 가닿는곳은 당중앙창가
 때로 어려운 일 겹쌓이고 부닥칠 때에도
 눈앞에 환히 안겨오는 그리운 영상
 친애하는 그이에 대한 생각뿐

이 한생각으로
 새 아침을 맞고
 이 깊은 사색속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나니

내 삶을 값높게 이어준 그 사랑에
 충성다할 한생각
 자나깨나 은혜받은 전사의 의리로
 보답할 한생각만이
 언제나 한뫼으로 흐르고있어라!

30 분간

백남룡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눈발속을 헤치며 도소재지로 돌아오고있었다.

푸근한 날씨였다.

함박눈송이들은 조그만 흰 나비들마냥 차창앞에서 춤추듯 날아였다. 유리창에 희디흰 별꽃을 수놓다가는 어느새 물방울로 변하여 굴러내린다. 눈송이들과 물기로 어롱진 차창밖으로 눈이불을 덮어 축 늘어진 가로수들이 흘러갔다.

수행일군은 시계를 자주 들여다본다. 벌써 1시가 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소집하신 도내 당, 정권기관, 경제지도일군협의회시간은 2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 점심식사를 못하셨다. 아침부터 이 지방의 화학섬유공장을 실무지도하셨고 오시던 길에는 언젠가 약속하신적이 있는 산골농장의 처녀작업반장네 포전에까지 들리시느라 늦으신 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좌석등반이에 편히 기대신채 협의회에서 토의하실 문제들을 놓고 깊은 사색에 잠기셨다. 그이의 얼굴에는 수일간의 현지실무지도에서 얻으신 피로가 짙게 어려있었다.

승용차는 가벼이 들추며 눈속에 묻힌 흰 도시의 일각이 그림처럼 펼쳐진곳으로 질주해간다, 어느덧 자그마한 다리를 넘어서자 도시교외에 들어섰다.

한적한 길이다. 눈우에는 차바퀴자국들이 깊숙이 나있다. 창턱에까지 눈이 쌓인 건물들이 지나간다. 전선줄과 가로수가지들에서 눈이 몽청몽청 떨어져내린다.

눈발속으로 공원이 바라보인다. 거기서는 아이들이 공을 따라 새떼처럼 몰려가고 몰려오고하였다. 아이들의 발길에 뛰어오르는 눈가루로 하여 공원에는 눈이 더 많이 내리는것 같았다. 공을 몰다가 넘어진 아이는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들쓰고서도 털념을 하지 않고 땀다 달려간다. 공원기슭의 전나무뒤에서 공빼앗기 혼전이 벌어진다. 어느 애가 나무에 부딪쳤는지 전나무가지에 쌓였던 눈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에 끼는 뜬김을 손으로 닦으시고서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꼬마들의 축구가 아주 맹렬하구만...》

시간이 있으면 구경이라도 하고싶으신 심정이시였다.

길은 공원을 멀찍이 에돌아 커다란 건물옆으로 구부러졌다.

공원도 아이들도 점점 멀어지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

이들의 즐겁고 열정적인 웨침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오는 공원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다감한 심정을 알기라도 한듯 길은 건물 몇개를 지나서 다시 공원의 반대편쪽으로 뻗어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고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그러나 공원변두리로는 생나무울타리를 촘촘히 둘러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승용차가 속력을 늦추었다. 젊은 교통안전원이 차길의 눈속에서 고무공을 집어내고있었다. 아마 어느 애가 빗찬 공이 공원울타리를 날아 넘어온 모양이다. 교통안전원은 승용차가 다가오자 걸음길쪽에 올라섰다. 한손에 고무공을 움켜쥔 그는 성난 눈길로 공원쪽을 휘둘러보고있었다.

《차를 세우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생나무울타리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모자와 열굴들이 빠금히 내민다. 교통안전원이 고무공을 쥔 손을 그들에게 내흔들며 소리쳤다.

《이녀석들! 어디 혼나봐라!》

순간 생나무울타리에 조롱조롱 열렸던 털모자, 고깔모자, 스키모들이 요술이나 부리듯 짝 없어졌다. 울타리꼭대기에 쌓였던 눈만이 푸시시 흩어져내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승용차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교통안전원은 황황히 구두뒤축을 모아붙이며 거수경례를 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인사를 받으시고서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교통안전원동무, 공이 터지지 않았소?》

《예, 방금 지나간 화물차에 터졌습니다.》

《어디 보지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쭈그러진 공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시였다.

《아주 못쓰게 됐구만...》

아쉬운듯 말씀하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졌다.

그이께서는 조용해진 공원쪽을 이윽히 보시더니 교통안전원을 가벼이 나무라시였다.

《공이 이렇게 됐는데... 애들에게 성을 내서야 되겠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까도 공을 차지 못하게 쫓아버렸는데...》

《음, 그런데 또 와서 찬단말이지...》

김정일 동지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되뇌이시었다.

이때 울타리너머에서 아이의 또렷또렷한 웨침 소리가 들렸다.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께서 오셨다!-》

뒤미처 울타리우의 닭알눈을 떨어뜨리며 기쁨과 놀렘과 환희에 찬 아이들의 얼굴이 키돋움하며 솟아올랐다. 저마다 울타리를 먼저 넘어오려고 한쪽다리를 걸치지 못해 애를 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너 공원울타리쪽으로 가시며 소리치시었다.

《어- 그러다 떨어진다, 떨어져! 넘어오지 말어라. 내가 가지 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루 살펴보시다가 저쪽 공원울타리끝에 열려진 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급해서 어쩔줄 모르던 아이들은 울타리안에 도로 뛰어내리자 그이께서 가시는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뒤따라오는 수행일군에게 말씀하시었다.

《동문 빨리 상점에 가서 공을 사오시오.》

《!...》

난처한 표정으로 서있던 수행일군은 조심스레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공을 사다가 애들에게 주겠습니다. 먼저 숙소에 가서서...》

《어서 갔다오오. 그래야 몇분 걸리겠소.》

《...》

《예비로 두어개 더 사오오.》

수행일군은 그만 더 서있지 못하고 승용차쪽으로 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옆에 서있는 교통안전원에게 소탈히 말씀하시었다.

《동문 나와 함께 아이들한테로 가보지요.》

《!...》

당황해서 부동의 자세로 서있던 젊은 교통안전원은 은연중 솟아오르는 기쁨과 격동을 누르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 단속을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순간에 잊어버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뒤를 따라갔다. 벌써 조무래기들이 울타리문이 터지게 밀려나온다. 먼저 나오겠다고 덤벼치는통에 서로 몸이 끼이군했다. 그래 잔뜩 울상이 되었다가는 빠지지만 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퍼서는 뉘다 달려온다.

《천천히 천천히 넘어질라...》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릎을 굽히고 앉으시여 뛰어오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안기는 행복을 먼저 누린 아이들은 어른처럼 의젓한 몸가짐을 하고서 그이의 곁에 붙어선다. 맨 마감에 뛰어온 아이는 키가

작았다. 그애는 웃는지 우는지 알수 없게 두눈에 물기가 그렇그렇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솜옷자락과 어깨와 바지가랭이에 묻은 눈을 털어주시고 솜옷의 벗겨진 단추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었다.

《너희들은 이 거리에 사느냐?》

《예!-》

《우리 아빠트는 저집니다.》

토끼털모자를 눈섭까지 내려쓴 아이가 손을 들어 멀찍이 길아래편에 있는 하늘빛, 흰빛, 감빛으로 장식한 3층건물을 가리켰다.

《그옆에 아빠트는 우리 집입니다.》

고깔모자를 어깨너머에 벗어내친 아이는 그 큰건물이 다 자기가 사는 집이거나 한것처럼 자랑한다.

《모두 좋은 집이구나. 색깔두 곱구 창문도 넓구...》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자랑에 긍정을 보이시었다.

《그래 축구를 하했느냐?》

《예.》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스키모를 쓴 애가 가슴을 쑥 내밀고 오돌차게 대답했다.

《경기라니? 허, 어느 팀이게?》

김정일 동지께서는 짐짓 놀라와하시었다.

《8 호동하구 9 호동입니다.》

《음, 아빠트 8 호동팀과 9 호동팀이란말이지? ...결승경기냐?》

《아닙니다. 저 예... 예선입니다. 이기문 래일 7 호동과 불구...》

《준결승을?》

《예.》

《일요일엔 결승전을 합니다.》

《허, 아주 대단한 경기였구나.》

김정일 동지께서는 랑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진정 대견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자기들의 축구경기가 국가선수단의 경기로 인정되기라도 한듯 조그만 가슴들을 내밀고 빼기였다.

《난 주장이고 공격습니다.》

《난 1 번 문지깁니다.》

《왼쪽날개는 접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선수》들의 자기소개를 마감까지 다 들어주시었다. 방어수는 하나도 없는것을 아시자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럼 어디 너희들의 경기장에 좀 들어가볼가?》

《야!-》

아이들은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이시여 공원안으

로 들어가시었다.

공원에는 몇그루 안되는 전나무들이 눈을 들쭉
채 정적을 지키고 서있었고 미끄럼대와 키크기륜
옆의 넓지 못한 공지는 방금 아이들이 혼전을 벌
린 축구장면을 연상케 하듯 눈이 짓뭇개져있었
다.

공원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김정일** 동지의 동
심에 잠기신 표정에는 한줄기 예리한 빛이 어리
였다. 그 빛은 곧 온 얼굴에 엮은 그늘로 퍼져갔
다.

《교통안전원 동무, 이 아동공원이 선지 오래
오?》

《한 20년 된다고 합니다.》

《음...》

김정일 동지의 음성은 무겁고 얼굴은 한층 더
어두워지었다.

젊은 교통안전원은 막연한 불안에 휩싸였다.
공원에서 무엇이 그이의 불만을 자아냈는지...

까닭을 알지 못한 교통안전원은 불시에 자기의
실책을 상기하였다. 아이들이 공을 차지 못하게
했다라면... 바쁘신 그이의 승용차를 멈추게 하
지 않았으리라. 때늦은 후회와 자책감은 교통안
전원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외투를 벗으시어 미끄럼대에
걸쳐놓으시었다. 아이들을 보시는 그이의 얼굴
에는 조금전의 그 동심세계가 한껏 어려있었다.

《너희들 눈사람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야!-》

아이들의 탄성에 전나무가지에 앉았던 솔새들
이 후르륵 눈가루를 떨구며 날아올랐다.

그이께서는 눈을 한웅큼 쥐시어 짹짹 빛으시었
다.

《눈사람 만들기 참 좋은 눈이구나.》

즐거이 말씀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덩어리를
토끼털모자를 쓴 키가 큰 아이에게 주시고 눈우
에 놓고 살살 굴리게 하시었다.

그이의 두리에 울망줄망 모여선 아이들은 차츰
커가는 눈덩어리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토끼털모자를 쓴 애더러 울
타리기슁으로 눈덩어리를 굴리라고 이르시었다.
그쪽에는 발에 밟히지 않은 깨끗하고 폭신평신한
눈이 흰 주단처럼 깔려있었다. 눈덩어리는 인차
호박만해지더니 조금후에는 큰 향아리만해지었
다.

그이께서는 토끼털모자가 서툴게 굴려놓은 눈
덩이의 모난부본들을 손바닥으로 탁탁 다지시어
매끈하게 하시었다.

《이건 눈사람의 몸통이다.》

그이께서는 다정히 말씀하시고 또 눈을 주먹만
하게 빚으시었다.

《자 이번엔 누가 이걸 가지고 눈사람의 머리를

만들어보겠느냐?》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두요!》

그이의 팔을 향해 조그만 손들이 숲처럼 솟았
다.

《허, 누굴 준다?...》

저으기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던 그이께서는 다
른 아이들에게 밀리워나 바깥둘레에서 발돋움을
하는 스키모에게 물으시었다. 아까 울타리문을
마감에 빠져나오던 키가 작은 애였다.

《네가 문지기지?... 이름이 뭐냐?》

《백경남...》

입귀가 벌글썩 열린 스키모는 너무 기뻐서 눈
만 슴벅거린다.

《애들아, 축구선수단의 문지기가 만드는데 옳
지?》

《...》

《...》

아이들은 경남이를 부러워 쳐다볼뿐 선뜻 대답
을 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렇듯 커다란 영예를
양보하고싶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잠시후에는
랑쪽으로 슬금슬금 물러서 길을 내주었다. 스키
모는 제법 의젓한 몸가짐을 하고 다가왔으나 숨
막힐듯한 행복감으로 두볼이 사과처럼 붉어졌다.

그이의 손에서 눈덩어리를 받아든 스키모는 깨
끗한 눈우에 놓고 조심스레 굴려갔다. 분가루같
은 눈이 덩어리주위에 달라붙기 시작한다. 아이
들은 그를 둘러싸고다녔다.

《옳다. 눈이 밟히지 않은곳으로 굴려라... 아니,
한쪽으로만 굴리면 동그랗게 되지 않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깨워주시었다.

시간은 한분, 한분, 또 한분이 흘러갔다. 교통
안전원은 울타리문을 나와 눈발에 가리운 큰길쪽
을 이윽히 지켜보았으나 승용차는 나타나지 않았
다. 어느 상점엔가 공을 사러 간 수행일군이 그
렇게 빨리 올수 없으리라는걸 짐작하면서도 그는
조바심이 나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이의
승용차가 지체된지도 벌써 18분간이나 흐른것이
다.

공원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교통안전원은 초조와 불안속에서도 어느덧 마
음이 자석처럼 이끌려 다시 공원안으로 들어갔
다.

아이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모여
서 벽적 떠들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삭정을 꺾어서 먼저 토끼
털모자를 쓴 애한테 주시었다.

그 애는 우쭐렁대면서 대리석조각상같은 눈사
람한테 가서 눈섭을 붙였다. 다음에는 스키모를
쓴 애가 그이의 손에서 삭정이토막을 받아가지고
눈을 붙였고 그다음엔 또 다른 아이가 차례로

나갔다.

그이께서는 어린 《조각가》들이 서툰숨씨와 취미와 주견대로 눈사람얼굴에 삭정이를 어방없이 붙일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겨 웃으시었고, 나무람은 조금도 하지 않으시었다.

그리하여 눈사람의 모습은 요란스럽게 되었다.

주먹코에 눈썹과 눈이 저마끔 빼돌어서 우는지 마뜩잖은 표정인지 딱히 가늠할수 없는데, 커다란 입은 하 벌리고 웃는다. 귀는 불편에 납작 붙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들의 창조품이 만족스럽고 회한해서 어쩔바를 모른다. 교통안전원은 초조함에 휩싸여 또 시계를 본다. 27 분이 지났다. 귀중한 시간을 그이께서 흘려보내시게 했다는 가슴아픈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시계의 초침은 그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며 사정없이 돌아간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나무밑에 놓여있는 긴의자의 눈을 손으로 쓸어내시고 앉으시었다. 놀음에 취해 두볼이 발강게 상기된 아이들은 저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곁에 붙어앉으려고 비비대고 싱깅이질을 했다. 자리가 없는 아이들은 그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기도 하고 의자등받이를 팔굽으로 그러안고서 몸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애에 넘친 얼굴로 아이들을 향해 물으시었다.

《너희들 손이 시리지?…》

《안시립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을 올렸다.

《어, 손들이 빨개졌는데두?…》

그이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스키모와 토끼털모자를 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이것보지, 얼음덩이 같은걸.》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입김으로 녹여주기도 하시고 자신의 따스한 옷섶속에 넣어주기도 하셨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손을 맡기느라 한참 벽작거렸다. 질은 어리광, 호기심, 천진란만성이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정겨이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저으기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인젠 우리 뭘할가?…》

《옛말을 해주십시오.》

《옛말을?…》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어깨를 가벼이 쓸어만지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한적한 교요속에서 함박눈송이들만이 날린다.

눈송이들은 그이의 어깨우에도, 옷자락에도, 아이들의 털모자에도, 고깔모자들에에도… 내려앉는다.

큰길쪽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승용차가 공

원문어구에 벗어나고 수행일군이 서둘러 내렸다.

세계의 큼직한 고무공을 안고오는 일군을 보자 교통안전원은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애들아, 공을 가져오는구나!》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뻐서 말씀하시며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이 안고있는 고무공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려보시고 그중 탐탁한 자주빛공을 골라잡으시었다.

《자, 가지구 놀아라.》

《…》

《…》

아이들은 어쩔지 머뭇거리며 그이의 손에서 고무공을 선뜻 받지 못했다. 아까는 눈덩어리를 달라고 그렇게 울려뛰던 아이들이었다.

《히, 왜들 이러느냐?… 음, 옛말을 못들어서 그러지?… 어찌겠느냐, 너희들과 함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시간이 없구나.》

《!…》

《!…》

《어서 축구경기를 마저 하거라.》

그이의 다정한 말씀이 울렸으나 여전히 공에 손을 내미는 아이는 없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는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눈에는 어느덧 물기가 어리고있었다. 어린 그들의 천진한 마음에도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의 파문이 일어난것이다. 교통안전원은 그이의 손에서 공을 받아 공원마당의 복판에 갖다놓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조용히 타일렸다.

《애들아 어서 공을 차거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제야 아이들은 활기를 띠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곧 눈우에서도 풍풍 뛰어오르는 새 고무공에 열중하여 쫓아다니었다. 조그만 발들이 닿는곳에서 눈가루가 튀어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깨며 가슴에 수북이 쌓인 눈을 터실념도 않고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자애깊은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을 향해 물으시었다.

《시간이 꼭 지났지?》

《예… 공원에서 30 분이냐…》

《그러니… 협의회시간도 다 됐구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생각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고는 공원울타리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시었다. 울타리문으로 가지지 않고 눈을 들 쓴 매화나무덤불곁에서 멈춰서시었다. 손으로 생나무울타리의 높이를 가늠해보시더니 전나무가 드문드문 서있는 울타리주위를 둘러보시었다. 그이의 얼굴에는 아까 공원에 들어서시었을 때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비졌다.

《교통안전원동무- 공원이 선지 20년된다고 했

지?…》

《예…》

《애들이 차는 공이 길쪽으로 자주 날아가오?…》

그이께서는 울타리너머 길쪽을 걱정스레 살피시며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었다.

《애들이 차가 다니는 길로 공을 주으러 가는건 위험하지…》

《그래서 저희들은 애들이 공원에서 공을 못치게…》

《그랬을테지… 그래도 애들은 교통안전원이 없을 땐 가만가만 공을 찼을거구…》

《…》

《우리 애들의 공차기놀음이 늘 구속을 받았겠소… 애들이 넓지도 못한 이 공지에서 눈치까지 봐가며 공을 차다니… 안될 일이요.》

그이의 눈섭이 실망과 의분을 품고 내려쳐올랐다. 공원너머 도시쪽을 보시는 두눈에서는 예리한 빛발이 번뜩이었다.

교통안전원은 그만 당황해서 고개를 떨구었다.

무언가 일을 잘못했다는 불안과 흥분이 온몸을 휩쓸것이다.

《애들의 공차기놀음을 보호해줄 대책은 세우지 않고 통제만 해왔단말이지.》

그이의 음성은 나직했으나 교통안전원에게는 우뢰소리같은 진폭으로 들렸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이들을 근무수행에 방해되는 시끄러운 존재로 꾸짖고 늘 쫓아버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적이 없는 그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교통안전원을 보시다가 그의 하사견장에 눈길이 뒹그랬다. 더 하고싶은 말씀을 누르시고 묵묵히 승용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차월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듯 공원쪽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거기서는 아이들의 축구시합이 한창이다. 청신한 대기속으로 맑은 웃음소리가 흐른다. 흰 눈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것을 독차지한듯싶은 짹짹한 웨침소리가 공원위로 머나먼 하늘가로 울려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문에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당부하시었다.

《교통안전원동무, 봄에 가서 분주소동무들과 같이 공원울타리안으로 빙 둘러가며 나무를 배게 심으시오. 황철나무나 백양나무를 심어 옷가지를 잘라주면 옆으로 무성하게 퍼집니다. 공이 날아가는걸 막을수도 있고 공원의 풍치도 좋아 애들이 마음놓고 놀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영사업소가 할일이지만 안전원동무들이 꼭 심으시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원은 죄스러운듯 나직이 대답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에 오르시었다. 승용차는 눈우에 바퀴자국을 찍으며 가벼이 떠났다. 차창으로 아동공원과 그 생나무울타리옆의 길가에 얼어붙은듯 서있는 교통안전원이 점점 멀어져간다.

아이들이 공원밖으로 몰려나오며 두손을 높이 흔드는것이 보인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마주 흔드시었다.

승용차는 시내로 조용히 미끄러져간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등반이에 몸을 묻으신채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공원에 들어서실 때 느꼈던 불만의 감정, 아이들이 명랑하게 노는것을 보시면서도 내려가지 않던 피로움이 다시금 그이의 가슴을 채웠다.

(누구나 볼수 있는 도시의 길거리에서 이 문제가 방관시되고있다… 도의 술한 일꾼들이 아동공원을 지나다녔는데 왜 보지 못했는가…? 아니면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말인가?!… 어째서!…)

그이께서는 지난 여름에 차를 타고가시다가 길옆의 강기슭에 박아놓은 《수영금지》라고 쓴 패말을 본 기억이 나셨다. 그 강에는 아이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마음껏 놀수 있는 수영장은 없었다.

(아이들을 통제의 울타리안에만 넣어두려는것은 후대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관점이다. 철부지 아이들의 놀음과 장난이라도 그속에는 어린 그들의 자유로운 세계가 있지 않는가. 개성의 싹을 존중하고 원예사처럼 보호하고 키워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재능을 가진 역센 후대를 바랄수 있겠는가. 나라의 장래를 담보할수 있겠는가.)

승용차는 그이의 사색을 방해할세라 눈길우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우리 일꾼들이 이 점을 중시한다면… 아이들의 개성문제가 단순히 교육상의 문제이기전에 미래의 조국을 걸머질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문제라는것을 느낄수 있지 않겠는가.)

눈송이와 물기에 어룽진 차창으로 도시중심거리가 펼쳐진다.

(그래 이젠 협의회에서 선차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거리쪽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도당회의실로 가지요.》

승용차는 속도로 가는 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굽어들었다.

눈이 내린다.

눈송이들이 날린다.

원경의 산발들, 벌판, 산간도시… 넓으나 넓은 땅에 어머니자연의 살뜰한 손길인 흰눈이 포근히 덮인다. 정갈하고 풍만하고 고요한 은세계속에서 대지의 모든 사물이 저마끔 모양이 다른 하얀 옷을 눈부시게 펼쳐입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10 월의 창가에서

리수웅

소리 없이 깊어가는 밤, 하늘엔 총총한 별들이 한껏 영글어 유난히 빛나고 들에서 풍기는 구수한 난알향기가 미풍에 실려 창가로 흘러든다.

창밖엔 밤이슬에 함초롬히 젖은 자귀나무잎새가 불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인다.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이고 생각은 끝없이 깊어지는 밤이다. 창밖에 질어가는 가을의 서늘로운 기운이 흘러서인지 아니면 바야흐로 다가오는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맞게 되어서인지...

벌써 그 몇번 흥분으로 설레이는 이런 밤을 맞고 보냈던가!

하건만 이해 10 월의 가을밤의 느낌은 자별한 것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는 가슴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안았던가. **김일성** 고금당학교창립 40 돛에 즈음하여 집필하신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경험》**을!

락상등 환한 불빛이 나의 시선을 이끌어간다.

우리 당건설의 역사적경험이 집대성되어있는 불멸의 총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찬란한 승리의 로정이 아로새겨져있고 휘황찬란한 앞길이 밝혀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40 여년동안 자랑스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다음 당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습시다.》

《E. C》에서 뿌리내리고 카륜에서 결성된 첫 당조직으로부터 자라나 전인미답의 자랑스런 로정을 걸어온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대한 역사를 돌이켜새겨볼수록 마음은 뜨거움에 젖고 가슴은 긍지로 마냥 부풀어오른다.

읽고 또 읽어 보풀이 일고 이제는 글줄에 담겨진 심원한 사상과 위대한 진리가 온몸에 피방울처럼 튀고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다시금 되새기느라니 저도 모르게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손더듬하게 된다.

추억의 족배가 나의 흘러온 생활의 시내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나의 청년기는 병사생활로 시작되였다. 아버지의 세대처럼 락동강의 불모래는 밟아보지 못했지만 장마속의 천리행군길도 걸어보았고 눈무지를 헤치고 세운 천막속의 야영훈련도 해보았다.

비에 젖은 장구류가 어깨를 짓누르고 엄습하는 추위에 온몸이 얼어들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고 의지를 주고 용맹을 안겨준 불멸의 모습들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

그들이 올라선 높이는 내가 따라서야 할 높이였고 그들이 지녔던 신념과 의지는 내가 지녀야 할 신념과 의지였다. 그들의 모습은 밤이나 낮이나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언제나 내곁에 있었다.

그들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께서 화전의 그 밤에 높이 추켜드신 **《E. C》**의 기발을 따라 혁명의 첫 기슭을 떠났던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고 노을 불타는 카륜의 언덕에서 혁명을 맹세다지던 첫당원들이었다.

혁명의 태양, 한별을 우리러 오선지우에 온 녀를 다 기울여 **《조선의 별》** 노래의 선율을 적어가던 김혁동지의 숭고한 정신적높이, 꽃나이청춘을 혁명에 바치는 최후의 순간에도 장군님 안녕을 축원하며 한별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던 차광수동지의 충성의 그 높이는 한생을 오르고오를 내 삶의 목표였다.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 !》라고 힘차게 웨치며 불뿔는 원수의 화점으로 뛰여든 신기철영웅과 팔다리가 끊어졌어도 수류탄을 입에 문채 열세차례나 파도식으로 공격해오는 원수들의 무리속으로 굴러들어가 육탄이 되어 당원의 의지와 신념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준 강호영영웅!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그 모습은 말없이 나의 걸음걸음을 떠밀어준 힘이였다.

참으로 항일의 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은 값높고 빛나는 삶의 절정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였다.

그래서 나는 훈련을 하고 보초를 서며 밤을 밝힐 때에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들의 곁에 자신을 세워보며 군무의 낮과 밤을 맞고 보냈다.

야영훈련장의 천막안에서 중대당원들은 나의 입당문제를 취급했다. 22년전 8월의 무더운 그날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석유등잔불에 비친 당원들의 숭엄한 모습, 나를 당원으로 받아들이며 높이 쳐들었던 그들의 역센 손과 손... 20 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그 모습은 하나의 군상처럼 내 가슴속깊이에 변함없이 솟아있다.

그날에 맞본 나의 흥분과 감격을 어찌 다 적을수 있으랴! 중대당원들의 역센 손에 받들려 새 생명을 받아안던 그 순간 나는 마음속깊이에 새

기고 언제나 삶의 절정에 세워보던 그 모습들을 따라 그들과 한데오에 섰다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가슴이 터질듯 뻐근하였다. 나는 그날에야 해방된 이듬해봄, 군당위원회에서 돌아온날 밤 아버지가 왜 당원증을 쓸고 또 쓸어보며 온밤 잠들지 못했는지, 어찌하여 이른새벽에 바삐 들로 나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천막밖으로 나온 나는 야영지를 어루만지며 은근한 빛을 뿌리는 푸르른 달빛을 마주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가슴속에 차넘치는 그 밤의 환희와 걱정과 흥분의 소용돌이를 무정한 수림을 향해서라도 쏟아놓지 않고서는 참아낼것 같지 않았다. 웨치고싶었다.

나는 오늘 당원이 되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당원으로 자라난 사람이 어찌 나 하나뿐이라.

끝없는 생각속에 밤도 깊어간다.

거대한 붉은 기폭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치고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기발이다.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성스러운 그 기발아래 태어났던가!

카툰의 봄언덕을 떠나 고난의 행군길을 거쳐 토지개혁의 발머리와 민주의 터전에서 늘어난 대오, 남진의 길에서, 1211 고지에서, 락원의 용선로앞에서 천으로 만으로 늘어난 대오!

비날론공장건설장과 북부철길공사장에, 지하막장과 전연초소에 다시 또다시 늘어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대오! 수백만 당원들 한사람한사람을 위대한 기폭에 감싸안아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은정을 어디에 비길것인가!

그 사랑속에 아버지가 자랐고 내가 자랐고 우리모두가 자랐다.

...1948 년 1 월, 주먹같은 함박눈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어느날이었다.

북조선로동당 평안남도 순천군당대표회의를 지도하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아이를 업은채 연단에 나와 토론한 한 녀성당원을 자신의 옆자리에 불러 앉히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만면에 봄별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몸둘바를 몰라 송구스럽게 앉아있는 녀성당원의 품에서 잠든 어린애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애를 훌륭히 키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날에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 자기에게 어떤 행복이 차례지고있는지도 모르고 잠들었던 그 어린이가 오늘은 어엿한 당일군으로 자라났다.

어찌 그뿐이라.

때로는 당회의와 당학습회도 지도해주시고 때로는 일군들을 깨우쳐주시고 한 로동자의 입당보증도 몸소 서주시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당원들의 성장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오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자육자육은 얼마나 빛나는것인가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당원들을 키우시였고 당조직을 굳건히 해주시었다.

전진하며 투쟁하는 불패의 우리 당에 대하여 생각하며 나는 하나의 거목을 상상해본다.

비옥한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거목, 하늘을 치받으며 천만가지를 뻗치고있는, 새 가지가 쉬임없이 자라고 억만잎새가 푸르려 설레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새 순과 꽃망울이 무수히 돌아나는 거목! 그것은 폭풍이 불어도 우뢰가 울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시고 새싹을 가꾸시고 역세계 자래우신, 넘치는 생기와 자양분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태양에 그 광원을 두고있듯이 우리 당원들의 값높은 삶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그 품속에서 빛나는것이다.

정녕 영광찬란한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품속에서 새 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여온 우리 당원들모두의 성장의 력사가 깃들어 있는것이다!

나는 강의록의 자자구구를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되새겨본다.

글줄이 살아움직이는듯, 귀전에 울려오는 환호성, 천지를 진감하는 힘찬 발걸음소리... 나의 작은 발자욱도 여기에 합쳐져 더 힘차게 울리는 발걸음소리를 듣는 행복감을 무엇에 비기랴!

대오가 흐른다. 나도 그 대오에서 함께 발걸음을 높이 울리며 만세를 부른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석단에 높이 서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흔들어주신다.

당기발이 숲을 이룬 불패의 대오가 발구름높이 흘러간다.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는 철의 대오!

위대한 력사를 아로새기며 투쟁하며 전진해온 불패의 전투대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더욱 빛나는 력사를 새겨가는 진함모르고 생기에 넘치는 우리 당의 행군대오에 함께 서있는 비길데없이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으로 이 밤 나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오른다.

나의 심정을 담은듯 가두 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선율이 고요한 밤대기를 가르며 은은히 울려온다.

...

가는 앞길엔 노을이 불타고

천만 심장엔 총성이 불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뜻깊은 10 월의 창가에 밤이 깊어간다.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리수립

이 땅에 생을 둔 시인으로서 어느 누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우러러 심장의 노래를 터치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

참으로 위대한 당은 우리 문학에 거창하고 심원한 시세계를 주었다.

오늘 시인들은 당의 가수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안고 당을 우러러 흠모의 노래를 부르며 시대가 부과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가고있다.

우리는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명작들을 수 많이 가지게 되었다.

작품의 양상이 다채로워졌으며 시적일반화의 철학적심도도 한층 강화되고있다.

시인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서 태어난 노래들은 위대한 우리 당과 그 품에 안긴 인민의 보람찬 삶을 구가하며 시대의 창공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주는 조선인민의 지도적력량입니다.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곧 혁명에 충실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인민들을 고무하고 교양하는 위력한 사상정서적무기이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한 시가문학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울수 있게 하는 심장의 노래를 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백전백승의 기치로서의 당에 대한 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로 나서고있다.

당을 노래하는 우리의 시가문학도 마땅히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진의 길에 올라야 할것이다.

우리 시가문학앞에는 당의 업적과 은덕을 폭넓고 깊이있는 서정으로 열렬히 구가해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당의 업적과 은덕을 어떻게 서정화하는가에 우리 시가문학의 당적사명을 수행하는 기본열쇠가 있다.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혁명적서정은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에 대한 송찬의 열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탁월하게 령도하여 혁명의 력사우에 영원불멸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당의 존엄과 위력을 온 누리에 떨쳤다.

우리의 노래는 마땅히 당의 업적에 대한 력사적체험을 안고 울려나와야 할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위대성을 신념에 넘쳐 보호하는 충성의 송가로 되여야 할것이다.

...

누리에 추켜든
그대의 기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그 기발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하나로 심장 고동치며
하나로 움직이는 조선로동당
그대 패기에 넘치고
열정에 끓는 속도전에
바다는 자리 옮기고
방금 우등불이 타오르던 천막가에
아름다운 노래인양
락원의 거리들이 솟아올라라

이 땅우의 모든것
그대 있어 태어나고
그대 더불어
양양한 미래를 지녔어라

수천년 세월로도
그대 이룩한 창조와 변혁
그 위대한 업적의 높이를
다 가늠할수 없나니
찬란히 밝아온 우리의 새 세기여
너는 지구가 흘러보낸
억만년의 세월을 뛰어넘으리

이것은 수년전에 발표된 시인 리맥의 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의 한구절이다.

시에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폭넓은 체험이 깊이있는 철학적분석에 기초하여 힘있는 서정을 펼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이 그가 앞당겨오는 미래에 대한 시인의 신념을 통하여 자랑차게 구

가되고있다. 시는 읊을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솟구치게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당의 업적에 대한 송찬의 열정을 이처럼 폭이 있고 깊이있게 개방하면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노래들이 매우 적다.

우리 당의 은덕을 노래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은덕에 대한 노래만으로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노래할수 없다.

우리는 마땅히 당의 업적을 노래하는 시가문학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당에 대한 노래들은 대체로 우리 당의 은덕을 노래하면서 당을 흠모하는 정서적인 양상으로 창작되고있으며 폭있고 기백있는 양상으로 창작되는 경우에도 당의 업적을 정면으로 주정화하면서 송찬의 격정을 터치는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시기 우리 시가문학에서 서정의 폭은 많은 경우 위엄계승의 시대적요구를 력사의 시공간에서 폭넓게 체험한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가운데는 정론적인 형상을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구호적으로 처리하여 형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당을 노래하는 우리의 시가문학은 이러한 경지에서 더욱 전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 세기를 주름잡아나가는 위대한 자욱,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의 업적을 정론적으로 개괄하는것으로 그치거나 령도사적을 라렬하는데 그치는 경향을 극복하고 시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 개괄하여 전달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시인의 철학적사색에 있으며 그 사색을 독창적인 시적발견에로 깊이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철학적무게를 가진 사상적알맹이가 없이 개괄과 라렬에 그친 시는 서정의 메아리를 웅심깊이 울려주지 못한다.

시인은 마땅히 당이 이룩한 업적이 우리 인민의 운명을 위하여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여야 하며 자기가 발견한 독창적이며 심오한 사상적알맹이에 기초하여 심장의 노래를 정열에 넘쳐 불러야 한다.

시 《영원히 우리 당과 함께》가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은 흥분시키고있는 힘도 여기에 있다. 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의 체현자라는 철학적인 알맹이를 틀어쥐고 그것에 기초하여 서정을 펼쳐나갔다.

그리하여 이 시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을 우리 인민의 휘황한 미래를 현실적인것으로 앞당겨나

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노래하면서 혁명적서정으로 충만되게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업적을 폭넓게 주정화하며 기백있고 철학적깊이가 있게 열렬히 노래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을 정열적으로 터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겨 줄것이다.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혁명적서정은 또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격의 정서이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베푼 크나큰 은덕은 우리인민의 심장마다에 감격과 흠모의 세찬 파도를 일으키고있으며 마를줄 모르는 서정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로부터 경제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아니라 먼 앞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과 전도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한없이 은혜롭고 자애로운 당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끝없이 칭송하고있다.

당의 은덕을 칭송하는 시가문학의 대부분이 어머니당에 대하여 시세계를 펼쳐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난 시기 우리 시문학은 당을 어머니에 비기여 칭송하는 전인민적감정에 기초하여 어머니당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을 노래하는 감명깊은 시세계를 창조하는데 많은 힘을 돌려왔다. 이것은 우리 시문학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창조하는 어머니당의 서정적형상은 류형적인 테두리에서 맴돌게 되였으며 상식의 경지를 대담하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시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문기창)만보아도 그것이 수년전에 창작된 김철의 시 《어머니》의 세계와 어슷비슷한 류형성을 짙게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비단 한두편의 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없다.

자애로움을 느끼게 하는 범박한 사형상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있다. 그것조차 엄마품을 찾는 젖먹이어린이의 형상을 노래하거나 강가에서 뛰노는 아이를 걱정하는 다심한 어머니의 생활세부를 되풀이하는데서 더욱 두드러지고있다.

물론 이러한 세부를 새롭게 발견하여 당의 은정을 노래한 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일단 창조된 시형상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나가면서 어느덧 그것은 상식으로, 나아가서는 하나의 도식으로 변하게 되였으며 처음에 빛나던 시세계조차 무색해지게 되였다. 이러한

류형적인 작품들에서 독자들은 이제 더는 새로운 느낌도 깊은 충격도 받지 못하고있다.

어머니당의 품, 그것은 얼마나 풍만한 시세계를 펼치고있는가.

시인은 마땅히 우리 당의 자애로운 어머니모습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를 파고들어 더욱 참신하게 다각적으로 노래해야 할것이다.

자식이 하는 일이 잘 안될 때 그와 함께 괴로와하고 같이 애쓰며 그가 힘겨워할 때에는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어머니, 자신이 잘못되여도 자식만은 잘되기를 바라며 그의 앞날까지 걱정하는 어머니, 부실한 자식일수록 더욱 마음을 쓰면서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 대하여 더 안타까와하며 고심하는 어머니,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엄하게 타이르고 지어는 때까지 드는 어머니, ...

실로 생활에서 그러하듯이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당의 품모는 그 얼마나 자애롭고 위대한것인가.

이 넓고 깊은 품을 한본새로 단조로운 형상으로 노래한다는것은 또 얼마나 생활의 진실을 외면하는 그릇된 태도인가.

우리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노래를 범박한 자애로움을 되풀이하는 류형적인 경지, 상식의 경지에서 벗어나 그것을 새롭게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서의 더욱 참신하고 깊이있는 탐구에 모를 박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할 때라야 당의 은덕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이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으로 독자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참된 의리를 지닌 전사로 교양하는 힘을 가지게 될것이다.

당에 대한 노래를 참다운 시로 되게 하려면 정서적체험의 깊이를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하여야 당의 업적을 노래하는 데서 정론적으로만 나가는 직선적인 경향도 막을 수 있고 당의 은덕을 노래하면서 류형적인 경지에서 맴도는 상식적인 경향도 극복할수 있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은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풀어야 할 근본문제이다.

그러면 당에 대한 정서적체험의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생활이다. 생활만이 정서를, 시를 시인에게 줄수 있다는것은 당에 관한 주제의 시창작에서도 어길수 없는 법칙으로 된다.

시의 원천인 생활에 발을 튼튼히 붙이자!

나는 당에 대한 주제창작에서 이것을 강렬하게 호소하고싶다. 당의 위대성, 령도력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열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나날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모두에게 구체적인 생활로써 느껴지고 체험된다. 당을 노래하는 시인이 당이 령

도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여야만 철학적무게가 있고 참신한 정서로 충만된 시가문학을 창작할수 있다.

당에 관한 주제는 물론 우리 혁명적시가문학의 영원한 주제다. 이것은 결코 당에 관한 노래의 정서적형상을 일률적이고 추상적인것으로 되게 하여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에 관한 주제는 영원한 주제이면서 생활과 더불어 부단히 발전하여야 할 현실적인 주제, 철저히 비반복적인 독창적주제이다.

당을 노래하는 우리의 시가문학을 혁명의 기수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한 품모를 끊임없이 새롭게 노래해나가는 가장 첨예한 현실주제로 튼튼히 파악하고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자.

이러한 립장에 확고히 설 때 생활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가 명백해진다.

그것은 우리 당이 펼치며 나아가는 오늘의 생활, 혁명과 건설의 더욱 높은 양양을 위하여 전당과 전민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령도의 나날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지난날의 자료에만 묻혀있을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펼치며 나아가는 오늘의 위대한 생활에서 격동을 체험하고 붓을 들어야 한다.

최근 시기에만 하여도 우리 당은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인간애로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력사의 나날을 주름잡아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헤쳐가는 정신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위하여 혁명적 군중로선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하는 숭고한 믿음을 베풀었으며, 우리 조국을 온 세계에 빛내일 높은 뜻을 안고 당에 대한 교양, 조국과 민족에 대한 교양, 새것에 대한 교양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밝혀 우리 인민을 더욱 힘있게 일떠세웠다.

그러나 당을 노래하는 우리의 시가문학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격동을 민감하게, 열정적으로 받아안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시인들이 의연히 생활의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심장의 불길로써 시를 짓는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로 꾸미는 경향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창작, 이것은 책상우에서 상식을 굴러가며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당이 펼치며 나아가는 오늘의 활동, 그 위대한 생활의 매 걸음에 심장의 고동을 함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는 당의 빛발아래 위대한 전변의 나날을 살고있는 우리 시인들의 불타는 심장에 있다. 대중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한 품모를 더

욱 심오히 더욱더 새롭게 받아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문학이 추상적인 논리로 꾸미기만 하거나 지난날의 《칠현금》을 안고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질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생활만이 시인에게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도 심오하고 참신한 정서로 충만된 시적세부나 형상적비유도 모두 안겨줄수 있다. 생활만이 시인에게 까다로운 추상과 범박한 상식의 세계를 박차버리고 심장의 노래를 터치게 할것이다.

시인은 우리 당이 펼쳐며 나아가는 오늘의 위대한 생활에 시야를 돌릴뿐아니라 그것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우리는 당을 심장으로 노래하자고 말한다. 심장으로 노래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에 대한 정서적체험을 시인의 운명선상에서 깊이 파고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은 본질에서 인민의 사상감정의 대변자로서의 시인이 자기 운명선상에서 당에 대하여 느끼는 가장 심각한 체험이며 그것에 의하여 철학적깊이가 담보되는 심오한 체험이다.

당에 대한 사상감정을 운명선상에서 깊이 추구해야 하는것은 운명문제가 일정에 오를때, 인간의 체험이 가장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정서상태가 극도로 예리해지기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을 한 품에 안고 그것을 빛나게 열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의 기치 우리모두의 운명의 어머니이기때문이다.

당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시인의 운명선상에서 추구될 때라야 우리 당의 위대성을 본질적으로 파악할수 있고 철학적깊이를 가질수 있다.

시인은 마땅히 생활에 대한 정서적탐구를 심화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한 서정적주인공의 혁명적인생관을 감명깊게 노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인은 소설가들 못지않게 당을 따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란 우리 시대인들의 운명의 로정과 생활적계기들에 깊이있게 파고들며 진지하게 사색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다.

시인 오영재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에 관한 격동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시《위대한 믿음》을 썼다. 그러나 시인은 널리 알려진 사실에서 누구나가 받는 감동을 피상적으로 읊기는 손쉬운 방법으로 시를 쓰지 않았다. 그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받은 서정적주인공의 운명선에 침투하여 우리 당의 크나큰 은덕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파악하며 생활의 참된 진리를 독창적으로 탐구하는데 진지한 사색을 바쳤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담을 굳게 신

뢰하며 충성다해온 혁명전사의 지향과 자세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믿음에 관한 송가로서만이 아니라 당의 믿음에 대한 전사-서정적주인공의 영원한 충성에 관한 노래로 더욱 심화될수 있었다.

...

아 당이여
그대는 우리 운명의 어머니
내 만약 혁명의 길을 가다
힘한 진월에 빠지고
깊은 강물에 떠내려 간다 해도

나는 민노라
오직 그대만은
하늘땅 천리라도 달려와
못잇을 그 눈빛
나를 지켜보고
뜨거이 안아주리라는것을

우주의 영원함과
신간의 영원함을 세상이 다 믿듯
그대의 아들은 민노라
아침이 오면 태양이 솟고
겨울이 가면 봄이 움을 믿듯
당을 믿으며
그대의 정치
그 위대한 믿음을 안고
한생의 한끝까지당을 따르리

전사의 믿음에 찬 열정속에 당의 위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크기와 열도가 얼마나 강렬하게 노래되고있는가.

여기에는 또한 당에 대한 믿음이 강한 전사일수록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크게, 더욱 뜨겁게 받아안을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가 투철하게 노래되어있다. 그리하여 시는 전사에 대한 당의 믿음과 당을 따르는 전사의 믿음을 하나로 융합시켜 믿음과 믿음의 혼연일체속에 우리의 일심단결을 열렬히 구가하고있다.

이것은 서정적주인공의 운명선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들어 얻어낸 귀중한 하나의 시적발견이다.이 발견으로 하여 시는 정서의 철학적깊이를 가지게 된것이다.

운명적인폭과 깊이에서 생활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시인은 의의있는 시적발견에 도달할수 있을뿐아니라 정서적깊이를 가진 특징적인 시적표현도 얻어낼수 있으며 당의 위대성을 정서적으로 천명할수 있는 힘있는 형상수단도 틀어쥔수 있다.

시인 김철의 시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는 그것을 확증하고있다.

...

그대 믿음 하나면 더는 바랄것 없기에
 그대 품에 안겨서는
 구지람도 좋았고 아픈 때도 고마왔다.
 오직 그대만이 끝까지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어
 비 오나 눈이 오나
 그대 창문을 마주 향해 열리는
 내 마음의 하늘은 티없이 맑았다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 구절에서 《오직 그대만이 끝까지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어》라는 하나의 세부에 주목을 돌려주기 바란다.

얼마나 강렬한 인상과 충격을 주는 성공한 표현인가, 이 간단한 표현속에 한 인간의 운명, 아니 그의 온 생애가 비껴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나아가서 이러한 느낌속에 우리 당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이 그 얼마나 방불하고 절절하게 표현되어있는것인가. 당을 자기 운명의 어머니로 노래하는 시인의 느낌, 천만마디 말로써도 다할수 없는 그 운명적인 느낌이 《운명》이라는 말 한마디 씌이 없이 여기에 생활-정서적으로 함축되었다.

그러기에 나는 감히 이 한편의 시가 성공할수 있는 열쇠의 하나가 이 심오한 정서적표현을 틀어쥔데 있었다고 말하고싶다.

서정적화폭에 보석처럼 박아넣을수 있는 이러한 값진 세부, 빛나는 표현은 결코 수박 겉핥기로 생활을 대하여서는 얻어낼수 없다. 당의 은덕을 받아안음으로써만 생활의 참된 길을 열어나갈수 있었던 서정적주인공의 운명의 길, 그의 생활의 운명적인 계기에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정서적으로 특징화하기 위한 피타는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만이 이처럼 알찬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한것이다.

우리 당의 위대성에 관한 정서적체험의 철학적 깊이를 조건짓는 결정적요인은 시인의 높은 사회미학적리상이다.

사회미학적리상의 높이에 관한 문제, 이것은 모든 주체의 시창작에서 한결같이 요구되는것이지만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창작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현실적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대상을 노래할수록 시인의 리상은 더욱 높아야 하며 커야 한다. 시인의 리상이 높아야 당의 위대한 품모를 제대로 가려볼수 있으며 심장의 박동도 더욱 높힐수 있다. 산이 커야 그림자도 큰법이다. 보는바가 높지 못하면 느끼는바도 뜨겁지 못한것이 생활의 진리이며 창작의 법칙이다.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첫째가는 사명은 물

론 우리 당의 위대한 품모를 웅당한 폭과 깊이에서 노래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당을 받드는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밝히여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끄는데 있다.

그런데 시인의 사회미학적리상이 낮고서야 어찌 위대한 당을 옹바로 노래할수 있으면 서정적주인공의 충성의 세계를 시대적높이에서 펼칠수 있겠는가. 그러나 최근의 시가문학을 살펴보면 당의 위대성을 부각하자면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사상정신적높이를 낮출수록 좋다는 립장에 서서 쓴것같은 작품들을 간혹 볼수 있다.

첫걸음을 떼면서 어머니를 찾던 어릴적목소리로 한생토록 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정서적화폭을 노래에 담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깨끗하고 순진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상시켜주는데서 정서적효과가 크기때문이다.

그러나 당을 우러러받드는 시인의 심장의 목소리는 결코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어리디어린 목소리 그자체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다.

당을 우러러받드는 우리 인민-서정적주인공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에 서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높은 안목과 리상을 지닌 사람들이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사회미학적리상을 높이지 않고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려는것은 한갓 기계적인 사고방식이며 당을 노래하는 시가문학의 형상세계를 저조하게 만드는 그릇된 경향이다. 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정중성문제와 시인의 사회미학적리상의 높이에 관한 문제를 실천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를 따르는 어린애의 흠모심같이 순진하게 따르는것이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위대하고 고마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오늘의 사상감정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결코 첫걸음을 떼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아기의 《순수한》 세계에서가 아니라 혁명의 아들, 당의 아들로서의 높은 경지에 확고히 올라서서 당을 우러르며 심장을 헤쳐야 한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높이에 사회미학적리상을 세워야 시인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참답게 구가하며 온 세상에 자랑높이 웨칠수 있을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러 일심단결의 노래, 신념과 의리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자신의 삶을 빛내어나가자.

오늘의 시대, 전진하는 우리 혁명이 그것을 요구하며 기대하고있다.

잊을수 없는 불빛

심승묵

당일군의 기쁨과 보람은 충실한 사람을 찾아냈을 때이다.

나는 당사업을 하면서 군중속에 들어가 료해하는 과정에 숨어있는 보석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드는 기초가 얼마나 튼튼히 다져지고있는가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곤한다.

얼마전에 내가 담당하고있는 수산사업소에 지도사업을 나갔을 때만 하여도 한 인간의 깨끗한 량심과 성실성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30여년간 선장을 하면서 준엄한 전화의 날에 화선을 지켜싸우던 병사의 자세로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는 충실한 사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철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원해어업과 중소어업을 배합하며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 선장은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나는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깊은 파악을 할수 있었다.

한번은 기업소의 생산문화실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내를 돌아보다가 그물창고마당에서 누군가 큼직한 마대에 나이론실레를 넣는것을 본적이 있다.

면발치에서 기미를 지켜보고있는데 그는 서둘러 마대짝을 지고나왔다.

바로 그 사람이 고기잡이에 욕심이 많다는 선장이였다.

순간 나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아침에 잔교에 나갔을 때 그가 어로공들속에 끼여앉아 《이제 멀지 않아 정어리가 쓸어들어온다》느니, 《건강에는 정어리만큼 좋은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것을 들은바가 있다.

그말과 련결시켜보면 방금 내간 나이론실로 정어리잡이그물을 뜨려는것이 아닌가싶었다.

나의 생각을 확신시키거나 하듯 선장은 마대짝을 지고 전에없이 바쁜 걸음으로 후문을 나서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종업원결기모임에서 자기의 《방어구역》을 책임지고 들어오는 정어리를 한마리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잡겠다는 맹세를 다지던 그 선장이 틀림없었다.

그는 1211고지방위자로서 한치의 땅도 내주지 말라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영웅적으로 싸운 전시공로자였다.

전선신문에 《호랑이분대장》으로 널리 소개된 그에게 국기훈장1급만도 2개씩이나 있었다.

그러한 전시공로자가 오늘은 바다에서도 《호랑이선장》으로 날파람있게 일하는것을 보니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났다.

나는 그를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볼 결심을 하고 가정방문도 할겸 집으로 찾아갔다.

어느덧 하루해도 다 저물어 사위는 짙은 어둠속에 잠겼으나 선장의 집 창문에서만 밝은 불빛이 소리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마치 한 인간의 웅심깊은 속마음을 비쳐보이듯이...그 불빛앞에서 주인을 찾으니 선장이 방문을 열었다. 마침 그는 그물을 뜨고있었는데 손님을 알아보고하던 일감을 놓고 벌떡 일어났다.

나의 짐작은 어긋나지 않았다.

그가 가지고온 나이론실은 그물로 꾸며지고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까지 들어와 일손을 놓지 않고있는 선장의 마음을 엿보는 나의 심정은 마치 불도가니마냥 끓어올랐다.

선장은 《지도원동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다 찾아왔는가》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들이었다.

《아름다운 불빛에 끌려왔수다》 나는 스스로엿이 마음속의 생각을 이렇게 터놓고말았다.

선장은 담배갑을 내놓으면서 피우라고 권하였다. 선장이 권하는 담배를 붙여물며 약간 열린 사이문틈으로 아래간을 내려다보니 거기서도 온 식솔이 달라붙어 그물을 뜨고있었다.

역시 창문으로 흘러나오던 그 하나의 불빛아래서 말없이 당을 받드는 마음들이 꽃피고있는게 아닌가!

나는 그 어떤 고마운 생각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물은 떠서 밧에 씹니까?》

《...》

선장은 대답대신 의아한 눈길로 나를 뵈히 쳐다보고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선장은 담배불을 붙여물고 한모금 깊숙이 빨아삼킨 다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를 되게 비판해주시우. 선장이라는게 제구실을 푹푹히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는 속이지 않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

었다.

하긴 불보듯 명백한 사실앞에서 에누리를 할수도 없을것이다.

선장은 한동안 침울한 표정을 짓고있다가 다시 말끝을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덩장그물로 바다를 덮고 정어리를 많이 잡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나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구있다. 낚은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이 <그물이 모자라오>, <로력이 없소.> 하면서 조건타발을 한단말입니다. 이게 어디 태도가 댔습니까. 내자신이 대를 세우지 못했지요. 하자구 마음만 먹으면 안될게 뭇니까. 창고엔 나이론실을 그득 쌓아놓구두 덩장그물이 모자란다고 타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그물을 떠보고 호소해보자는겁니다.》

참으로 속깊은 말이였다.

선장의 말은 옳았다.

지금 조건타발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정어리잡이를 하고있는 현상이 있는것은 사실이였다.

불빛을 좋아하는 정어리의 습성을 리용하여 불배로 고기떼를 낚구고 포위진을 치는 조리개어나나 자망어로만으로는 정어리를 많이 잡을수 없다.

덩장그물은 갖추는게 힘들지 농기만 하면 한기망에 수백톤씩 잡을수도 있다.

그러니 1선의 조리개와 2선의 자망에서 놓친 정어리를 3선의 덩장에서 모조리 잡으면 얼마나 많은 정어리가 잡힐것인가.

조국의 바다를 덩장으로 덮는것은 참으로 대담하고 통이 큰 새로운 어로전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선장이기에 그는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남먼저 기발을 들고 나선것이다.

나는 그의 발기와 실천적모범을 적극 지지해주고 싶어 늦게나마 고무적인 말을 하였다.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때에 포착하고 도와주지 못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천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제 과오가 더 큼니다.》

선장은 오히려 제편에서 자기비판을 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결심을 다지였다.

《어제날의 병사시절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영원한 전사의 자세를 지켜나가렵니다. 요새 들어오는 어업통보를 보면 조선에 정어리 대어군이 들어온다고 떠들어댑니다. 남들은 우리나라가 더 잘살게 될것이라고 부러워들 합니다. 문젠 우리 손에 달렸지요. 저앞의 바다기슭을 온통 덩장그물로 뒤덮고 정어리풍년을 마련하겠 습니다.》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일손을 잡고 같이 도와주면서 밤가는줄을 몰랐다.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인가.

당일군에게 있어서 이처럼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속 불빛아래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튿날부터 선장의 실천적모범이 일반화되어 온 사업소가 정어리덩장을 꾸리는 전투로 들끓었다.

나는 오늘도 한 평범한 선장의 집 창가에서 흘러나오던 그 불빛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쉬임없이 뛰어다닌다.

독자편지

읽을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시편을 놓고

《조선문학》 1월호에 실린 《한 당일군의 일기장에서》는 제가 당일군이어서인지 읽을수록 생각이 더더욱 깊어지는 시편들이라고 봅니다.

짧은 시들이라고 할지라도 무릇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과 자각을 안겨준다면 그런 시들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것입니다.

당일군의 책임감과 의무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자각케 하는 심리는 모든 당일군들에게서 일상적인것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이처럼 소박하고 꾸밈새없는 몇편의 시로써 더더욱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당일군들을 형상한 다른 시들보다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직업적인 타성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나 이 시들을 읽어본 당일군들의 경우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세부에서 당일군의 안목으로 모 든것을 살펴본다는것은 당일군이 아니고서는 사실 누구나 쉬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틀림없이 필자가 당사업을 하는 당일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당일군의 참된 자세와 높은 의무에 대한 이런 좋은 시편들이 나오니 당일군들도 《조선문학》의 열성독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함흥종합주택건설사업소 당위원장

리연일

김일성광장 외 1편

김기호

조용히 걸어도
우람한 발구름소리 들려오고
경건히 서있어도
환호성의 장엄한 메아리
이 가슴 흔들어라

발돋움하며
키돋움하며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티없는 마음들이 뭉쳐지는곳
김일성광장

어디에 숨배여있느냐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날
초연배인 군복자락으로
만세높이 행진하며
내 떨구던 감격의 눈물자국은

어디에 찍혀져있느냐
마치와 낫과 붓을
멸적의 총검인양 높이 들고
백두의 행진곡에 발맞추던
못잊을 그 자욱자욱은

기쁨의 명절마다
환희의 꽃바다를 펼치고
별들이 웃는 그 밤에도
신념의 화불을 추켜들며
수령과 인민이 일심단결의 노래높이

뜨거운 진정의 눈물을 터치는곳

승엄한 사열을 받으며
모이면 천만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면 퇴성과 번개가 되어
지구를 흔들고
세기를 떨치는
위대한 힘의 시위장이여

여기를 걸어난 전사
날바다를 헤친다 해도
위훈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여기를 행진한 대오
천만산악을 넘는다 해도
승리의 보고없이 돌아올줄 몰랐나니

세월의 그 자욱자욱이
천년반석으로 다져졌는가
광장은 끝없이 넓어도
한점 티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누구든 들어설 자리가 없는
충성의 축전장

무궁한 세기와 세기가
도도한 대동강의 흐름처럼
승리의 한길로 이어져 끝없으리
순간을 서있어도
이 마음 하늘처럼 넓어지는
아, **김일성**광장이여!

무명고지

너무도 평범하여
무명고지라 불렀던가
묘한 절경도
깃든 전설도 없어
무명고지라 불렀던가

수수천년 세월은 흘러도
숲속에 묻혀
이끼에 덮여
그 이름 달리할수 없었고
그 자태 다시 다듬을길 없던

너 무명고지

허나,
준엄한 전화의 나날
너를 지켜
조국을 지켜
이 나라 영웅전사들
더운피 말없이 바쳐싸웠나니

너의 어느 봉우리
너의 어느 골짜기

위훈의 전설로
승리의 노래로
깃들지 아니한곳 있으라

한치땅에도
청춘을 바쳐싸운
무명전사들의 넋이 어려있고
한떨기 산꽃에도
그 숨결 진한 향기로 풍겨

명산들도 견줄수 없는 위훈의 절정
하기에,

무명고지여
너의 이름 인제는
영웅고지라 고쳐볼려도 좋으련만
어제처럼 오늘도
너는 무명고지

만천하에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도
그 자랑 그 대가를 모르는
무명전사들의 숭고한 마음
변함없이 남아있어
오늘처럼 래일도
너는 무명고지

어머니당앞에 외 1 편

림공식

그가 젊었든
늙어가든
어머니앞에서는
언제나 어릴적 마음

그가 금별의 영웅이든
이름난 과학자든
어머니앞에서는
언제나 아이때 마음

그러하더라
당이어
그대앞에선
너 나 우리모두는
따르는 아들

해놓은 일보다
더 크게
위훈의 별을 가슴에 달아줄제
그뒤에 어떤 큰사랑이 있는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기뻐만 하던 때는 없었던가

머나먼 고향산천
내 젊은이로 자라서
어머니결을 떠나
새살림의 첫걸음을 땔 때에도

당이어
그대는

새 가정의 앞날을 두고
태여날 아이들을 두고
시름에 잠기는 어머니

자식들이 큰일을 할수록
순간이나마 길을 헛디딜세라
생활의 갈피를 헤아려주며
때로는 엄한 목소리로
살뜰히 일깨워주는 어머니

그대의 다심한 시선
그대의 은정깊은 손길 아래서
당이어
언제나 우리모두는
어릴적 그 마음

아, 위대하고 거룩한
이 어머니앞에
우리 어찌
자랑끝에 거짓이 섞이고
혼자만 아는 잘못이라고
숨길수 있으랴

살리라
티없이 맑고 순결한
어릴적마음으로
변함없이 참답게 살리라
어머니당앞에

추억

추억이여 너는
고향의 내가에 띄워놓은 종이배에
황홀한 어린 꿈을 싣던
다감한 유년시절의 버들방천인가

파도세찬 날바다를 길들이던
청년돌격대시절에
소리높이 외우던
위훈에 대한 시구절인가

아니면
하루일 끝마친 저녁
정다운 처녀와 희망을 속삭이며
끝없이 거닐던 첫 사랑의 강변길인가

추억-너는 언제나 아름다운것
너는 언제나 즐거운것
너는 언제나 소중한것

지나간 날과 달은 돌아올수 없어도
추억이여 너만은
꿈결에도 찾아오는것이거니

때로 내 조용히

생각하면
나의 추억속에
가슴 아픈 후회와 수치
불명예는 또한 없었던가

추억이여, 너는
내 삶의 자욱자욱을
수식도 보탬도 없이
삶의 순간순간을 이어주며
이 마음에 다 새겨주거니

꽃처럼 향기그윽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내 삶의 걸음으로
추억을 아름답게 새기며 가리
랑심과 의리
보람과 위훈으로

당앞에
조국앞에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참스럽게
언제나 내 삶을 빛내리

옛집터앞에서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
마루에 곤드라지며 세상을 저주할 때
홀쭉해진 돈봉투에 한숨 채우며
어머니 슬피 하시던 말씀
-애야 넌 이담에 커서
제발 전공노릇 그만두어라

허나 어머니의 그 마음 저버리고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처럼 철탑에 기여올랐다
커서 풀러덕거리는 지하족속에
어린 날의 설음을 감추며...

허나 그것은 어느날이었던가

위대한신 **김일성** 장군님
광술불에 그슬렸던 인민의 마음
한껏 밝아지고 억세여지라
나라의 국장에 발전소를 새겨주신 날

고향집 이 문턱에
아침저녁 따라나서며 .
어머니는 말씀하시더라
-너 손에 땀찌를 단단히 잡고
이 불빛을 영원히 지켜가거라

아, 뜰전앞에 굴종하던 그 세월에
어머니를 그토록 노엽힌 이 아들을
해방된 조국이 용서해주었네

박함집

청산리의 들길을 걸으며

리수덕

복숭아꽃 만발한 석두재를 스쳐오는 청신한 새벽바람이 진한 향기를 실어오는 청산벌의 이른 아침이다.

나는 다감한 생각에 젖어 향도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들길을 걷는다.

해마다 뜻깊은 이날이 오면 의례히 찾아보는 고장이건만 올적마다 감회가 새롭고 걸어도 걸어도 걷고만싶은 영광의 땅, 청산리의 들길이다.

밝아오는 새날을 반기듯 봄하늘에 높이 떠서 은방울을 흔드는 종달새도, 논배미마다 젖줄기로 흘러들며 지출대는 관개수도 지금으로부터 15여 년전 온 농장벌이 감격과 환희로 들끓던 못잊을 그날의 기쁨을 속삭이는듯싶다.

뜻깊은 그날을 되새기며 들길을 걷느라니 나의 눈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 땅을 찾아주셨던 그날의 숭고한 모습이 하나의 생동한 화폭으로 뜨겁게 안겨왔다.

…실안개 고요히 흐르는 청산벌의 이른새벽.

하늘의 못별조차 일매지게 물썩레친 논판에 비껴조으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공산주의농촌건설구상을 꽃피워 가실 높이신 뜻 안으시고 풀잎에 찬이슬 함초름히 배인 들길을 몸소 걸으시었다.

새벽녘의 어스름속에서 뒤늦게야 그이를 알아 뵈고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농장의 이름없는 한 물관리공아바이의 더솔진 흙문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청산벌의 모내기준비정형도 농사형편도 일일이 물어보시며 온 나라의 드넓은 농장벌을 주름잡아 걸으시듯 청산리의 두렁길을 걸어가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풀잎에 맺힌 새벽이슬에 옷자락이 젖어들고 봄같이할 때 트랙포르가 두렁길을 넘나들며 짓뭇개놓은 진흙이 신발에 묻는것을 바라보던 물관리공아바이는 청산벌농민들의 진정을 담아,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그이를 우러러 간절히 말씀올리었다.

《길이 험합니다.》

그러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봄빛 푸른 청산벌의 들길을 점도록 바라보시다가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
.”

그 말씀을 받아안은 물관리공아바이의 눈굽은 뜨거워오는데 청산벌이 5월의 훈풍 안고 설레었

다, 봉상강이 논벌을 감돌며 여울져 물결쳤다.

높으신 그 뜻 온 누리에 전하려는듯 종다리도 창공에 솟구쳐오르며 청고운 소리로 우짚었다.…

진정 새기면 새길수록 그 얼마나 심원한 뜻을 가슴마다 새겨주는 절절한 말씀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 청산협동농장을 첫 공산주의농촌으로 빛내이실 확고한 신념을 안으셨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봄, 여름 가리심없이 늘 청산리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다함없는 은정과 믿음을 베풀어주시고 농장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1년 5월 이 한 달동안에만도 무려 수차례나 이곳 청산리를 찾으시여 농장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모내기 한창이던 력사의 그날엔 나도 모내기 전투장에 나왔으니 함께 모를 내자고 하시며 몸소 풍년모까지 심어주시고, 그 언제인가는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풍년이 든다고 하시며 청산리가 모든 면에서 앞장서라고 믿음어린 고무의 말씀을 주기도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녕 청산땅은 한그루의 나무, 한동의 문화주택, 좁은 들길… 그 어디 그 어느곳을 살피도 온혜로운 향도의 빛발이 비끼지 않은곳이란 없다.

바로 이 은정, 이 믿음속에서 영광의 땅 청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변혁해가며 첫 공산주의농촌으로서의 자기 면모를 나날이 갖추어가고있다.

한때 《청산리사람들의 일숨씨》로 온 나라에 년년이 만풍년을 불러온 청산벌의 농장원들이 오늘은 《청산리사람들의 기백》으로 강산을 떨치며 풍년로적가리 구름우에 높이 쌓아올릴 그날을 향해 앞장서 달리고있다.

끝없는 상념속에 청산리의 들길을 걷던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사적을 아로새긴 사적비앞에 이르렀다.

때마침 동녘하늘에 타는 아침노을빛이 비껴 사적비는 하나의 거대한 기폭처럼 붉게 빛나고있었다.

사적비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을 눈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읽으면서 나는 속으로 굳게 마음다지였다.

이른아침 출근길을 걸을 때나 하루의 보람을

안고 퇴근길에 오를 때 내 언제 어디서나 청산리의 들길을 걷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채속하며 순간순간을 높은 자각속에 살아가리라 하고.

그렇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늘 걸으시는 길을 매일 걸었

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고결하신 그 뜻은 항용 내 가슴속에 충성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신념의 만년샘줄기가 되리라.

못가에서 만난 녀전사

-삼지연대기념비 녀투사 조각군상앞에서-

로재룡

내 처음 만나뵈옵건만

어찌면 그대의 모습

내 어릴적 몹시도 따르던

다심한 누나와 같구나

산뜻한 보위색군복차림의 끝은 몸매

설한풍에 그들은 가름한 얼굴

정히 눌러쓴 군모채양밑으로

유난히도 빛나는 맑은 눈동자

볼수록 낮익은 의젓한 녀전사

내 외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못견디게 그리워 꿈결에도 그리던 누나

이렇듯 진달래꽃 붉게 핀 못가에서

나를 맞아주는것 아니냐

언제나 옷을 때면 불우물 껌던 내 누나처럼

물동이 이고 박우물로 오고가던

마을의 오솔길밖에 몰랐으리

허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땅에 다달은 녀전사

아버지, 어머니를 불속에 태워죽인

원썬을 그냥 두고는 참을수 없다며

백두산 장수별 이야기 자주 들려주며

나를 잠재워주던 그 누나

소쩍새 우는 밤 어디론가 떠나간

정녕 나의 그 누이 아닌가

녀전사여

비록 그가 아닌들

짓밟힌 겨레들 한가슴에 안고

혈전의 고개 넘고넘어온

그대 정녕 나의 누이만 같구나

그대에게도 복수의 길 떠나며

고향에 두고온 부모동생 있었기에

나의 얼굴 그리도 오래 지켜보며

혈육의 정깊은 뜨거운 이슬

아직도 눈가에 어려있는것 아니냐

내 머리에 흰서리 내리도록

한뼉 부르며 그림고 그리울 때마다

눈감으면 선히 떠오르던 누나의 모습과

다름없이 안겨오는 녀전사여

조선의 슬기로운 딸이여

그대 광복의 성전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그 행복 노을처럼 짙은 미소로

나를 맞아주는 녀전사여

내 온 녀으로

그대의 그 손 마주잡나니

아직도 멀리로 이어가야 할

혁명의 수만리길에

나를 가장 친근한 동지로 이끌어주기에

그때문에 정녕 언제 한번 만난적 없어도

내 누이처럼 정깊은것이구나

해 방

손철남

1

털갈이가 끝난 가라말이 솟섬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조용한 읍거리에 들어섰다. 화강석을 다듬어 촘촘히 박아세운 포석도우에 말편자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니 저게 염주사네 말이 아니요?》

《정-말?》

읍거리사람들이 복마로 쓰기에는 아까운 기름기가 찰찰 도는 커다란 피말을 눈이 켜해 바라보았다. 더구나 배잠뱅이 더벅머리총각이 마차에 붙어오는것을 보자 의혹은 더 커졌다. 도대체 저 총각은 누군데 해방되자 남으로 달아난 양조공장주인놈이 그렇게 애용하던 말에 달구지를 메워 솟을 싣고오는가.

총각은 의혹에 찬 시선을 피하듯 짓수긋하고 걸었다. 뭐가 두려운지 눈한번 팔지 못하고 걷는 그의 행색은 무척 주접이 들어보였다. 그러나 피나무총을 댄 짚신이 받쳐주고있는 체구는 그존하고 싱싱했다. 덧기운 배잠뱅이가 그의 옷통을 가리우느라 혼술이 다 터져나갔다.

의문에 찬 시선들이 차츰 대담해졌다.

《어디로 가는 솟이요?》

《좀 팔지 않겠수, 총각?》

그때마다 총각은 《우리 양조공장 주인네집니다.》하고 공손한 대답을 했다.

《저 총각이 바보온달 아니요? 원 아직도 염주사를 찾아다니다니?》

《허허 참, 미친녀석이로군.》

대담해졌던 시선들은 어이가 없는듯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춘삼은 마차만 끌고갔다. 염주사가 애타게 솟을 기다리고있을것만 같아 마음이 조바심쳤다. 봄이 왔으니 이제는 허리를 좀 펴게 되었는지... 지난해 가을 뜻밖에 염주사가 솟막에 나타나 한숨을 짓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섰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이 하울썬년스러워 겨울을 힘겹게 넘겨야 할 것 같다고 한탄을 하는 그의 말에 춘삼은 가슴이 다 얼어드는듯했다.

그럼 해월이는 이 겨울을 어떻게 날가. 해마다 조금씩 울려다주던 량식마저 안가지고 빈마차로 밤중에 찾아온 염주사를 보며 춘삼은 자신보다 먼저 해월이가 걱정되었다. 남갈지 않은 그였다. 해월은 열한살에 부모를 잃고 염주사네 아이보개로 들어와 스물을 넘긴 처녀였다. 개밥에 도토리처럼 돌봐주는이가 없다보니 언제나 최최하여 키

만 켜충하게 자라 걸눴어보이는 처녀였다. 다만 억실억실한 눈만이 살아있어 젊음을 믿게 했다.

춘삼은 자기와 같은 그의 처지가 불쌍하여 언제나 마음을 쓰곤했다. 산열매를 따두었다가 솟가지러 오는 사람편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내려올 땐 싱아까지 꺾어 솟섬에 박아다 주곤했다.

해월은 그것이 고마와 가마치밥이라도 먹지 않고 춘삼에게 담아주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다른 정을 움트게 했다. 현대 그가 이 겨울을 어떻게 난단말인가.

춘삼의 걱정을 눈치라도 챌듯 염주사는 세월이 켜이면 해월이와 짝을 무어주마고 했다. 춘삼은 그것이 고맙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하여 염주사가 훑아떨어진 방에 장밤 군불을 때주었다.

해월이와 짝을 못는다! 이것은 한생을 천마골에서 솟가마와 함께 외롭게 보낼줄 알았던 춘삼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그래 그런지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소식없는 염주사네 일과 함께 해월이의 쌍까풀진 눈이 더욱 보고싶어졌다.

그는 산기슭에 진달래가 피어나자 염주사가 두고간 말에다 솟을 싣고 제발로 인간세상으로 이렇게 찾아나왔다.

마차는 처마가 맞붙은 읍거리를 지나 버드나무가 늪실거리는 장독고개에 올라섰다. 춘삼은 그제야 머리를 들었다. 양조공장의 벽돌굴뚝이 손에 잡힐듯이 바라보였다. 춘삼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솟을 굽다가도 답답한 마음 하소할 길이 없어 둘러막힌 적막강산을 향해 눈물뿌리며 저 굴뚝밑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들곤했던가.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가 통절하게 느껴질 때마다 산속을 나가고싶은 생각이 저 굴뚝같이 들곤했다.

춘삼은 열두살에 염주사네 처마밑으로 첫발을 들여놓았다. 그날은 마가을 찬비가 채찍처럼 내리붓던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삶의 기둥으로 의지했던 어머니를 눈물과 함께 묻고 험한 세상에 홀로 남은 그는 굶주린 배를 안고 발길닿는대로 구걸을 다녔다. 그 길은 멀시와 천대의 길이였고 굴욕의 길이였다. 이것은 그에게 때이론 철을 들게 했는지도 몰랐다.

(어지럽고 역겨운것을 보지 않고 살아갈수만 있다면!)

이것은 그의 소원의 전부였다. 찬비오는 그날 춘삼은 한끼의 저녁동냥을 위해 염주사네 집 대문안에 들어섰다. 들어서자 시뻘건 입을 딱 벌리

고 달려나오는 호랑이를 송아지만하게 그린 키높은 담벽이 그의 앞을 부정하게 막아나섰다. 두렵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어딘지 몰라 주춤거리는데 《웬 아이야?》하고 성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벼락같이 떨어졌다.

춘삼은 창황중에 고개도 못들고 《밥 좀 주세요요.》하고 허아래소리로 자신을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밥을 달라?》

목소리 주인은 버그작거리는 고무비옷을 벗어 물기를 활활 털어버리며 오돌오돌 떨고섰는 춘삼을 도끼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밥을 달란말이지?》

그는 또한번 비웃는듯 말을 곱씹으며 단단하게 생긴 춘삼의 어깨와 굵직한 팔목에 눈길을 쏘았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인듯 굵은 뼈마디와 성실해보이는 두눈이 염주사의 눈에 찔는지 아니면 막돌같은 그의 운명이 인간을 메주밭듯하려는 염주사의 구미를 동하게 했는지 그날부터 춘삼은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천마산으로 들어가 숯쟁이가 되었다.

애젊은 나이에 심심산골에 들어가 숯을 굽는다는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으나 먹고살수 있는 고정된 거처가 생겼다는 안도감으로 하여 춘삼은 군말을 안했다. 더구나 절인 오이처럼 얼굴에 실주름만이 가득한 늙은 숯쟁이가 반겨주며 차라리 더러운 세상의 이 꼴저 꼴 봄이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갈수 있는곳은 여기뿐이라는 측은한 말에 공감도 되었다. 했으나 적막강산을 둘러볼 때마다 분하고 억울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이 시뻘겋게 대어 콩마당같이 되는 뜨거운 열기속에서 재먼지를 뒤집어쓰며 숯을 추어내다가도 내물에 텀땡 튀어들 때를 생의 제일 큰 락으로 맞으며 나이를 먹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늙은이는 춘삼이가 스물이 되도록 저세상으로 가지 않고 함께 살아주며 모순에 찬 사회의 형편을 제나름으로 깨우쳐주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춘삼은 로인덕에 글도 조금 깨쳤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춘삼은 어쩐지 다음의 탕개를 잃고 로인의 운명에서 자신의 앞날을 보는것만 같아 새삼스럽게 불안을 느끼며 불우한 운명을 두고 통탄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염주사가 천마산에 사냥하러 말을 타고와서는 천생 겹뎡이 팔자를 타고난놈이라고 육설을 퍼부을 때면 배안에서 노랑물이 다 올려미는것 같아 참을수가 없었다. 그래도 한오리 생의 기쁨은 일년에 한두번 읍에 내려가는것과 해월이를 동정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떤 때에는 숯을 조금 팔아 뎡기라도 하나 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슴을 굽기도 했다.

빨간 굴뚝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춘삼의 마음은 자꾸만 똥똥 떠올랐다. 밧그레한 두뺨에 살눈섭

이 부채살같은 해월이를 이제 볼수 있다는 기쁨에 그는 장독고개를 어떻게 넘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염주사네 집 대문앞에서 끝나고말았다.

《주인님 제십니까?》

춘삼은 말고삐를 쥐고 활짝 열려진 대문안을 향해 주인을 불렀다. 해월이가 뛰어나올것만 같아 가슴이 울렁거렸으나 그는 조용히 서서 인적을 기다렸다. 응답이 없었다.

그는 안을 기웃해보았다. 입을 짹 벌린 호랑이가 그려진 앞을 뚝 막아서던 키높은 담장은 흔적만 남고 안뜨락이 행하니 들여다보였다. 춘삼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다.

대문기둥에 《공장위원회》라는 낯선 간판이 붙어있었다. 춘삼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으나 용기를 내어 다시한번 큰소리로 찾았다. 염주사가 없으면 해월이가 나오련만 기척이 없었다.

《누굴 찾으소?》

낯선 사람이 방문을 열고 물었다.

《저...주인님을 찾습니다. 숯을 가지고 왔는데요.》

춘삼은 허리굽혀 고개를 수그린채 조용히 대답했다.

《주인이라니 누구말이요?》

딱바라진 몸에 조끼를 입어 앞가슴이 툭 나와 보이는 사람이 조그마한 눈을 매섭게 굴리며 춘삼을 훑어보았다.

《염주사님말입니다. 어데 가셨습니까?》

춘삼은 조끼입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염주사라니? 그놈은 달아났소. 어데서 왔소?》

그 사람은 이상한 눈길을 감추지 않았다.

춘삼은 놀랐다. 염주사가 도망을 치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민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수 있을가. 세력이 기동같고 권세가 대들보같은 그가 무엇때문에 도망을 칠가. 춘삼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래도 무언가 놀라움이 심장을 뛸뛸게 했다.

《천마산 숯막에서 왔습니다.》

《천마산?》

조끼입은 사람의 긴장한 두눈이 금시에 휘둥그레졌다.

《예, 숯을 가지고 왔는데 주인님이 안계십니까!》

《그놈은 해방이 되자 공장을 파괴하고 남으로 도망갔소. 자 들어오시오.》

조끼입은 사람은 춘삼의 초췌한 행색을 한참이나 뜯어보다 《공장위원회》간판이 붙은 문안으로 그를 불렀다.

춘삼은 재촉을 받고서야 대문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예전에도 나들던 문이었으나 여전히 두

렵고 서먹한 감이 나 성큼 들어서게 되지 않았다.

《위원장동무, 누가 찾아왔시다.》

조끼입은 사람이 방안에 대고 소리쳤다.

드르르 미닫이문이 열리며 구레나룻의 건장한 사람의 모습이 문가에 나타났다.

춘삼은 구레나룻을 보는 순간 야릇한 감정이 전류처럼 몸에 흘렀다. 몇해전 순사한테 묶이여 가는 그를 본적이 있었다. 그 정상을 보며 춘삼이는 얼마나 동정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염주사는 그를 두고 주인도 몰라보는 불한당같은놈이라고 사등뼈가 부서지게 욕을 퍼부었다.

염주사가 상아물부리를 입에 물고 앉아있던 그 방 안에서 구레나룻이 나오는것을 보자 춘삼은 다시 한번 놀랐다.

심장이 또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주인이 없으니 이제 모든게 어떻게 될까? 공장은 누가 돌리고 숯막에 붙어 밥을 먹던 나는 어떻게 되고...

그에게는 변천된 환경에 부딪친 마음의 불안이 커졌다.

의문과 불안, 위구와 초조는 운명에만 순종해 온 춘삼의 가슴을 처음으로 소용돌이치게 했다. 그러면서도 염주사의 운명적인 탕개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진듯한 시원한 감을 들게도 했다.

2

토장국에 노란 조밥을 말아 고등어반찬으로 점심을 달게 한 춘삼이가 밥상에서 물러나자 구레나룻은 담배쌈지를 밀어놓았다.

《한대 마우.》

《전 담배먹을줄 모릅니다.》

춘삼은 별경계 달아오른 이마를 팔소매로 훔치며 고개를 숙인채 송구스럽게 대답했다. 구레나룻이 친절히 대해줄수록 춘삼은 도리어 마음이 불안했다.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하려나 하는 위구심과 습관되지 못한 너그러움에 가슴이 조였다. 게다가 해월이의 운명이 걱정을 더해주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염주사가 데리고 가거나 않았을까.)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었다.

《그래 해방이 된줄 몰랐단말이요?》

구레나룻은 뭐가 믿어지지 않아 그런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몇번 물은 말을 또 다시 꼭씹었다.

《예.》

춘삼은 해방된것도 모르고있는 자신이 죄송스러워 무릎을 꿇고 매를 기다리듯 머리를 숙였다. 하긴 일본놈한테 빼앗겼던 나라를 찾은것도 모르고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민한놈인가.

《머리를 들고 편히 앉소 편히 앉으라는데...》

공장위원장은 그가 자리를 고쳐앉을 때까지 욕과 매를 기다리느라 숙여진 그의 머리를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참, 원통한 일이요. 조선사람으로서 나라가 해방된걸 알려줄대신 산속에 묻어놓고 도망을 치다니, 더러운놈.》

드디어 그의 두눈에 섬광이 번뜩했다. 금시 벼락이 떨어질듯한 기상은 무서웠다. 시꺼먼 눈썹이 푸들푸들 떨렸고 구레나룻에 위엄이 서리었다.

《공장을 파괴하고 달아난 염주사놈을 못잡은게 분하오. 그렇지만 우린 이제 보란듯이 공장을 복구해서 돌리겠소.》

춘삼은 이해할수 없는 뜻과 격앙된 구레나룻의 감정에 위압되어 가슴이 떨렸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그는 무언가 두렵기조차 했다. 오로지 염주사가 달아난것이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만이 머리에 감돌아들었다. 헌데 왜 달아났을까?

무거운 가슴에 알수 없는 생각을 안은 춘삼은 그럴수록 해월이에 대한 걱정으로 숨이 막힐듯했다. 그는 자기를 잊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염주사네 집안일을 보던 해월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마디마디가 힘겹게 울리는 춘삼의 어조에는 불길한 제 예감이 들어맞을것만 같은 크나큰 위구와 그래도 별들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기대가 함께 어려있었다.

《염주사놈은 종처럼 부려먹던 해월이까지도 술집에 팔아먹은 더러운놈이요.》

《아니 해월이를요?...》

춘삼은 차마 뒤말을 잊지 못하고 구레나룻만 눈이 켜해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경련이 이는 듯했다.

《그렇소. 의지가없는 그 불쌍한걸 알뜰에 덧놓아 술집에 팔았던말이요.》

《예? -》

춘삼은 김빠진 공처럼 전신이 나른해졌다.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주인이 악독할줄은... 그 불쌍한걸 술집에 팔다니?)

춘삼은 가슴이 찢어지는듯했다. 억울하고도 통분했다. 아무리 무서운게 세상이라한들 이렇게야 산 사람의 가슴에 칼을 박는단말인가. 그는 너무도 억이 막혀 땅을 치고싶었다.

춘삼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자리를 차고일어섰다.

《왜 그러우?》 공장위원장은 비칠거리는 춘삼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저 숯을 부리워야지요.》

춘삼은 얼굴에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 마오. 숯은 벌써 다 부리였으니 폭 쉬오.》

춘삼은 할수없이 구레나룻의 의사에 복종했다. 초조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어디에 대고 의탁해 볼수도 없는 그는 무너지듯 그자리에 풀썩 주저 앉고말았다. 후-유 입박으로 단검이 활 나왔다.

《자 한잠 푹 자오. 이백리길을 걸어왔으니 오죽 피곤하겠소.》

공장위원장은 대우를 낸것처럼 반들반들한 목침을 내밀어주고 방에서 나갔다.

춘삼은 조용한 방안에 혼자 남자 더욱 불안이 물려드는듯했다. 지금껏 차례지는 운명에만 순종해온 그였으나 해월이의 불우한 신세가 심장의 피를 끓게 하여 도저히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해월이를 팔다니, 세상이 어찌면 이럴수 있는가. 염주사가 눈앞에 있으면 먹살이라도 부여잡고 죽든 살든 씨원히 해보기라도 하련만 그놈마저 없으니 속에서는 불덩이만 치솟아올랐다. 더구나 그놈한테 속히우고 짓밟힌게 분했다. 그래도 자기는 애젊은 가슴에 피가 끓어번질적에도 래일을 생각하고 솥을 구웠다. 그런데 차례진것은 가슴 아픈 이런 상처뿐이란말인가.

춘삼은 이 애끓는 가슴을 어떻게 달래보았으면 좋을지 철창에 갇힌 표범처럼 질정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어쩔수도 없는 자신이 또한 세상 무뎡하고 세상 미물처럼 생각되었다.

피자누룩한 방안에서 허탈상태에 빠지고보니 두눈에 눈물이 펴고였다. 왜 이리 자신의 존재가 슬프고 서러운지 그 끝을 알수 없게 비감한 생각만이 깊어졌다. 모든게 허무했다. 누구도 믿을수 없는게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검질기게 들었다. 자기 운명을 건져주지 못하고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눈물속에 떠오르기도 했다.

서글픈 마음에 식곤증조차 몰려들어 춘삼은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다. 꿈결인듯 아리송한가운데 해월의 모습이 안타까이 보였다. 그가 손저어 부르건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도 심연속으로 떨어져 화딱 놀라 눈을 뜨기도 했다.

그때마다 별경게 총혈된 두눈에는 종이를 발라 아늑한감을 주는 천정밑에 《새 민주조선 건설에 총동원되자 !》라고 써붙인 먹글자가 보이군했다. 《새...민...주...조...선》 떠들떠들 읽어보는 그의 눈에는 나서 처음보는 알수 없는 글자들이 꿈속에서처럼 새겨지군했다. 그게 무슨 소릴가 새 민주조선이?...

땀에 뜬 그가 정신을 차리고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밖에서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만이 들렸다.

《글쎄 마차를 쓰면 좋기는 하겠는데 먼길을 온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하겠소.》

《그러기 제가 물고갔다오자는게 아닙니까. 해월동무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물고기를 받아놓았다니 마차를 가지고가면 좋겠는데...깨어나면 말해봅시다.》

춘삼은 정신이 버쩍 들었다. 해월이가 어데 있기에 기다린단말인가. 당장 문을 박차고나가 묻고싶었지만 참고 귀를 강구었다. 밖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춘삼은 목침을 밀어놓으며 인적기를 냈다.

《깨어난 모양이군.》

조끼입은 사람이 기다렸던듯이 문을 벌컥 열었다.

《피곤을 좀 풀었소?》

공장위원장이 친절하게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예.》하고 어줍게 대답한 그는 습관처럼 팔소매로 얼굴의 땀을 훔치며 토방으로 나갔다.

《솥을 잘 쓰게 됐소. 그러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솥을 많이 써야겠는데.》

《땡강땡강 하는게 참 잘 구웠습디다.》

조끼입은 사람이 춘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함께 건국사업을 잘해봅시다. 그래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요?》

《예?-》

춘삼은 어리둥절하여 두눈만 섬벅거렸다. 언제 한번 제 문제를 가지고 결심해본적이 없는 그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 눈빛이 당황해지기까지 했다.

《여기서 일할 생각은 없소?》

《저같은게 뭐 ...》

춘삼은 어떻게 대답해알지 몰라 제 발부리만 내리다보았다. 난생처음 이런 질문을 받고보니 가슴만 두근거렸다.

《동무같이 천대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마음껏 기를 펴고살 때가 왔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소. 다 나라없는 탓이었소. 이제부터 여기서 건국사업에 한몸바쳐갑시다.》

춘삼은 공장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크나 한것이 자기에게 안거드는듯한 예감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것인지는 가늠할수 없어도 산에서 나와 사람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할수 있다는 황홀감에 마음을 종잡을수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던가! 산속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면하고싶은것이 정녕 그의 꿈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혹시 솥을 싣고와서는 공장으로 나드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군했었다.

어떤 때에는 그들이 자기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더구나 해월이와 정을 나누고싶을 때마다 못견디게 심장을 불태우던 공장이 아니었던가.

헌데 나더러 주인이라느건 무슨 소린가. 집도 없고 공장도 없는 내가 여기 주인이라니 그것은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갔다. 선뜻 바랄수도 없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어서 춘삼이는 자기가 말을 잘못 들은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지금껏 모든 생활이 자기를 외면하고 흘러간것처럼 이번에

도 잡을수 없는 무지개와도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못지않게 자기를 위해 마음 써주던 유일무일의 그 숯구이로인도 이 세상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바랄것이 못되는곳이라고 얼마나 서글프게 말했던가, 바로 졸전에도 해월이의 불행한 운명을 두고 눈물흘리며 체험했던 감정이 그것이었다. 춘삼은 다시 해월의 생각으로 가슴이 미여져올랐다.

《잘 믿어지지 않소? 이제 알게 될거요. 우리 민족은 지금 위대한 새봄을 맞이했소.》

공장위원장의 목소리는 웅엄하게 울렸다.

춘삼은 가슴이 몽클했다. 공장위원장의 말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다 알기에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으나 그것의 참뜻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그의 가슴속에는 막연한 기쁨이 봄 풀썩처럼 움터올랐다.

《저 춘삼동무, 가마포에 갸다울 일이 있어 그러는데 마차를 좀 빌려줄수 없소?》

상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는 춘삼을 보고 제먼저 청을 댔다.

(《춘삼동무?》)

춘삼은 새삼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보고 놀랐다.

《이놈, 저놈》하는데 습관된 타성에 《춘삼동무》하고 존대받는 제 이름이 생경스럽기조차 했다.

《저...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전》

춘삼은 공장위원장의 기색을 살피며 마차는 염주사네것이라는것을 알리려 했다.

《동무가 말을 먹이고 관리했으면 동무가 주인이지 물어볼게 있소. 동문 아직도 염주사가 주인인가 하오? 하하.》

상호는 맥락이 닿지 않는 춘삼을 향해 납득시키려들었다.

《춘삼동무, 이제는 마차두 공장두 다 우리가 주인이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었던말이요. 알겠소? 허허.》

공장위원장은 춘삼의 의식속에 해방과 함께 인민이 나라의 주인 된 엄연한 현실을 명백히 인식시켜주려는듯 그루를 박아 말했다.

춘삼이는 방금까지만 하어도 잘못 들은것으로 치부해온 그 말이 다시, 또다시 완전한것으로 의식속에 뛰어들어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그럼 나도 공장의 주인이 된단말인가.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천덕꾸러기던 내가...?)

공장의 주인이 된다는것을 꿈에서조차 상상할수 없었다. 그는 염주사가 도망쳤으니 이젠 모든 사람을 다 주인이라고 부르는게 아닌가 하는 소박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만족되어 빙그레 웃음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금이 뜬 봄풀썩이 아지를 치기 시작했다.

《지금 해월동무가 가마포에 물고기를 받아놓고 기다려서 그러는데 마차를 좀 씹시다.》

《저... 해월이라구 아까 말하던...》

《웁소. 그 동무요. 염주사놈이 술집에 판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구원해낸 처녀요. 아는 사이요?》

춘삼은 대답대신에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마차에 말을 메웠다. 그리고는 고삐를 쥐고 마차에 승금 올라탔다.

《피곤하지 않겠소?》

《일없습니다. 저두 가겠습니다.》

공장위원장은 그들의 남다른 관계를 짐작한듯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춘삼은 복받치는 걱정을 달랠수가 없었다. 해월이가 구원되었다는 기쁨과 이제 그를 만나게 된다는 감격이 해방의 고마움에 잇닿아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그는 고개를 버쩍 들었다. 바람결에 더벅머리가 불리며 그의 넓은 이마가 하얗게 드러났다.

3

해월이를 만나는 첫순간 춘삼은 반가움 못지않게 놀라움도 컸다. 까만 무명치마에 흰 광목적삼을 받쳐입은 처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잘 알아보지조차 못했다.

잘게 썬 조짚여물을 구유채로 말앞에 갇다놓고 번질번질 내배인 땀을 씻어주던 춘삼은 종주먹을 쥐고 달려온 처녀를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사람이 웃은 달리 입을수 있어도 모상이야 어데 가겠는가. 하지만 춘삼은 하얀 목이 홀 내뿜혀 시원한 감을 주는 처녀의 분땃같은 얼굴에서 웃고있는 눈밖에 알아볼수 없었다.

《왔군요!》

춘삼의 앞으로 목메여 다가서는 해월은 긴 살 눈섭을 부채살같이 활짝 편 어글어글한 두눈에 기쁨의 이슬을 담았다. 늙어보이게 하던 주름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앵두알처럼 통통하게 살이 올라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다. 경충하여 청승맞아보이던 체구는 탐스러운 머리태와 함께 민출한게 싱싱했다.

《해월이!》

춘삼은 너무도 큰 행복앞에서 머리가 멍했다.

《그사이 어떻게 살아왔어?》

춘삼은 하고싶은 말이 하 많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처럼 사람이 몰라보게 되었는지 알고싶은 생각이 앞선탓인지도 몰랐다.

《해방덕에 이렇게 살아요.》

해월은 생글생글 웃었다. 그는 웃음으로 자기의 모든 기쁨을 다 표현하려는듯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정기를 담은 눈, 쌀물처럼 뽕얇게 피어난 얼굴, 탄력있게 부푼 앞가슴, 넉장잔 누에처럼 통통하고 말긋말긋한 손가락... 복스럽고도 정갈하고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해월의 모습은 춘삼이

로 하여금 이름할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을 높히게 했다.

사람의 운명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수도 있단말인가! 모든걸 팔자탓으로만 생각해오던 춘삼은 해월의 싱싱한 모습에서 변천된 현실의 산모습을 보았다. 하면서도 그가 리해가 되지 않아 안타깝기도 했다. .

《거기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해방이 된줄도 모르고 산속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해월은 웃음을 거두고 춘삼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가슴아파했다. 더구나 해방의 소식을 안고 그를 찾아가지 못한 자신이 죄스럽기도 했다. 마음은 천마산에 가있었으나 우선 부끄러웠고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그 멀고 험한 산길에 선뜻 나서게 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래서 춘삼이가 나타나기를 목마르게 하루하루 기다리던 해월이었다.

《그럭저럭 지냈어. 소식이 너무 없어 오늘 숲을 실고 나왔어.》

《고생이 많았겠어요.》

《해월이가 더 고생했지 나야 뭘... 애긴 좀 들었어.》

《그래요? 전 처음엔 죽고말려고 했어요. 옥되게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게 편안할것 같더군요. 그러나 정작 죽으려니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도망쳤는데 공장아저씨들이 숨겨주어 숨어살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전 해방이 아니였더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해월은 시름많은 지나 일을 옛말처럼 했다.

춘삼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해방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꼈다. 참으로 해방이 아니더라면 어쩔번했는가. 해방이 그들에게 행복한 이 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눈곱이 뜨거워울랐다. 나같은 사람을 공장의 주인이라고 불러주고 해월이도 기구한 운명에서 구원해준 그것이 바로 해방이란말인가!

춘삼의 가슴속에 자라오르던 불꽃이 꽃이 피는지 그의 길쭉한 얼굴에도 웃음이 한껏 피어났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합숙에서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드려요. 하루하루 막 사는 재미가 있어요. 노동자들은 파피된 공장을 빨리 고쳐서 돌리겠다구 밥낫을 가리지 않고 일해요. 지금 알콜이 없어 약들을 못만든대요.》

춘삼은 삶의 긍지와 보람을 안고 희망에 넘쳐 말하는 해월이를 대하고보니 마음이 하얗없이 즐거워졌다.

해월이의 웃음과 기쁨이 그대로 자기 가슴에 옮겨오는듯싶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물고기를 퍼담았다. 선창에서 풍기는 비릿한 물고기내와 습습한 해감탕내도 가슴을 후덕게 해준다. 산새들의 지저귀와 골계수의 물소리만 정이 든 그에

게 처절씩 선창을 때리는 파도소리와 끼룩끼룩우는 갈매기소리가 어쩐지 귀설게 들리지 않았다.

방금 배에서 퍼낸 조기, 달재, 보가지들은 펄쩍 펄쩍 뿔듯이 신선했다.

춘삼은 자기 생전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처음보는 충격도 컸다. 더구나 이것을 가져다 노동자들에게 먹인다는게 놀랍기만 했다. 산에서 일을 배워준 숲구이로인은 일년에 한번씩 자기 조상들을 잊지 않기 위해 조밥 한그릇에 산나물을 넣고 소박한 제사를 지내곤했었다. 그때마다 로인은 처마밑에 걸어두었던 마른 조기 한마리를 목기에 내려놓고 삼배한후 비늘이 떨어질세라 다시 소중하게 걸어두었다간 이듬해에 또 쓰곤했다. 로인은 춘삼에게도 부모의 명복을 빌어 절을 시키곤했었는데 그때 춘삼은 물고기는 제사때에만 쓰는줄로 알았다.

일이 끝나자 그들은 씨원한 바다물에 손들을 씻었다.

춘삼은 해월이가 준 노란 비누로 솥검덩이에 찌들은 두박한 손을 씻어냈다. 검은 구름장이 퍼지듯 그의 손을 말끔히 씻어낸 흐린 물은 출렁이는 바다물결에 밀리어 이리저리 흩어지더니 푸른 바다물속에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처절씩, 처절씩, 파도는 피멍이 든 파거의 모든 설음마저 깨끗이 가져주려는듯 끊임없이 물보라를 흘날리며 배전을 두드린다.

춘삼은 자기의 깨끗해진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피춤에 쓱쓱 문질렀다. 마음도 씨원했다. 흰갈매기가 훨훨 날고 검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넓은 바다를 마주하고보니 산속에서 안고살던 그 답답함과 고독감이 씻은듯이 사라지고 그의 가슴은 앞이 탁 트이는듯했다. 행복감이 저 파도처럼 밀려와 안기는듯도 했다. 그는 선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도 이제부터는 사람들속에 나와 살수있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다 후두두 뛰었다. 아까는 아리송하게 들리던 말이 이제는 확고한 자신의 일처럼 믿음이 가는데는 그자신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 자신의 운명에 이런 행복이 차례질줄 그 언제 꿈이나 꾸어보았던가.

춘삼은 너무나도 현실이 꿈같아 슬며시 눈을 감고 가슴을 짚어보기도 했다. 진짜 생시인지 아니면 꿈인지... 생각할수록 꿈만 같아 그는 지그시 감았던 눈을 빠르게 떠보았다. 달리는 마차, 웃는 해월이, 비릿한 물고기...

참으로 모든게 꿈같은 현실이었다.

춘삼은 무거운 압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푸른 하늘위로 동동 내려쳐오르는것만 같았다. 그는 천지를 향해 해방의 감격을 목청껏 웨쳐대고싶었다.

춘삼은 팔소매로 이마를 짚 흠치고는 허공중에

채찍을 호기있게 휘둘러 노을이 피어나는 신작 도로 마차를 힘차게 내몰았다. 또다시 더벅머리가 봄바람에 불려 하얀 이마에 감빛노을이 불탔다.

4

달그락거리는 설겅이소리와 함께 부엌에서 해월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며 조용히 울렸다.

글장님된 애달품으로 한탄만 하지 말고...

노래소리는 작았으나 무엇인가 바라는 지향이 간절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토방에 걸터앉아 환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며 땀을 들이는 춘삼은 해월이의 노래에 취한듯 기척없이 앉아있었다. 그의 노래를 처음 듣는 야릇한 감정과 귀맛이 동하는 노래의 뜻은 춘삼의 마음속에 잔물결을 일게 했다. 더구나 오늘 체험하게 된 모든 감정이 마음의 평안을 잡을수 없게 했다. 물고기를 실고온 저녁에도 그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 노동자들의 무릅없는 친절과 뜨거움에 묻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다. 정을 모르고 살아온 춘삼은 그들의 후더운 마음에 눈곱을 적셨다. 어느 누가 그의 수고를 이처럼 높이 사준적이 있었던가!

그는 머리를 버쩍 들라던 공장위원장의 말이 생각나서 자기 머리를 쭉 들어보았다. 무거운것 같기도 하고 가벼운것 같기도 하여 썩 웃었다. 웃고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 해월이의 웃음띤 얼굴도 보인다. 언제 이런 웃음을 웃어보았던가.

그저 모든게 고맙기만 했다.

노동자들은 어디로들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 밤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싶기도 했다.

춘삼은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싶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해월이를 은근히 기다렸다.

이것도 모두다 내 나라 덕이라네...

해월이가 노래를 부르며 질버치를 들고나오다 개수물에 어롱어롱하게 떠도는 둥근달을 보자 하늘로 얼굴을 들었다.

《아이, 밝기도 하네!》

그는 개수물을 버리고는 한참 서서 달구경을 했다.

해월은 지금 저 달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

춘삼은 달을 향해 마주선 처녀의 민출한 자태를 보자 하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도 해월이와 함께 여기서 살고싶은 생각이 때아니게 불쑥 들며 밀물처럼 애절한련정이 가슴속에 콕 차올랐다. 해월은 달을 보고 자기는 해월을 보고 밤

이 영원토록 행복한 이 순간으로 멈춰지길 바라기도 했다.

질버치를 옆에 끼고 돌아서던 해월은 망두석처럼 토방에 앉아있는 춘삼을 보자 마음을 엿보인것같아 부끄러웠다. 그래도 그는 질버치를 놓고 춘삼의 곁으로 한발한발 조용히 다가섰다.

《피곤하실텐데 주무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곤하지두 앓구 잠도 오지 않누만.》

《또 산으로 가실래요?》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남들은 해방이 되었다구 다들 좋아 일하는데 나만 이렇게 놀고있으니.》

춘삼은 흥분이 앞서 자기로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해월이도 나오길 바라서 묻는것인데 그것은 춘삼이자신도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소원인가. 그 소원이 자기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한량없었다. ,

《공장에 남아서 일해요. 아까 공장위원장도 산속에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야 솟밖에 구울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일하게 있을까?》

《있지 않구요. 여기서 일하면서 야학에도 가지요.》

《해월인 글도 배워?》

《글장님이 되면 일도 잘할수 없대요. 그래 지난 겨울부터 야학을 다녀요. 나도 인젠 우리 글을 읽고쓸줄 알아요. 이제 내가 동무에게 가르쳐줄가요?》

해월은 자기가 글을 안다는게 무엇보다 기쁜지 자랑스럽게 말하고는 깔깔 웃었다.

《해월이, 나도 여기로 오겠어. 헌데 싫지 않겠어?》

춘삼은 자기도 모르게 열기를 띠고 부르짖었다.

해월이앞에 속을 털어놓고보니 가슴이 두부장 뾰듯했다. 꽃피는 새 생활에 뛰어들고싶은 충격이 불타오르는 사랑과 한데 엉켜 화산처럼 뿜어올랐다.

《의지하고 살문 좋지 싫을건 뭐예요.》

해월은 허리동에 늘어진 탐스런 머리태를 꼭 당겨쥐며 고개를 들었다. 숨가쁜 호흡이 부푼 앞가슴을 오르내리게 한다. 춘삼의 마지막 말에 서러움이 드는 모양이었다.

춘삼은 기뻐다. 오늘 체험한 모든 일이 격동적일수록 해월이와 함께 있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던 그는 서러움에 흐느끼며 고개를 드는 처녀를 보는 순간 앞가슴이 활 열리는것만 같았다. 선택로 훨훨 날것만 같은 이 행복을 무엇에 비기랴!

춘삼은 우뚝 일어서서 해월의 하얀 손목을 덤석 잡았다.

《고마워, 해월이.》

《고맙긴, 도리어 제가 그래요.》

해월은 자기 손을 살며시 뽑아내며 확확 달아오르는 얼굴을 겨우 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달빛에 반사된 흑진주같은 눈알이 아름답게 빛났다.

춘삼은 전신이 후두두 떨렸다. 그 잘난 머루, 다래를 고맙게 받으며 자기를 잊지 못해 이슬을 보이던 가냘픈 처녀는 어디로 가고 믿음과 사랑, 희망과 열정을 안겨주는 해월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터질듯했다.

《저... 공장위원회에서 염주사가 가지고있던 집 한채를 손질해주겠대요.》

《그래? 정말 고맙구만.》

어둠속에 있던 사람이 해월에 나서면 눈을 뜰 수 없듯이 춘삼은 너무도 큰 행복앞에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다만 어느분이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지 뵈울수만 있다면 그분을 우러러 큰절을 드리고싶었다.

《해월이, 이 은혜를 어떻게면 다 갚을수 있을까?》

춘삼은 자기 심증을 터놓았다.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구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구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자고 하셨대요. 그대 노동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지금두 모두 공장에 나갔어요.

우리도 몸 아끼지 말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힘껏 일하자요.》

《**김일성** 장군님이라니? 아니, 그분은 어떤분이신데?》

《장군님은 일본놈들과 염주사같이 나쁜놈들을 내쫓구 우리같이 못살던 사람들을 잘살게 해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예요.》

《그래 ! !》

춘삼은 마치 봄우뢰소리를 듣는듯했다.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봄우뢰처럼 지지리도 어둠던 이 세상에 해빛을 주고 일어갈라졌던 이 가슴에도 행복의 꽃을 피워준 그분, 아, 그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셨단말인가!)

《**김일성** 장군님, **김일성**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눈전에는 뜨거운것이 피어올랐다. 감격과 흥분으로 끓어오른 그의 가슴은 끝없는 환희로 들먹이였다.

춘삼은 장군님을 위해 모든 힘을 다바쳐 일하고싶었다. 받아안은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이 그의 온몸의 피를 끓게 하였다.

춘삼은 불빛이 환한 공장을 뚫없이 바라보았다. 건국의 세찬 숨결을 알리듯 불꽃이 병긋병긋했다.

쟁 쟁 쩌-정 무쇠망크를 두드리는 웅글은 소리가 춘삼을 부르는듯했다.

춘삼은 온몸에 힘이 솟구쳐올랐다. 이제라도 뛰어가 무슨 일이든 땀이 나게 해제끼고도싶었다.

주먹을 불끈 쥔 두손에는 나무라도 뿌리채 뽑아낼듯싶은 무쇠힘이 내뿜쳤다. 그는 자기에게 이런 힘이 있는줄을 몰랐다.

춘삼은 공장불빛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는 속아 살아온 지난날이 끝없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피눈물을 짜바치면서도 우롱당하고 그러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오던 염주사가 증오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놈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춘삼은 후두독소리나게 술뚜껑같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고보니 그제야 염주사가 왜 달아났는지 가슴이 잦다.

《바가각 바가각》 어디선가 이 밤에 입떨어진 개구리가 자기 존재를 자랑스레 알렸다.

밤안개도 춘삼의 발목에 부드럽게 감기며 대지 위로 퍼진다.

꿈속을 걷듯 명상에 잠겨 달빛을 밟아나가던 춘삼은 앞에서 두런두런 들려오는 귀익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공장위원장과 상호가 이야기를 나누며 오고있었다.

《운송에서도 자동차에 쓸 목탄을 내라고 구르마까지 끌고왔댔구 대장간에서도 이만저만 성화를 먹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솥을 쓸 일이 한두곳이요?》

솥이야기가 오고가는바람에 귀를 강구었던 춘삼은 이럴줄 알았으면 솥 한섬이라도 더 실어올 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춘삼동무는 절대로 안되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을 어떻게 또 천마산으로 보내겠소. 이번에 아예 집을 한채 주어 해월이와 살림을 차리게 해야겠소. 이젠 억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살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높은 뜻이란 말이요. 그래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자자는게 아니요.》

《알겠습니다. 헌데 그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인가요?》

《눈치를 보니 그런것 같소.》

《그럼 원앙새처럼 살게 해줘야지요. 천마산엔 제가 가겠습니다. 까짓거 솥이야 못굽겠습니까.》

《래일 좀 토론해봅시다. 》

그들의 발자국소리가 사택마을로 향했다. .

멀어지는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춘삼은 가슴속에 뜨거운 걱정이 차올라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흠치지도 않았다.

솥쟁이 운명을 타고난것처럼 여기던 그 어둠과 적막만이 뒤덮인 심심산중 솥막에서 별을 세며 새날이 지새기를 그리도 안타까이 바라던 지루한 그밤, 오늘도 바로 그때처럼 그렇게 서있건만 자신이 이렇게도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속에 받들

리워살게 될줄 생각이나 해보았던가.

그는 치욕과 슬픔, 터뜨릴수 없는 울분과 절망이 응어리져있던 가슴을 씨원히 씻어내는듯 눈물을 뜨겁게 흘렸다. 사랑과 정을 모르고 살아온 그는 느닷없이 어머니를 소리쳐부르고싶었다. 오늘에 받아안은 사랑과정이 너무나도 크게 가슴속에 파도치고있어 터놓지 않고서는 참을수가 없었다.

짱-찌렁 짱-찌렁...

공장에서 또다시 웅글은 쇠소리가 들려왔다. 춘삼을 어서 오라 부르는듯.

(나같은 사람을 주인으로 되게 하고 잘살게 하는게 바로 새 민주조선이란말인가!)

춘삼은 그제야 꿈결에 아리송하게 안겨오던 《새 민주조선 건설에 총동원되자!》라는 구호가 온몸을 시원하게 휘감는 밤안개처럼 몸가까이에 확연히 느껴졌다.

춘삼은 자기 몸에서 넘쳐나는 힘을 새 민주조선을 위해 바치고싶었다.

(그런데 무엇을 할것인가?)

순간 그의 귀전에는 방금 공장위원장과 상호가 나누던 이야기들이 되새겨졌다.

(그래, 솟이 것처럼 요구된다고 했지, 그럼 난 솟을 마음껏 구워보내줄수 있지 않는가...)

춘삼이의 가슴은 기쁨으로 떨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크나큰 긍지로 하여 만족을 느꼈고 자랑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될수 있음을 놀랐다.

《그렇다. 천마산으로 가자. 솟을 팡팡 구워내자!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장군님께 보답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확신하며 춘삼은 자기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일을 자기가 결심했다. 결심하고보니 마음이 가득한게 힘과 정력이 더욱 넘쳐나는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공장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이튿날 새살림 차릴 짐들을 가득 싣고 천마산으로 가는 마차에는 춘삼이와 함께 해월이와 상호가 탔다. 신행을 떠나보내듯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뜨겁게 배래왔다.

고개를 버쩍 든 춘삼은 두다리를 마차우에 억세게 붙이고 호기있게 채찍을 휘둘렀다. 채찍끝에서 휘파람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쓰라린 과거와 결별하고 새생활로 달려나가려는 그의 웨침처럼 들렸다.

인생의 험한 질곡에서 해방된 행복의 마차를 타고 우리의 주인 춘삼은 아침노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출근부앞에서

장준식

새날을 축복하는 해살
온몸에 받으며 들어 섰건만
선뜻 휘갈겨 적을수 없어라
나의 출근수표

이 시각 내 적는것
이름 석자뿐인데
얼마나 많은 생각 불러주는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 창조의 그날
어버이수령님 몸소 펼쳐보신 출근부
내 오늘도 펼치면
사랑의 자욱 뜨겁게 안겨오고
한해에도 몇차례 찾아오시며
나라의 큰일도 함께 의논하시며
우리를 기업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그 믿음 되새겨지는 이 아침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가장 떼떽하고 존엄있는 이름들

이 땅의 수천만 로동계급이
충성의 마음을 적는 이 시각
나도 조국의 새날에 서약하거니

어버이수령님께 다진 맹세
하루라도 잊을세라
계급의 량심과 의리를 지켜
이 아침도 적는 마음의 수표

언제나 드리고싶은 감사와 축원
이 세상의 말과 글로는 다할수 없어
어제는 서해감문건설장과 함께
오늘은 순천비날론건설장과 함께
숨결과 맥박을 맞추는 심장의 수표

아, 어버이수령님을
내 한생 받들고 따르는 길에
변함없이 이어질
새날의 결의여

친선의 수만리길우에서

오영재

평양-베이징 항로에서

넓은 구름안개밑으로

산과 산

물과 물로 이어진

땅이 흐른다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날으는 이 몸

비행기의 둥근 창가에서

눈을 뻔줄 모르고

국경을 찾아보니

뻗어가고 뻗어온

철길과 도로

두 나라 마음들이 서로 이어진

뜨거운 친선의 길

맺은 정 그리도 깊어

30 여년전 추억도 어제같은가

내 젊은 병사시절

포연이 밀려오는 전선의 그 고개길을

함께 간 지원군전사들

저 길에서부터 울려왔으리

멜대채에 건 야전가마의 삐걱이던 소리

구울던 중기의 쇠바퀴소리

전호에서 얼싸안고

수류탄을 나누던 동무

야전병원 달뜨는 처마밑에서

배워주고 배우던

노래의 동무-홍안의 그 청년도

저 길우에 그 자욱 찍으며 왔으리

조선의 어머니들 품에 안겨

《어무니!》

《어무니!》

석별의 정에 샘솟던 그 눈물

저 두줄기 궤도를 적시며 간

혈육같은 전우들이 사는곳으로

오늘은 내 찾아가거니

평양-베이징 항로우에서

내 국경을 찾아내지 못하는것은

서로 돕고 위해주며

혁명의 길을 함께 가는

그리운 그 얼굴들이

눈앞을 가리워선가

못잊을 두 나라 오가는 정이

아, 그리도 깊어서인가

상하이의 한복판에서

-중국공산당의 창건을 선포한 중국공산당 제 1 차대표대회
회의장소에는 1983 년 6 월 3 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 기념관을 참관하시고 남기신 글이 정중히 보관되어있다.-

그리도 반가운 모국의 문자

우리의 친근한 지도자동지의

너무도 눈에 정다운

활달한 필적

획마다 어려오는

그리운 고향산천

흐르는 맑은 물소리도

귀가에 들리는듯

당중앙청사의

붉은 당기가 가슴에 나뭇기네

빛나는 안광 자애로운 그 미소가

눈앞에 어려오네

피로 맺은 조종천선

더 굳게 하고 돌아오라
당부도 간곡하신 그 음성
방안에 가득히 울리는듯

오래도록 그 글발
덮을줄 모르고
한자리에 굳어진듯

우리 떠날줄 모름은

천만의 인구로 변화한
상하이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안은
그것은 소중한 조국이기에 문이여라

베이징의 아침

베이징의 첫날
층높은 호텔의 베란다에 나서니
눈앞에 펼쳐진
아침의 베이징

차들도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고 거리가 미여지는
출근의 흐름

엷은 안개를 거두며
쏟아져내리는 해살에
비좁도록 굴러가는
은빛 자전거살들이 웃는다

억양높은 이국의 언어가
음악처럼 그우에 울리고
화려한 차림의 교통정리원은
갓가지 색깔의 옷들과
너인들의 늘어진 머리태들에 싸여있어라

풍기는 빵과 레몬 향기
남새점마다 무독히 쌓인
붉은 홍당무와 푸른 양배추
하나 둘 상점문들이 열리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띤다

끝없이 끝없이
사람들 흘러가는 그곳은 어디나
안해와 아이를 싣고가는 저 삼륜차
다정히 손을 잡고
속삭이며 걸어가는 저 짧은 남녀들...

자유로운 거리
기쁨의 이 거리에서
지난날의 파피가
얼마나 아프고 피로왔던가를
다시 물어 무엇하랴

아, 희망의 이정표를
빛나는 2000 년대에 세워놓고
그날에 펼쳐질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향해가는
베이징의 아침거리우에

인사를 보내노라
축복을 보내노라
친근한 형제의 나라를 찾아온
평범한 조선의 공민
소박한 한 시인이
층높은 베란다의 푸른 란간에 팔을 짚고서...

고향의 위도를 지나며

북위 39 도선 베이징에서
북위 23 도선 광주어로
구름우에 높이
려객기는 날으는데
점이식 탁자우에

펼쳐놓은 지도에서
오래도록 내 눈을 땄줄 모름은
그사이엔
남해바다기슭 34 도선
내 고향의 위도가 있다

50년 늦가을 비에 젖으며
38선을 넘어온 그날부터
36년이란 긴 세월
단 한결음도 내디더보지 못한
그 남쪽

천백번 꿈속에 밟아본 그 남쪽을
제땅을 딛고 내 못가고
이국의 향로로 지나고있구나

어디나
네 어린시절 달그림자 비낀
남해의 백사장은
어디나
의용군으로 총을 메고
어머니와 헤어지던

랭자나무 푸른 울타리가는

아서라
여기는 광활한 중국땅
고향은 동으로 몇천리 먼곳
다만 위도가 같아서
위도가 같은것으로
내 가슴 이처럼 울렁이거니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된 그날
달리는 남행열차에
이 몸을 실은 그날엔
감격에
환희에
나는 넋을 잃으리

대만해협에서 받은 축복

하문의 부두에서
아름다운 관광지- 교량섬으로 가는
려객선의 선실엔
가득히 차있었네
수많은 외국의 관광객들

하늘에는 눈부신 남방의 태양
패속으로 배는 달리고
일어번지는 푸른 물이랑
바다는 거품으로 끓고
색색의 높낮은 지붕들로 온통 덮인
교량섬은 가까와오는데

내 미처 몰랐네
마카오의 처녀와 아메리카의 한 백인녀인
아까부터 유심히
나의 앞가슴에 모셔진
수령님의 초상을 들여다보고있을줄

무엇인가 속삭이며
다시 보고 또 속삭이는
그들의 말 내 알아들을길 없어도
나는 보았네
귀여운 검은 눈과 사색깊은 푸른 눈에
가득히 담겨있는 기쁨의 빛을

그들의 말속에 섞여 들려오는
《김일성》, 《코레아》
너무도 귀익은 그 말이
대만해협의 푸른 물결우에서
음악처럼 내 가슴에 울려왔네

배는 교량섬에 다 오고
눈빛으로 서로 사귀어 우리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을 때
잔에 넘치도록 음료수를 부어
정다운 미소로
그것을 나에게 권했거니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사는
행복한 조선의 한 공민에 대한
진정에 넘친
그들의 부러움이었고
축복이었네

마지막 식탁에서 읊은 즉흥시

이 잔을 들면
작별의 그 시각이 오고말가봐
차마 비우지 못하는
베이징 비행장의 마지막 식탁

넘치게 부어준 잔을 들여다보니
어려있구나
즐거웠고 잊을수 없는
중국에서의 나날들이

베이징의 고궁과
백운대하의 옥상에서 본 광주
고량섬에서의 하루와
뜻깊게 돌아본 황포강기슭이

비껴있구나
우리를 이날까지 동무해준
리동무, 함동무의 얼굴
샹하이의 시인과
천진의 사랑받는 너가수
신의깊은 한 촬영가의 그 얼굴이

어디에 가있어도
조국은 조국이구나
그대를 향하니
이 마음 설레이누나

50 평생 내 살아오며
처음으로 떠나본 조국
그러니 내 알겠노라
그대 그리도 귀중하고
그대를 떠나서는 내 살수 없음을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모든것이 서로 달라도
내가 찾은 기쁨이 있고
내가 얻은 사랑이 있는 나라

그대의 운명은 내 운명
갈라진 그대의 아픔은 내 아픔
툭아가는 혁명의 혈치 않은 언덕길우에
내 걸음을 익힌 사람

남들이 즐거운 저녁길에
유흥장을 찾을 때
기꺼이 깊은 강을 건느고
남들이 먼 나라의 휴양지로
떠나는 짐을 꾸릴 때
신들메를 조이고 진펄길을 헤쳐가는
내 나라 우리 인민 그속에 나

비오는 남방의 저녁길에도

두 나라의 위대한 력사
두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무어준 친선
인류공동의 위업이 맺어준 친선이여서
이토록 성스럽고 정이 깊은것인가

잘 가시라고
그대들이 부어준 잔에는
중국의 마음과 그대들의 모습이 어려있고
조선에 오시라고
우리 부어준 잔에는
조선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들이 비껴있거니

마시자, 이 잔을
그러면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만세! 조종친선
만세! 형제의 영원한 우의를 위하여

조국을 향하는 마음

광야를 달리는 급행열차의 창가에서도
내 한시인들 그대를 두고
생각을 비운적 없었노라
중국의 벼들이 퍼주는 포근한 잠자리에서도
내 잠못들고 뒤척였노라

아, 사랑하는 조국
태줄처럼 삶을 함께 이은 나의 조국
어려워도 내 못있고
갈길이 힘겨워도
그대 지닌 그 사상이 위대하여
자랑으로 긍지로 따르는 내 조국

오늘에 그대에게서
내 진수성찬을 굳이 바라지 않노라
호화로운 살림도 아직은 바라지 않노라
남이 못받는 그런 사랑
우리 당의 품에서 내 다 받고
남이 못가진 그런 신념
우리 당을 따르며 이 가슴에 지닐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대의 아들
어디에 간들
그 무엇을 준들 바꿀수 없는
이 행복 그대를 떠나보니 더욱 새롭구나
조국이며
아, 나의 조국이며
아들은 그대품으로 돌아가노라

무지개 비낀 순천땅에서

역에서 내린 우리는 20리런포벌에 펼쳐진 순천의 비날론기지 건설장의 장관앞에서 한동안 자기를 잊고 서있었다.

8월의 열기를 머금은 하늘가에서 눈부시게 작렬하는 태양, 거대한 생명체인양 런포벌을 적시며 흘러흐르는 대동강의 유구한 흐름, 그 흐름위에 떠실려흐르는 거대한 구조물들과 붉은 기폭들, 건설의 교향악을 이루며 대지를 진감하는 기계화군단의 장쾌한 음향!...

머칠이 걸려도 모자랄 광대한 이 건설장의 취재길, 우리의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뻗 것인가?

우리는 건설지휘부 정치분과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런포벌이 한눈에 안겨오는 큰길가에 이르렀다.

1983년 4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순천비날론건설장의 터를 몸소 잡아주신 력사의 지점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옹계 령도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런포벌의 전변은 바로 이 력사적인 지점에서 시작된것이었다.

사방을 둘러보면 비날론의 주원료로 되는 무진장한 석회석과 석탄을 품은 거창한 산악들이 런포벌을 둘러싸고있고 공업용수, 배길로 리용될 풍만한 대동강줄기와 나란히 뻗은 철길이 별판우로 굽이쳐나갔다. 더우기 우리 나라 굴지의 세멘트공장들이 흰연기를 토하고 공사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풍부한 이 대동강기슭-런포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붉은 화살을 그어주신것이였다.

우리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크나큰 경모와 솟구치는 감동을 안고 천천히 건설장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51건설사업소의 건설현장은 류달리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기양과 대안, 개천과 북창 그리고 순천 등지의 건설장들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온 건설사업소는 오늘도 이곳 순천건설장의 기본인 방사직장건

설을 맡고있었다.

드넓은 푸른 벌판에 수백개의 기둥들이 숲처럼 일떠섰는데 그가운데서도 수만톤급 군함의 사령탑같은 건축구조물이 이채를 띠며 우리의 눈을 끌었다. 방사직장의 폴리비닐알콜공급기실이었다.

불과 며칠사이에 수십메터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이 구조물꼭대기에는 붉은 기발이 세차게 퍼덕이고있었다.

마치도 온 비날론건설장이 거대한 함선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항로를 따라 근감하게 전진하고있는것 같았다.

아찔한 기둥들과 구조물들사이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자주-82》형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콘크리트혼합기와 권양기의 동음, 호각소리, 전동기들의 소음이 한데 겹쳐 치렬한 격전장을 련상시켰다.

우리는 《김혁청년돌격대》의 기발이 나뭇기는 건축1직장에서 21살의 돌격대원처녀를 만났다.

부전고원에서 이곳 건설장으로 탄원해온 박정금동무였다. 해월에 탄 동그스름한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그 모습은 순천건설자들의 모습을 대변한 힘과 열정과 랑만의 상징처럼 인상깊이 안겨왔다.

우리는 어느덧 51건설사업소 일군들로부터 방사직장의 건설 속도와 규모, 그리고 전망을 알게 되고 그 방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건설현장지휘부에 다달았다.

이때 번덕이 심한 8월의 하늘은 갑자기 시꺼먼 먹을 갈아부은듯 컴컴해지기 시작하였다. 때아닌 일식이 닥쳐온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리덮을듯 무거운 배를 끌며 사방에서 몰려온 먹장구름아래 온 들판은 고유한 빛갈을 잃고 재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런포벌 변두리에 서있는 비료공장, 세멘트공장 굴뚝들에서 뿜어나온 흰연기만 유묘하게 재빛 공간으로 타래쳐갔다.

울썩년스러운 찬바람이 벌판의 풀잎들을 흔들며 후두둑 비방울을 뿌려놓는가싶더니 갑자기 섬섬한 푸른 칼날이 검은 공간을 둘로 찢어발기고 이어 하늘이 짜개지는듯 요란한 우뢰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폭우가 사선으로 건설장을 휩쓸었다.

사방이 온통 물속에 든것 같았다.

우리는 주먹같은 비방울을 피하여 현장대기실 쪽으로 뛰어들었다. 대기실앞에는 방송차가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뜻밖의 광경에 부딪혔다. 애티나는 방송원처녀가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있었다.

언제나 힘찬 경제선동과 노래로 현장을 고무해 온 저 처녀는 어쩌서 수심에 싸여있을까.

《건설자들이 저의 말을 통 들어줘야말이지요!》

처녀는 울상이 되어 우리에게 하소연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서 빨리 대피하라는 방송원처녀의 애원에는 아랑곳없이 건설자들은 일터를 뜨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니 저 방송원처녀의 귀여운 눈가에 맺힌 눈물은 우리 건설자들에 대한 자랑과 긍지의 눈물이었다.

비웃고갈을 제껴쓴 51건설사업소 조직비서동무가 현장으로 내달렸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뻔안 비발속을 누비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우리 동무들을 현장에서 떼어낼수가 없군요!》

그는 턱밑으로 흐르는 비물을 뺨 그어던지며 비쏟아지는 하늘을 흘겨보았다,

《날씨두 참 ! ... 이런 때는 우리 동무들한테 <철수구령>이 도무지 통하질 않습니다.》

대지를 뒤덮는 폭우속에서도 불꽃튀는 전투가 계속되고있었다.

우리는 그속에서 건설장의 기본을 말아나선 《제대군인소대》원들의 작업모습을 목격하였다.

녹아흐르는듯 미끈거리는 검붉은 진창과 대줄기같은 비속에서 소대장 장룡운동무의 거센 구령소리와 거기에 호응하는 소대원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어느덧 나어진 두 처녀의 선창에 따라 소대원들의 노래소리가 터져올랐다.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치며

우리는 머나먼 길 걸어왔어라

...

뻔안 비발, 검은 하늘을 가르는 푸른 번개불에 언뜻언뜻 비치는 소대원들의 열띤 얼굴들...

지심을 흔드는 우뢰소리를 누르며 노래는 점점 고조되였다.

수령님 펼치신 영광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워가리라

...

우리는 제대군인소대원들속에 어울려들어 기동기초과기작업을 도왔다.

비가 즈름해진 휴식짙에 우등불결에서 우리는 리순옥, 김영희동무들을 만났다.

제대군인들로 무어진 이 선두대오에서 나어진 두 처녀를 보게 될줄은...

《참엔 우리 처녀들을 소대명단에서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울기까지 했는걸요,》

리순옥동무는 그때를 돌이켜보듯 귀여운 얼굴에 방긋 웃음을 지었다.

《제대군인이 아니라고 우릴 어린애로 취급하러 들었거든요. 건설사업소에 입소한 날자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나이로 치면 우린 제대군인들과 동갑인셈이지요.》

김영희동무의 말이였다.

당원-제대군인들의 높이에 자기들을 마음속으로 세워보며 건설장의 첨단에서 내달리는 이 처녀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시대 사로청원들, 청년건설자들의 전모를 보는 심정이였다.

방금전에 《김혁청년돌격대》기발밑에서 만났던 박정금동무의 말소리가 다시금 우리의 귀전을 쳤다.

《물론 제가 일하던 부전고원에도 생활이 있고 자랑할만한 일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곳은 보다 어려운곳,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일 관심하시는곳이 아닐가요. 이런곳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의 일생에는 커다란 공백이, 메울수없는 빈자리가 생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건설장에 탄원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느끼는 기쁨과 보람을 아마 맛보지 못했을거예요.》

그는 행복한 처녀였다. 이 건설장의 주인들인 청년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이였다!

《제대군인소대》는 자연과의 치열한 격전을 벌리는 51건설사업소의 역센 주먹에 비유할수 있을 것이다. 7월계획을 해제진 소대장 장룡운동무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대로 거쿨진 체구에 날카로운 눈에서 무비의 담력이 번뜩이는 거인이였다.

그는 지난 5월초에 제대군인소대를 무을 때를 돌이켜보며 흥분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사회주의건설장들은 영웅들을 낳는곳이고 영웅들이 일하는곳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친 서해갑문 군인건설자들의 영웅한 모습은 우리 제대군인소대원들에게 힘과 투지를 주고있습니다.

전례없이 거창한 이 건설장에서 우리가 서야 할 정신적높이는 우리 시대 영웅들의 정신세계이며 우리는 한사람같이 영웅적인 위훈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들이 사는곳, 영웅적위훈이 없이는 비날론 건설자라고 떳떳이 부를수 없다는 그런 인간들이 살며 일하는 땅-여기가 바로 순천의 들끓는 건설장인것이다.

이것은 51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의 심정만이 아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군인건설자들의 일습씨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적동색으로 번들거리는 건장한 어깨박이 불끈거리는 군인건설자들의 림름한 모습은 보기만 해도 힘이 솟구쳤다.

그들속에서 우리는 서해갑문건설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쳤고 태천발전소건설장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수많은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을 련상하게 되었다.

격전이 없는곳에서 군인의 위훈을 말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심정이다.

그들의 일터에서는 언제나 총포탄소리 들리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이런 건설장의 주인들, 피끓는 심장들속에서 20%에 달하는 방대한 건설자재의 절약의 예비가 나올수 있었고 새로운 말뚝콘크리트치기방법과 새로운 축조방법 등 수백가지의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이 꽃피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설퍼지는 비발속에 언뜻언뜻 바라보이는 건설장전경을 둘러보며 길을 걸었다.

장화목까지 빠져드는 감탕길에서도 우리는 머지않아 이곳에 펼쳐질 탄탄한 공장구내길들을 상상하며 힘든줄을 몰랐다.

방대한 부지에 일떠서는 여러 공장의 건설장들에서 보고느낀 가지가지의 혁신적성과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건설장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수도의 거리에서 이미 낮을 익힌 지원자들, 배우들도 만날수 있었다. 중앙인민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 평양의학대학... 매일같이 건설장에 홀러드는 지원자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의 대렬, 각지에서 들이닿는 건설자재, 지원물자의 흐름은 끝이 없다. 머나먼 강원도

통천땅에서 100키로그램에 달하는 고기를 령동해가지고 불원천리 달려온 김성기로인의 소박한 모습도 우리에게 더없는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순천의 건설장에는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굵이쳐온 충성의 마음과 지원의 물결이 거세차게 파도친다. 이곳에 서면 당의 뜻을 따르는 온 나라의 끓는 심장을 보는것만 같다.

우리는 대동강을 건너 수천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서는 건설장으로 찾아갔다.

대동강반에 일떠선 문수거리를 현상시키며 솟아오르는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사이로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공원과 학교, 유치원과 탁아소 건물이 일어서고있었다. 앞으로 비날론도시의 새 주인들이 살게 될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건설중인 주택의 옥상우에 오르니 방금전에 돌아본 대동강건너 건설장의 풍경이 뽕얀 운무속에 서 한눈에 안겨왔다.

본격적인 공사는 앞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수만톤의 방대한 량의 세멘콘크리트들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구조물을 이루고 땅우에 보이는것은 기둥들과 보, 층막들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갖가지 배관묶음들이 얹히고 합성탑들과 굴뚝들이 하늘을 찌르며 일떠선 새 공업지대의 완성된 면모를 상상해보았다.

이것은 머지않은 앞날의 현실이다.

련못과 꽃으로 장식된 공원같이 꾸려진 공장의 구내와 필필이 쏟아지는 비단필들을 위해, 아름다운 래일을 낳기 위해 건설장은 지금 세차게 태동하고있는것이다.

건설자들의 긍지와 랑만은 바로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과 잇닿아있다.

불시에 하늘이 투명하게 열리며 푸른 공간에 눈부신 태양이 명랑한 빛을 뿌린다.

말쑥하게 단장된 련포벌이 싱싱한 기운으로 숨쉬고있었다.

뽕얀 운무가 서린 건설장의 상공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황홀하게 걸려있다.

칠색령롱한 비날론필인듯, 건설자들의 아름다운 꿈인듯 무지개비긴 련포벌!

우리 시대의 거창한 심장과 거세찬 충성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오래오래 련포벌을 바라보았다.

영웅들이 일하는 땅, 순천상공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는 찬연한 빛을 뿌린다.

본사기자

좋은 친구

-한 기사장의 고백-

박찬은

속담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내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것이 중학시절의 문학수업시간이었던지... 하지만 이 말의 진의를 그렇게도 가슴저리게 체험한것은 작년말부터이다.

사람들은 대낮엔 불빛이 그토록 밝은것임을 미처 모른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더욱 빛나는것이 불빛이다.

바로 그 불빛과도 같이 빛나는 사람을 나는 이즈음이 돼서야 알게 되었음을 부끄럽지만 기탄없이 말하련다.

× ×

나에게 두 친구가 있었다.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다. 우리들이 서로 처음으로 얼굴을 익힌곳이 제대배낭을 풀기도전에 팔씨름경기부터 먼저 해본 건설건설대학의 기숙사였다.

여기 남향반이 한방에서 우리는 졸업증을 받을 때까지 함께 덩굴었고 이 건설사업소에도 같이 배치돼왔었다.

우리 셋은 나이도 똑같은 동갑이지만 다만 내가 채수없게 12월 그믐생이여서 늘 셋째동생 취급을 당했다.

나는 보병이었다. 셋중에 키는 제일 작으나 몸이 오달지고 이마가 곱돌같이 뻐뻐했다. 눈은 큼직한데도 겁이 없었다. 군대에서 입당할 때 기본결함으로 지적받은것이 소총명이지만 아직도 비관회의들에서 이 기사장한테 소총명소리가 붙는걸 보면 내가 퍼그나 남을 깔보려 하고 거드름부리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다음은 송치규기사- 그는 포병이었다. 셋중에 키가 제일 크고 관지뻐가 두드러진 얼굴이 무척 컴컴했다. 비교적 말이 적은 침직한 사람으로서 늘쌍 땅바닥을 들여다보며 다니기를 좋아하다.

그렇지만 매사에 누구보다도 경우 밝고 레의 밝은 사람이다. 혹자들은 그를 가리켜 리해할수 없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는 사람들 자기들한테는 그만한 결함이 없는가.

세번째로 리범기사- 그는 공병이었다. 송치규보다는 키가 좀 작으나 무용수처럼 날씬한 몸이 균형이 딱 잡히여 부러울정도로 날과람있게 생겼다. 송치규도 머리가 좋지만 리범이도 건설장에서 말하는 식대로 하면 쉽잖은 《베아링골》이었다.머리가 잘 돈다는 소리다.

남자가 얄미울정도로 곱게 생기고 말이 다사해서 여자들속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그에게는 남다른 인성이 있는지 동무가 참 많았다. 반면에 한번 흥분하면 인사불성이 되다싶이 앞뒤를 못가리는 결점도 있었다.

어쨌든 나의 벧 포병과 공병은 이 보병을 위해 《지원포사격》도 해주고 《교량》도 놓아주며 보병이 전진하도록 제나름으로 도와주었다.

우리 셋은 기술과 기사로 같이있다가 내가 먼저 설계실장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몇해후엔 기술부기사장이 됐고 석달전에 기사장이 건설부로 소환되자 즉석에서 그 후임으로 돌아앉았다. 말하자면 신입기사장이었다. 하여 무슨 일이나 통이 크게 해서 나의 이 만만한 투지를 보이고만싶은 마음속충동이 늘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기사장이 된후 첫 사업으로서 대형정류탑들을 몽땅 지상확대조립하여 통짜로 물어일켜세울 요란한 작전을 짰다. 선발된 기술인원들을 뽑아 돌격대도 무었다. 여기서 돌격대장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가 하는것이 지금 제일 주요한 문제로 나섰다. 거창한 탑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할 지휘관이 곧 돌격대장이기때문이다. 하며 리론실무는 물론 책임성높은 미더운 사람이여야 했다.

나는 그날도 그 적임자를 고르기 위해 기술과와 시공과의 기사명단을 놓고 몇번이나 내리훑었다.

아무리 봐야 송치규나 리범이가 말아줘야 할 일감임에 틀림없었다. 이들은 다 나이 40 고개에 올라선 로숙한 기사들로서 기업소적으로도 슬기단지라고 이름난 제사들이었다. 하다면 이 두 친구들가운데선 또 누굴 택할것인가?

송치규? 리범이? 나는 한본새로 마음의 질정을 못가졌다.

부드러운 비닐선이 뱅글뱅글 꼬인 하얀 전화기가 석대씩 놓여있는 목직한 책상앞에서 자못 심각한 얼굴로 더운 숨을 내쉬었다. 옆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에 엿비습이 비긴 내 모습은 흡사 곰이 한마리 웅크리고있는것 같았다.

내가 돌격대장을 한명 뽑는데서 이렇게 신중성을 기하는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다. 그것은 돌격대장감이자 곧 계획과장감이며 이 두 기사가운데서 한사람은 같은 연합안의 동업기업소인 口화확건설사업소에 넘겨줘야 했기때문이었

다.

벌써 며칠전부터 나의 웃사람들이 연합기업소의 조치니 어쩔수없이 그 두 재간둥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명은 口화학건설의 기술과장으로 넘겨줘야 한다며 기사장이 잘 생각해보라고 귀뭉해주었다. 결국 더 좋은 사람을 떨거두라는 암시가 아닌가.

더구나 짧은 계획과장이 불원간 인민경제대학에 공부하러 가므로 나는 여기에 몹시 신경을 쓰고있었다. 왜냐 하면 계획과는 기사장이 직접 관찰해보는 중요한 부서이므로 유능한 사람이 과장으로 와야지 까딱하단 내가 골탕을 먹을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치규나 리범이한테 돌격대장을 맡겨 정류탑공사를 빨리 끝낸 다음 계획과장으로 옮겨앉힐 심산이었다.

물론 이것은 내 혼자생각이 결코 아니였다. 이미 당위원회와도 다 토론된 문제이며 그러므로 돌격대장을 잘 선발해서 도와줄데 대한 당적과업까지도 내가 직접 받은것이였다.

자-그러니 더욱 심중하지 않는가. 송치규? 리범이?... 사람문젠 놓고 이렇게 마음씨여본적은 실로 난생처음이었다.

내가 골머릴 앓고있을 때 조심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얼른 낫색을 고치고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는척하며 《예-》 하고 위신스럽게 대답했다.

누군가가 어좁은 몸가짐으로 두발을 재국재국 저겨디디며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인차 머리를 들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기사장동무!》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할 때에야 무엇이 대단히 바쁜듯 큰 일군의 풍격을 갖추어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송치규기사였다. 나는 계면쩍은 낫색을 지으며 얼른 태도를 허트렸다.

《아, 난 또 누군가 했더니...》

나는 친절히 앞의자를 권하며 수선을 떨었다. 그럴수록 송치규는 그 거방진 몸집을 단정히 가지며 상급을 존중하는 아래사람의 례의를 지켜 벽쪽에 놓은 뒤의자에 가서 앉았다. 나는 자꾸 앞줄에 나와앉으라고 손짓했다.

《송동무, 우리끼리 있을 땐 여전한 옛친구로 대하자는데도 자꾸 이러누만.》

《허허 참, 그러면 기사장동무가 날을 세워 일하기 힘들거요. 친구일수록 상하등급을 더 잘 지켜줘야지 까딱하단 큰 일군을 난처하게 만들거요. 내 그래서 언젠가는 리범이한테두 말마디나 좀 하자고 버르구있소.》

《아, 아, 치규동무, 제발 그러지 마오. 그 폭탄같은 성미에 쫘-할수 있소.》

내가 한손을 내저으며 말릴 때 송치규는 옆에 끼고온 누릿한 종이봉투를 조심히 내놓았다. 은

근한 호기심이 동한 내가 그안의것을 꺼내여 대충 뒤져보니 자기 담당직장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품을 들여 만든 매우 구체적인 문건이였다. 지시도 하지 않았지만 맨 먼저 스스로 해온것이다.

《아무래두 참모장사업을 처음 맡은 기사장동무한테 이런 료해자료가 필요할것 같아서...》

나는 감심하여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역시 친구가 다르구나. 제일처럼 앞질러가며 도와주지 않는가.

이어 송치규는 미간을 찌프리며 안타까운듯한 음성으로 뇌이였다.

《거 전번 기술협의회때 시공과장이 의견을 제기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자기 지시를 철회했소?

혼살을 좀 내우지 않구, 원래 그가 어지간히 말쑥 사람인데 기사장이 우정 양보하는것 같아서 난 막 뺄이 났댔소.》

《허허, 과장동무의 의견에두 일리가 있지 않소.》

참말 송치규는 만날적마다 새로와보였다. 지금도 나를 책하는듯싶지만 사실은 심정에서 흐르고 있는 이 기사장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뜨거운가. 부기사장때부터 벌써 나를 친구로보다는 상급으로 더 존대해주더니 기사장이 되자부터는 완전히 두팔이 뻐주자고 한다.

늘 말술은 적고 듬직스레 처신하려 애쓰면서도 누구보다 례의와 인사법절에 밝은 사람, 나는 이렇게 우대받는것이 마음속으로는 여간만 흐뭇하지 않았다.

잠시후 송기사는 혼연한 낫색을 짓더니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소청을 꺼냈다.

《정류탑건설돌격대를 아무래도 내가 맡아야겠다구 생각해봤는데... 어떻소? 그래야 기사장동무가 조직한 첫 작전이 랑패없을것 같아서...》

(음- 역시 이것도 이 유현수를 먼저 생각했던 소리구나!)

나는 몹시 감심하여 꼭진한 음성으로 친절하게 말꼭지를 뺐다.

《송동무, 그건 지금 해당일군협의회에서 토론중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오.》

나는 빙긋이 웃어보였다. 송치규는 히죽이 마주 웃으며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물어봤다.

《저- 계획과장이 학교간단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요?》

《허허, 날새겐 얻어들었군. 그 동문 정말 발전성있는 동무요.》

송치규는 컴컴한 얼굴이 불깃해지며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바재이더니 슬쩍 에둘러버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들 발전하면 좋지요. 하지만 난 그저 이 담

당지도원이 제일 좋습니다.》

송치규는 갔다. 나는 그의 꺾두룩한 뒤모습을 측은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계획과장이 자리를 비우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는것 같구나. 하기가 왜 안그러랴. 사람마다 발전하고싶은 마음은 본능처럼 돼있지 않은가. 고운 사람 미운데 없다더니 나는 그저 송치규라면 점점 더 무엇이나 다 지지해주고픈 마음뿐이었다.

내가 걸려오는 전화를 몇통 받고나서 현장용 작업복을 양복위에 덧껴입을 때 보위색옷을 맵시있게 입은 리범기사가 찾아들어왔다. 그는 기사장실엔 응당 사람이 찌지 않으려니만 생각했는지 출입문을 열자 안은 보지도 않은채 고개부터 끄덕했다. 다음은 내 혼자인줄을 알고는 제풀에 하하... 하고 웃어버렸다.

인젠 눈귀에 잔물결이 곱게 일렁이는 중년사나 인데도 늘쌍 두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청춘에 못다 소비한 양기가 그대로 온몸에 흘러넘치듯 걸음걸음이 열정적이었다.

《기사장실이 한적할 때두 있구만.》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앉더니 방금 건축3직장녀 석들이 강자리웅덩이를 메우다가 가물치를 세가마니나 잡았다는 이야기며 특수용접공 아무개가 감마촬영에서 백프로합격을 받았다는 등 그러루한 건설장의 흔해빠진 소식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잠시도 말을 하지 않고는 좀이 썩서 견디지 못했다. 사람들은 다사한 리범이를 락천가, 명랑하면서도 대바른 사람으로만 평하지만 나는 어쩐지 점점 날이 갈수록 그가 송치규만큼 미더워보이지 않는것이 이상스러웠다.

더구나 리범은 송치규처럼 아직 나를 상급으로 깎듯이 존대해준적이 한번도 없었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친구의 깨끗한 우정을 살리려 애쓰는 리범이가 좋게만 보이더니 차차 그것이 이 기사장의 존엄을 깎는듯만싶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송치규쪽으로 더 기울어짐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특급기업소의 기사장이 무슨 우정이요, 의리요 하다가 나약한 인정에 빠지면 거창한 일들을 해제낄수 없다고 단정하고 누구에게나 다 급을 세워 위엄있게 경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 기사장동무, 큰 사업을 몇달 해보니 어땠가? 더 힘들지?》

나는 거염진 자세로 뜨직이 응수했다.

《뭘 그저...괜찮소. 》

《걱정 말구 본래 배짱대루 일을 팡팡 내밀라우. 우리가 있지 않나. 이번에 현수동무가 기사장이 되자마자 그런 큰 전투를 작전한건 참, 잘한 일이었어. 그래 그 돌격대장은 임명했나?》

《지금 토론중이긴 하지만 아마 치규동무가 맡게 될것 같소. 아직은 어데 가서 말은 내지 마

오.》

나는 리범이가 나를 그렇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아니꼬움으로 하여 저도 모르게 송치규를 지목하고말았다. 그렇다. 송치규야말로 얼마나 믿음직하고 친구들한테도 성실한 인간인가. 결코 그런 큰일을 이 경박스러운 리범이한테는 맡길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 口화확건설의 기술과장으로 가야 할 사람은 스스로 리범이가 정해진셈이다. 하긴 승급조동태가는 길이니 섭섭할것도 없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는 리범은 송치규가 돌격대사업을 맡게 될것 같다니 제일처럼 덩달아 기뻐하기만했다.

《잘됐어. 기사장동문 걱정 말라구. 나두 송동무를 힘껏 돕겠으니 그 돌격대원으루 망라시켜주게.》

《고맙소.》

그 순간, 더는 참을수 없는지 리범은 낫색이 핵-달라지며 동공이 여물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틀을 떠 차리구서 계속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겠나? 내 며칠전에두 몇번 이러는 걸 꼭 참았댔네. 큰 일군이 되기바쁘게 걸음걸이와 말투부터 달라지누만. 이젠 내 소리가 아니라는 건설장의 평가판결 명심하게.》

《아, 아, 이거 왜 이러나, 리범이!》

당황해진 나는 화약고에 불달리듯 흥분한 그를 끝내 진정시키지 못한채 어색하게 헤어졌다.

(까짓거, 불원간 타기업소에 갈 사람인걸.)

저렇게 피엑스러운 성미를 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낼가. 그의 조폭스러운 행동을 보니 문득 또 7년전 일이 생각키웠다. 돌이켜볼수록 기분나쁘고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두 친구의 인간미를 비교해본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갓 설계실장으로 임명되었을 그때였다. 워낙 나는 승벽이 센지라 설계실을 책임지고보니 설비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여 새 설비들과 비품들을 사들이고 폐기시키는데서 그만 규정을 잘못지킨데다가 그 후처리도 푹푹히 하지 못해 얼마간의 손해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자기비판도 했다.

하루는 이 사실을 좀 뒤늦게야 안 리범이가 혈떡거리며 설계실장방에 나타났다. 단둘이었다. 흥분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뜩이나 말을 잘하는 그의 입에서 불이 왈각 터져나왔다.

《유현수, 네가 뭐길래 국가돈을 마음대로 탕진한단말이나? 영?》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이마가 뻐여서 마주 내왔다.

《뭘, 뭘, 탕진? 내 벌써 그런 소릴 들을가봐 스스로 경리과에 찾아가길 결심을 했네. 물어놓겠으

니 걱정 말라구. 넌 그렇게 말하든 자기 친구가 얼마만큼 가슴아파할지 알기나 하니? 벗의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주진 못할망정...》

《에잇 쓸개빠진 형식주의자! 아직도 제 옳다구 목덜 세워?》

순간 그의 차돌같은 주먹이 부르르 떠는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네가 그래두 이 친구앞에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할줄 알았다. 당에서 민구 주요한 사업을 맡겨졌으면 실속있게 일할 생각부터 해야지. 그런 벗과 형식이 어디에 필요하단말이나? 나는 그래 가슴이 아파 뛰쳐왔는데 너는 친구한테 그렇게 도전할 내기냐?》

리범은 책 돌아서 다시 뛰쳐나갔다.

그날 저녁 내가 불빛이 어스레한 건설장의 유충진 길을 따라 시름겹게 걸어갈 때였다. 송치규가 급하게 쫓아와 어깨를 다정하게 잡았다..

《너무 고민하진 말게. 일을 하느라하면 이럴수도 있구 저럴수도 있지뵤.》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렸다. 선술집앞을 지나가던 나는 치규의 손목을 그리로 끌었다. 그러자 그는 몹시 딱해하더니 할수 없다는듯 자기가 방금 경리과에 들려오는 길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거긴 왜?》

《허허 참, 내 이달 로임을 거기에 맡겼으니 그리 알구있으라구.》

《아니?! 뭐라구?》

그럼, 나를 위해 그것을 회사하고 오는길이란 말인가? 물론 그것이 큰것은 아니지만 그의 진정이 고마와 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말로만 짹짹거리는 리범이와 말없이 친구를 위해줄줄하는 송치규야말로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후 나는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여 지금의 후방부지배인인 당시의 경리과장한테 찾아가니 그 돈은 벌써 필요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있더라면서 몹시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결국 송치규가 그렇게 조용히 나를 도와준것이였다.

그후 나는 리범이와도 화해를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송치규동무를 더 깊이 알게 되였다.

그러니 이 마당에 와서 인간적으로 미더운 송치규기사한테 그토록 중요한 사업을 맡기려 하는것은 너무나도 웅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 ×

나는 그후 정류탑조립장에서 살다싶이 했다. 돌격대가 조직되어 보름남짓한 기간에 벌써 송치규대장은 술한 일을 해제졌다.

길이가 70여메터나 되고 무게가 백여톤이 넘는 평장한 탑들은 원래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차례

로 조립해올라가게 되어있으나 이것을 지상에서 하나로 몽땅 조립하여 통채로 들어세우는것이 돌격대의 임무였다.

나프샤 열분해계통의 심장부에 이런 으리으리한 강철탑들을 수십개나 세워야 했다. 창공에 아찔아찔하게들 솟아 은빛으로 번쩍이는 각종 탑들이 직관, 곡관, 정자관, 왕관 등 기기묘묘하게 구불고 엷히고 줄달음치듯 까맣게 솟은 잔교들을 타고 쪽쪽 뻗어나간 배관들과 어울려 천채만상을 이루게 되였다.

그런데 돌격대조직에서 내가 한가지 실책을 범한게 있었다. 아무래도 타기업소로 가야 할 리범이를 돌격대에 넣지 말았어야 할걸 그랬다. 똑같은 송아지 한말푼에 매놓으면 뿔질밖에 없는것처럼 생각밖에도 리범이가 송치규의 일에 코코마다 걸고나서니 여간만 말쑈 존재가 아니였다. 그들의 론쟁은 수차례산에 따르는 자재랑비문제를 놓고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었다.

오늘 조립장에 둘러보니 벌써 정류탑 1 호의 조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강철보주대제작도 동시에 다그치고있었다.

송치규대장은 현장을 지휘하느라고 눈뜯새없이 돌아갔다. 컴컴한 얼굴에 말은 적지만 경우는 남달리 밝은 사람이여서 돌격대장이라는 자기 몫의 가치를 다 가늠한듯 열정에 넘쳐있었다. 아니, 그도 사실은 벌써 래일의 계획과장임을 짐작하고있는것 같았다.

하여 치규는 내가 조립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민망할정도로 깍뚫한 몸가짐을 짓고 뺨이처럼 돌아갔다. 그럴 때마다 리범기사는 코를 쳐들고 돌아서군했다고 한다.

이튿날 저녁, 리범이와 나는 초겨울의 쌀쌀한 강풍을 맞으며 청룡강기슭을 오래도록 헤맸다. 래일 口화학건설사업소로 떠나게 될 리범이가 작별인사겸 나를 찾아온것이다. 멀리 가는것도 아니고 한 건설장안에서 일하긴 하지만 어쨌든 떠나는 마당에서 나한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복잡한 기사장실을 피해 이 강변으로 나온것이였다.

리범은 매우 심각한 낯빛을 짓고 나에게 독설적으로 웨쳤다.

《나는 끝내 송치규동무를 설복해내지 못한채 이 기업소를 떠나게 뻤네. 유현수동무도 내가 가는게 손끝에 배긴 가시가 빠진것처럼 시원할거요.》

《무슨 소릴 그렇게 하오... 정말 헤어지게 섭섭하오.》

《너스레를 떨지 말게. 마지막으로 저 강철보주대제작문제를 놓고 한번 더 논의해보세.》

리범은 웃주머니에서 파란 비닐뚜껑을 씌운 수첩을 꺼내 내앞에 펼쳐보였다. 거기에는 깨알처

럼 박아쓴 력학계산에 대한 수치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돼있었다.

강철보주대란 백여톤이 넘는 우람찬 탑들을 물어일궤세우는데서 기둥과 같은 지계형의 지지대이다. 송치규는 이 지지대가 부러지거나 조금이라도 휘어지면 천금같은 탑을 허양 댔다꽃을수 있다며 재질이 좋은 ㄱ강재를 쓰되 련결사재들도 촘촘히 대줄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리범은 탑의 무게에 따르는 력학계산들을 구체적으로 다 해보고나서 송치규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ㄱ강재는 건설장에서도 상당히 아껴쓰는 귀중한 강재인데 보주대는 재질이 좀 묽은 ㄷ강재를 써도 일없으며 또 련결사재도 그렇게 종종하니 대서 강을 랑비할 필요가 있는가. 서너곳만 대주면 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더구나 강철보주대는 탑들을 다 세운 다음에는 다른데엔 쓸데가 없는것이므로 될수록 강을 절약해 쓰자는것이였다.

《그래, 현수동무 생각엔 어떤가? 과학적인 계산수치대로 하자는데 왜 그것이 못미더워 그러는지 리해할수가 없네. 기사장답지 않네. 오직 자기 보신만을 크게 생각하면서 귀중한 자재들을 망탕 써버리면 나라살림살인 뭐가 되겠나.》

《허-참, 너무 심각해서 그러지 마오. 나도 계산은 안해본게 아니지만 송동무도 자기 말은 소임이 하도 크고 중하니까 만약을 생각해서 조그마한 실수도 없이 하자는것이요. 그런데 그만한걸 리해해주지 앗구 결에서 자꾸 깔그랑거리면 그 동문들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소.》

《알만하네. 기사장인 동무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송동무가 그렇게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누만... 좋네. 그럼 이 말젠 사람은 물러가겠네. 내 한마디만 더 하구 가겠네. 동무는 기사장이 되자부터 점점 틀을 차리기 좋아하면서 대중의 의견도 귀담아들을줄 모르네. 벼으로서 숨김없이 하는 충고이니 잘 새겨들게.》

《고맙소. 하지만 자기 개인의 의견을 대중의 이름으로 거는건 점잖지 못한 버릇이요.》

《뭐? 옳은 소릴 해주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두 쓰거운가? 동무가 점점 이렇게 왜가니 지금 우리들의 우정에도 아금이 가지 않나. 더러워진단말이야. 난 정말 안타깝네. 귀맛 좋은 말만 자꾸 듣는데 버릇되면 틀림없이 눈이 멀어지네. 주의하게 그건 마약과 같은거야. 송치규동무는 왜 점점 그렇게 왜가나? 치사스럽네.》

《송동무를 모욕하지 마오!》

나는 격분하여 입귀가 부르르 떨렸다. 그러거나말거나 리범은 침착하게 자기 하고픈 말을 다 하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우리들의 관계는 이제 혁명하는 사람들의 의리가 아니라는걸 가슴아프게 생각하네. 꼭 회복

해야 하네. 잘있게. 탑장전투에서 승리하길 바라네.》

리범은 굵실굵실한 머리칼을 저녁바람에 날리며 강변 모래톱을 썩썩거려 거슬러 갔다. 나는 그의 말마디들이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찢러 모래불에 퍼더앉고말았다. 정말 앓다가도 모를게 사람이구나. 나는 리범이와 적지않은 세월을 친구로 사귀어오면서 그가 아무리 다사해도 저런 악설가인줄은 차마 몰랐다.

나는 강풍에 머리칼을 어지러이 훑날리며 점도록 기슭에 앉아있었다. 이때 누군가가 불쑥 솟아나듯 결으로 슬며시 다가왔다. 송치규였다. 그도 어데 가까이에서 우리들의 대화를 귀동냥해들은 듯 낮색이 심술궂게 이즈러졌다.

나는 그의 이런 괴한 모상을 처음으로 보는가 싶었다. 목소리도 질그릇을 두드리듯 통명스럽다.

《기사장동무, 너무 가슴아프게 생각할건 없소. 아무려문 그 사람 입에서 그만한 소리가 안나올 줄 알았소?》

《그럼, 송동문 그런 말들이 나오리란걸 이미 알구있었소?》

《돌격대에 들어오자 내 일에 집요하게 간참해나서면서 꼬치꼬치 따지구 계산해보는걸 보구려.

기사장동무나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기는커녕 사람이 점점 별나게 왜가드란말이요. 그래두 기사장동무한테 말을 많이 삼가하는것 같소.

나한테 먼저 들려서는 기사장이 력학계산을 했다고 해서 대장이며 기사인 내가 다시 안해볼수 있느냐마느냐하며, 자기 주장대로 ㄷ강재를 쓰지 않고 ㄱ강재를 쓰는 문제, 련결사재를 필요이상 많이 대서 국가자재를 몰쓰듯 랑비한다는 등 마지막에 량심과 의리 문제를 놓고는 더욱 나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모욕했소.》

《덜돼먹은자식!》

나는 분심을 참지 못해 씹어내뱉었다.

《종소. 우리들한테 리범이란 존재 더 없소! 내가 기사장이 되고 송동무가 온 기업소의 관심이 실린 그런 큰 전투장을 책임지고 하니 그 울끈지 않은 성미에 배알이 꼬이구 계정이 치받쳐 그러는게 틀림없소. 그 사람의 안목과 수양은 그게 다요. 우린 그럴수록 정류탑공사를 더 잘해야겠소.》

나는 벌떡 일어나 성칼지게 걸기 시작했다. 구두창에 모래알들이 들어가 발바닥이 깔끔거렸으나 그저 모르는척하고 자꾸 걸었다. 리범이를 생각할수록 패씹했지만 그의 말마디를 다시 새겨볼수록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찢늘해오고 이상하게도 의기소침해져 묵묵히 길바닥만 들여다보았다.

까닭없이 심중이 어색해져 서글픈것 같기도 하고 리범이가 한 말을 그대로 외워바치는 송치규가 원망스럽기도 하여 부지중 한숨을 내쉬었다.

우울하고 기분나쁜 날이었다.

며칠후, 드디어 굉장한 정류탑 제 1 호를 통째로 물어일궤세우는 날이 왔다.

나는 그즈음 뜬눈으로 현장에서 아침해를 맞곤 했다. 그러느라니 리범은 벌써 옛사람처럼 까맣게 잊었다.

오후 3 시, 건설기일을 반년이나 앞당길 보람찬 전투장인 열분해계통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지배인을 비롯한 기업소의 책임 일꾼들이 다 나오고 전투속보편집부와 방송차들도 모두 펼쳐나섰다. 하기가 왜 안그러랴. 이 화학공장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의의깊은 공장이 아닌가.

워낙 탑의 길이가 길거니와 무게도 백여톤이 넘어 무한궤도기중기로써는 들수가 없다. 그래서 레루를 놓은 좌우대차우에 사닥다리형의 강철보주(탑의 길이와 똑같다)를 세워 그것을 탑과 함께 맞물려놓았다.

리범이가 아무리 ㄷ강재를 운운했어도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강철보주를 ㄱ강재로 했고 편결사재들도 촌촌히 잇물려놓아 산이라도 떠옮길수 있도록 든든히 해놓았다.

시간이 되자 송치규대장이 목에 호각을 걸고 붉은기와 푸른기를 양손에 갈라쥐고는 엄격한 얼굴로 자기 위치에 가섰다. 길게 호각이 한번 울리자 돌격대원들은 각기 자기 전투지점들을 차지했다. 어찌나 훈련을 했는지 모든 구령과 동작이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갔다.

(역시 치규한텐 조직력도 있어!)

나는 한켠에 서서 그를 흐뭇이 바라봤다. 다음 짧은 호각소리와 함께 송치규의 수기들이 조화롭게 춤을 추기 시작하자 레루좌우의 대형권양기들이 돌아가며 두개의 보주대차를 편결한 팔목같은 쇠바줄들을 천천히 당겨잡았다. 탑에 늘어난 보조쇠바줄들도 뽕뽕히 뻗기 시작했다.

레루우에서 대차가 움직이자 모르는척하고 누워있던 우람한 정류탑이 별로 투정질도 없이 고개를 슬며시 들더니 무겁게 일어서기 시작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구경군들속에서 환성이 일어나고 송치규의 이마에선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삐국삐국, 뿌드득- 쇠갈퀴우는 아츠러운 금속성, 탑은 점점 자기 기초에 자리를 잡으며 30 도, 45 도, 60 도로 허리를 펴면서 장대한 키를 하늘 중천에 곧추 세워갔다.

《인젠 70 도다!》

누군가가 탑은 다 세워졌다는 안도감과 흥분에 못이겨 웨쳤다. 순간, 그 소리가 영원한 정지구령인듯 정류탑은 70 도계선에서 딱 물러서고말았다. 아무리 갖은 버력질을 다해봐도 탑은 진땀을 뺐듯 몸을 부르르 떨며 강철보주에 엇비슷히 엮힌채 움직이지 않았다.

별안간 전투장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모두들 어쩔바를 몰라 갈팡질팡 들뛰었다. 나는 너무도 혼맹이가 빠져 지구가 둘다가 뗏은듯한 환각을 느꼈다.

가뜩이나 꺼먼 송치규의 낫색은 먹빛으로 굳어져 났나간듯했다.

정신을 수습하고 하늘중천을 찬찬히 올려다보니 정류탑이 좌우강철보주대를 편결한 어느 한 옷사재에 걸렸다. 탑의 장치물가운데서 7자형의 지관홈타기에 산형강이 딱 들어가 잇물리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뻗었다. 더구나 보주대와 강철탑은 서로 끌어안듯 강한 힘과 반동력을 배태한채 딱 맞붙었다.

송치규는 그것을 떼보려고 이리뛰고저리뛰며 권양기의 쇠바줄을 풀어봤으나 치차처럼 불리운 사재는 움쩍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백여톤이 넘는 탑의 자체무게가 실리워 도저히 용빼는 방법이 없다. 참말 속수무책이었다. 다들 아래다리가 떨려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거야말로 전혀 예상치 않던 《목조임》에 걸려든것이였다. 전투원들은 재빛이 된 얼굴에 땀들을 철철 흘렸다.

사람들은 다들 실망하여 하나 둘 돌아갔다.

초긴장상태에 빠진 전투장은 무거운 침묵속에서 허덕이였다.

나는 전신의 피가 다 빠져나간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저 탑을 이대로 내시간만 뒹두면 완전히 활동이 돼서 파철로박엔 더 쓸모가 없게 된다. 참말 그렇게만 된다면 이 중요한 화학공장건설은 한해나마 지연되게 되고 나나 송치규동무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했다. 때문에 저 탑에는 우리들의 운명뿐만아니라 온 기업소의 운명이 달려있다.

나는 이때처럼 리범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파고든적은 일찌기 없었다. 저 편결사재만이라도 그의 주장대로 서너곳에만 대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게 아닌가. 그렇다. 드문드문 댕더라면 틀림없이 탑의 장치물이 걸리지 않았을게다. 오히려 촌촌히 대주었기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그물이 돼서 탑의 지관이 걸려든것이다. 아, 이런 후회막급이 어데 있단말인가.

탑을 당장 살리는 방법은 단 한가지밖에 더 없다. 저 70미터 탑꼭대기에 올라가 흠에 걸린 강철사재를 산소용접으로 붙여내치는것이였다.

허나 거기엘 감히 누구보고 올라가라 하겠는가.

그것 역시 목숨을 내놓을지 모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사재를 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귀신도 모른다. 탑과 보주대의 무시무시한 째사이에 끼워들기도 쉬우며 무서운 반동력에 허양 튕겨나 아득한 중천에서 개구리처럼 내뿔리워질지도 모른다.

자체 무게로 하여, 휘우듬하니 후려든 탑은 시

체처럼 점점 굳어져가는듯만싶었다.

아까부터 피기없는 얼굴로 말없이 서있던 지배인이 전투원들을 다 모아놓았다. 이 추운 밖에서 죽은 말 지키듯 그러지만 말고 저기 휴게실에 들어가 침착하게 탑을 살릴 표책들을 토론하라고 신심을 주었다. 역시 아버이가 다르다.

얼마후 저녁어스름이 기여든 행랭그런한 탑장 공사장엔 나혼자만이 호상군처럼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조금전에 송치규가 지배인실쪽으로 가던 생각이 예리하게 뇌리를 쳤다.

묻지 않아도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건 불을 보듯 뻔했다. 책임문젠 따질것이다. 하다면? 송치규는 이 엄혹한 마당에서 어떤 립장을 취할가?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송치규는 가장 미더운 동무였다. 보지 않아도 이 전투의 담당지휘관은 자기니만큼 주저없이 모든 책임을 제가 안아 맡고나설게다.

순간 나는 세차게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렇게는 안된다. 정류탑공사의 지상확대식조립을 받기 한 사람도 나고 이 건설장의 참모장도 나니만큼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절대로 송치규를 밀어넣을수 없다.

나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발길을 뺏 돌렸다. 오직 탑을 살리는 길이 기업소의 운명과 벗의 운명을 건지고 건설공사전반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게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온몸은 저 탑꼭대기로 내달리었다. 결심을 내리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고 두려움이 뒤걸음질쳤다. 어서 탑위로 오르자!

나는 즉석에서 가까운 배관조립 8 직장에 달려가 중기계직장애다 전화를 걸었다. 빨리 자동차기중기에 용접기를 물리워 탑전투장에 즉시 도착시키라고 지시한 다음 우선 송치규일이 가슴에 걸려 먼저 지배인실로 뛰쳐갔다.

소리없는 출입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니 방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머리가 희끗한 지배인은 자기 책상앞에 두눈을 반쯤 감은채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있다가 송치규한테 안타까이 말하였다.

《송대장동무, 그럼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당장 탑을 구원할 대책도 신통한게 없대, 저 엄중한 일에 대한 책임도 질수 없대... 그렇게 빠질 구명만 찾지 말구 이 비상한 사태를 바로잡을 돌파구를 찾잔말입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린 동무를 추궁하자고 부른게 아니라 탑을 살릴 방도를 토론하자고 불렀습니다.》

송치규의 판자노리로는 진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뭐라구요? 내가 빠질 구명만 찾는다구요? 나는 지금껏 성실한 심부름군이였소. 심부름만 실컷 하고나서 마지막엔 이런 파멸적인 책임까지 지고 나갔으면 내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

소.》

《알만합니다. 한마디로 모든것은 기사장의 지시대로만 했다는 소리같은데 그렇게 참모부의 진짜 성실한 심부름군이였다면 이 엄혹한 정황을 타개할 용단이 그렇게두 없단말입니까? 동무는 기사이며 이 전투장의 책임자가 아니요.》

《책임자면 뭘합니까. 전 제 주견대루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키는대로 했을뿐이요.》

송치규는 벌써 제정신이 아니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광적으로 뇌까리는 꼴이 꼭 까무러칠것만 같았다.

(결국 이 기사장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소리구나! 아, 저런 사람이였던가?! 평소엔 누구보다도 나를 각근히 위해주는척하던니 목대를 내대야 할 순간에 와서는 이렇게 친구를 울가미에 몰아넣는가?! 인제보니 지금까지 너의 모든 《성실성》은 자신만을 위한 꾸밈수에 지나지 않았단말인가!)

별안간 온몸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오직 제 살구명만을 찾기에 촉급한 저 인간, 진정으로 조국을 위하고 벗을 위하는 마음이 털끝만치라도 있다면 어찌 이 순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면서 저 탑위로 뛰어올라갈 용단은 감히 내리지도 못하는가. 송치규가 이렇게 안팎이 다른 사람인줄은 내 지금껏 미처 몰랐구나. 내 여길 뭘하러 그렇게도 급하게 뛰쳐왔던가.

나는 마음속으로 침을 뱉고나서 한걸음 나섰다!

《지배인동무,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탑은 곧 살아날겁니다!》

내가 등뒤에 들어와 서있는줄도 모르고 지절이던 송치규가 기절하도록 놀라 뒤를 돌아다봤다.

나는 방을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몰랐다. 온몸에 번열이 일고 얼굴이 불뿔처럼 달아올랐다. 밖은 캄캄했다. 희미한 가로등불빛사이로 첫눈이 푸득푸득 흘날렸다. 왜 이리 공허하고 쓸쓸할까. 콩밭에 서있는 팔대처럼 고독하구나!

잠시후, 얼마쯤 걸어가던 나는 천만뜻밖의 광경에 그만 전신이 굳어져버렸다.

벌써 누군가가 그 탑꼭대기에 올라가 용접으로 강철사재를 붙어내치고있지 않는가! 밑에는 돌격대원들로 꽂는다.

나는 뉘없이 달려가 저 사람이 누군가고 물었다. 다들 모른다고 했다. 돌격대원들이 모두 탑에 오를 결의들을 다지고 휴게실에서 나오니 벌써 누군가가 저렇게 선손을 치고있더라는것이였다.

나는 우선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부터 대기시켰다. 만약을 생각해서였다.

빛살처럼 줄줄 쏟아지는 저 용접의 화려한 불빛이 어둠을 황황 불태웠다.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불빛 ! 그 불빛과도 같이 빛나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신비한 황홀감속에서 그 사람을 까맣게 우러르는 순간, 딱-하는 금속파열음이 아츠럽게 귀청을 때리었다. 뒤이어 쿵당당당-하고 산이 명동하는듯한 굉음이 일어나며 장대한 탐과 강철보주가무섭게 뒤채면서 한길씩 태질을 했다. 순식간에 탐은 바로 서며 저르릉-하고 가벼운 후소리로 소생의 환희를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

용접불이 죽은 하늘중천은 둥굴속같았다. 나는 그속에서 그무엇이 돌맹이같이 밑으로 떨어질것만같은 아쉽아심한 마음이 도끼로 허리를 찌는듯만싶어서 잔등으로 진땀이 흘러내림을 느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투장은 까맣 숨을 죽이고 저 하늘의 주인공이 어서 내려오기를 손에손에 땀을 쥐고 고대했다.

얼마후에야 한사람이 안전바줄을 늘어뜨린 기진맥진한 동작으로 탐장밑에 이르더니 쾅 쓰러졌다. 돌격대원들이 그 사람을 품안에 얼싸안았다. 그들은 인차 그 사람의 앞가슴이 빨강게 달은 용접부에 닿아 내복이 타면서 화상을 당했다는것을 알았다. 얼른 구급차에 옮겼다.

《리범동무!》

누군가가 이때에야 그 사람을 알아보고 걱정예 넘쳐 부르짖었다.

《뭘? 리범이?!》

(아, 그럼 그 <공병>이 우리 앞길에 돌파구를 열었다말인가!)

내가 천방지축 그들쪽으로 밀려갈 때 부르릉-하고 구급차가 한발 먼저 떠나갔다.

뽕양게 잊었던 이름 리범이, 청룡강기슭에서의 절하다싶이 헤어진 리범이! 생각할수록 내자신이 혐오스럽구나.

두 극단에 서있는 나의 두 친구, 그들을 완전히 꺼꾸로 본 이 청맹파니 유현수, 아이는 남주고 나는 결국 태를 가진셈이구나! 그 구역질나는 아침에 홀리워서.

후에 안 일이지만 리범은 그때 자기 기업소의 일로 멀리 B지구에 나가있다가 송치규네들이 정류탐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기바쁘게 탐전투장에 먼저 달려왔었다고 한다.

나는 이튿날 후방부지배인과 함께 병원에 리범의 병문안을 갔다오면서 아바이로부터 더더욱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전에 경리과장이었던 그는 인젠 상당히 오래 전 일이라 하면서 내가 재정규률을 잘못지켰을때, 리범은 나의 방자무례한 행동에 격분해서 주먹을 들었지만 돌아가서는 스스로 조직을 찾아가 내가 나라에 끼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해서 자기의

손목시계를 벗어 이 유현수의 이름으로 바쳤다고 한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지금까지도 송치규로만 알고있는데...》

아, 리범이는 바로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또 내앞에서는 리는만한 내색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인젠 잊었을게다. 정녕 인간의 진심은 가장 어려운 때 드러나는구나!

평소엔 내가 깨끗하고 대바른 리범을 오히려 무례하고 경박한 사람으로 여겨 그의 옳은 리론적주장까지도 배제했으니 자연히 송치규를 그렇게도 믿었을수밖에, 분칠한 성실성을 가지고 말없이 친구를 기만한 송치규!

하여 나는 그때 일의 심각한 교훈을 뼈아프게 느끼며 심장으로 부르짖는다. 벼들을 가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엔 반드시 동지들과 집단을 배반하고야만다고!

나는 나의 소탈하지 못했던 그 결점의 시작도 어디서부터였는가를 심심히 돌이켜본다. 바로 설계실장이 되자부터였다. 그때 애초부터 리범의 비판을 진심으로 접수하지 않았기때문에 결함은 점점 높아지는 직무와 함께 자라올라 오늘에까지 이른것이다.

아침해주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을 좋아하는것과 같다. 그러면 취해서 모든 현상의 본질을 가려보지 못한다.

존대받기 좋아하고 거드름부리기 좋아하는 《관료배》형의 유현수가 다시금 되살아나면 그때 또 리범이가 나의 《뽕》을 호되게 쳐주리라. 나는 이런 건실하고 참된 친구, 좋은 벼를 가지고있는것을 남다른 행복으로 여겨 이렇게 세상에 대고 사랑하고싶었다.

병원을 나와 깊은 사색에 잠겨 걸음을 채우치던 나는 씨늘한 강바람이 이마뺨을 후려치는 바람에 정신이 벌떡들어 멈춰섰다. 어느새 강변에 이른것이다. 순간 나는 얼마 멀지않는곳에 홀로 서있는 한 모습을 보았다.

그도 아마 나처럼 깊은 충격에 싸였는지 사람이 다가오는것조차 모르고 정신없이 강물만 쳐다보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그가 송치규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를 보는 나의 마음은 더욱 피로와났다. 그도 아마...

나는 자책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가 오늘의 이 지경으로 된데는 나의 잘못이 더 큰것이다. 내가 만약 일찍 자신을 깨닫고 그도 깨우쳐줬다면...

그러나 나는 그를 홀로 둔채 걸음을 옮겼다. 서늘한 강바람이 그의 머리들 깨끗이 씻어주리라는것을 믿으며...

위훈과 량심, 조국

리송필

위훈!

가만히 불러놓고보면 자못 생각이 깊어진다.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의 주인공 원삼아바이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위훈이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다.

한없이 겸손하고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진 로당원, 위훈을 세우고도 그 위훈을 조용히 파묻어두는 참다운 인간,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시기에 혼자서 40 일간이나 지하에서 물을 퍼내며 전동기를 끝까지 구해낸 숨은 영웅이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이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다.

전후에 원삼아바이는 전동기를 되살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하도록 젊은 기사 인철이를 적극 받아들여주고 떠밀어준다. 그리하여 나라에 큰 보탬을 주고 인철기사가 위훈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원삼아바이는 전동기를 개조하는데서 큰일을 해놓고도 그 공로를 인철기사에게 고스란히 넘겨준다.

원삼아바이는 당에 무엇을 달라거나 높은 평가를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공로자들을 축하하여 모입하는 날에 배낭을 짊어지고 화물자동차를 타고 다른 건설장으로 묵묵히 떠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있으며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그 평가를 은근히 기대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체기면 크게 소문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하면 그 어떤 보상이나 메달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것부터 먼저 따진다. 일감을 놓고 먼저 이러 저울질부터 한다.

나라가 일제의 폭압속에서 신음하고있을 때 항일혁명선열들이 그 누구의 평가나 보수를 바라고 혁명투쟁에 나선것은 아니다.

또 지난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군인들이 그 어떤 보수를 생각하며 불붙는 화구를 피끓는 꽃나이 가슴으로 막은것은 아니다.

그들은 영웅칭호나 훈장도 그리고 물질적보수나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았다.

위훈을 세웠다고 하여 높은 평가를 바라는것은 벌써 공로자가 아니다.

위훈!

이 말은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보수도

명예도 바라지 않을 때 받을수 있는 고귀한 칭호이다!

위훈과 량심, 조국, 이 말들은 절대로 떨어져 존재할수 없다.

티없이 깨끗한 량심!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되는것은 지능을 가지고있기때문만이 아니다. 량심이 있고 의리가 있기때문이다. 량심을 떼어놓으면 사람은 허물만 남는다. 그것은 벌써 인간이 아니다.

위훈을 세운 사람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받아안자면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위훈을 세우려는 마음에 그 어떤 사심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벌써 위훈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속된 야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나는 얼마전에 3대혁명붉은기 칠골협동농장을 찾은적이 있다.

그날은 유난히도 맑은 날씨였다.

가을의 농촌은 정말 아름답다.

높고 푸른 하늘, 들향기를 안고 불어오는 솔솔 이바람, 정말 마음도 날씨도 상쾌했다. 가을이라 하지만 한낮이 되면 자기의 옛 지위를 되살려보려는 여름의 절기가 마지막 기운을 내뿜쳐 매우 무더웠다.

낮은 산들과 논밭들은 어느 사이에 푸른 옷들을 벗어던지고 가을향기 풍기는 누런색 옷을 차려입었다.

나는 관리위원장을 만나려고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그의 방문에는 자그마한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합판으로 동그랗게 파붙인 알림판에는 《매 작업반에 나갔음》이라고 써여있었다.

《아니 이건?》

어떻게 한사람이 매 작업반에 다 갈수가 있단 말인가.

마침 회계원이 있길래 나는 물었다.

《관리위원장이 어데 갔습니까?》

《관리위원장사무실은 여기가 아닌데요.》
 그럼 저 문패는? ! ...
 나는 의혹이 생겼다.
 《진짜 우리 위원장사무실은 포전에 있습니다.》
 범상하게 말하는 회계원의 말에 나는 점점 더 의혹이 짙어만갔다.
 《아마 처음 오는 손님들은 놀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위원장동지를 잘 알지요. 30여년을 그렇게 매일 포전을 찾아다니며 사무를 보는 아바이니까요.》
 회계원은 자랑스레 말했다.
 나는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며 《포전사무실》을 찾아갔다.
 나는 농산 1 작업반부터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왔다간지 오래다는 것이었다.
 다시 2 반을 찾아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이었다.
 나는 그가 떠났다는 남새 1 작업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몹시 지쳤다. 하긴 아침부터 점심참이 다 되도록 걸어다녔으니 왜 지치지 않으랴.
 나는 기운을 내어 남새 1 반으로 갔다.
 푸집이 좋은 남새 1 반 반장이 나를 맞이했다.
 《관리위원장이요? 그는 지금 1 분조에서 배추영양단지를 찍고있습다.》
 내가 묻는 말에 반장이 하는 소리다.
 《그래요?》
 나는 한시름이 놓였다. 드디어 관리위원장을 만날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에서였다. 인차 관리위원장을 만났다.
 두박한 손, 흙이 제발린 신발, 땀이 질벅한 스포팅바람의 검실검실하고 해빛에 반짝거리는 몸집, 도무지 예순이 지난 로인이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정도로 팔팔했다.
 제기된 문제를 토론하는데 인차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길게 울렸다,
 《식사하러 갑시다.》
 그는 나의 손을 이끌었다. 나는 따라섰다.
 한참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있는 것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의아하여 물었다.
 《글쎄 내 옷을 오늘 은 어느 반에다 벗어놓았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지 않소, 명심하겠다고 매일 결심은 하지만 그냥 실수를 하누만요 허허.》
 《웃이요?》
 하고 나도 멈춰섰다. 무엇인가 나의 뇌리를 세차게 친다.
 아침부터 얼마나 드바빠 작업반의 논과 밭들을 돌아다녔으면 자기 옷을 벗어둔곳도 기억하지

못하였겠는가.
 땅처럼 파묵하고 땅처럼 진실하며 또한 그처럼 소박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며 말없이 위훈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리라!
 나의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관리위원장아바이는 매일처럼 수신타길을 걸어다니며 두팔 걷고 농장원들과 같이 일도 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는 것이다.
 하기에 이곳 농장원들은 그를 만형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때로는 본의 아닌 투정질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한발자국 한발자국 걸어가면서 창조하는 위훈들로 수놓아가는 우리 조국은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우리 조국!
 내 조국!
 조국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는 이름은 결코 아니다.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구나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효성을 다하지 못한 자식이 어머니를 감히 어머니라고 쉽게 부를수 없듯이 조국에 대한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감히 말할수 없지 않을가.
 내가 사는 조국은 어떤 조국인가.
 그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명예나 직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해서 위훈을 세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다.
 산간벽지나 천길 지하막장이나 파도사나운 바다가 그 어데를 가봐도 위훈으로 빛나는 내 조국!
 평범한 사람들의 량심으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쌓아올린 위훈의 탑.
 이 눈부신 탑은 가장 값있고 가장 빛나는 탑이다.
 나는 기뻐다. 그리고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었다.
 칠골협동농장 관리위원장아바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어깨에 떠받들려 날로 룡성발전하는 조국!
 이 조국땅에서 삶을 누리고있는 한없는 궁지로 하여 가슴이 마냥 부풀어올랐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진다.
 나는 내 조국에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다 바쳐왔는가.
 받을것을 먼저 바라지 않았는가.
 가슴이 저려온다. 다시한번 결심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이 창조하는 위훈속에 자신의 몸도 꼭 잠그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더 많이 써내리라고.

병사와 아이들

김익철

병사들의 잔등에서 땀이 마를사이 없던 1950년 여름의 어느날이었다.

밤사이에 피어린 격전을 치르면서 해방시킨 해변가도시는 새벽이 되면서 쥐죽은듯한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소리없이 기슭을 쓰다듬는 물결과 더불어 바다로부터 연한 안개발이 흘러드는가운데 이따금씩 들리는 총포소리와 함께 돌에 보병삽 부딪치는 소리와 병사들의 가쁜숨소리가 섞여 돌아왔다.

《정수, 힘들지?》

등뒤에서 삽자루를 쥐며 정답게 건네는 말소리에 정수는 허리를 펴며 고개를 돌렸다. 분대장이 땀이 번지르르한 얼굴에 웃음짓고 서있었다.

《...》

정수는 대답대신 눈만 습벅이었다. 지금 그들은 분대가 방어할 임무를 맡은 물자보급창고주변에 전호작업을 하고있었다. 적들의 재진공이 예견되어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분대장은 정수에게 제일 험한 구간을 맡겨주고도 자주 와서 돌봐주는것이였다.

《가만, 큰돌이 나오면 이쪽을 더 파야지...》

분대장이 돌을 예돌지 않고 고지식하게 그대로 파고있는 정수를 나무랐다.

《난 여길 벗어나면 안되는거루 알았습니다.》

정수는 무어나 끝이끝대로만 하려는 자기 성미에 불만을 느끼며 변명조로 대답했다.

《자, 이거라두 마시라구!》

갈증에 목이 타던 정수는 사양없이 물통을 받아 꿀꺽꿀꺽 마시었다. 대번 땀이 쑥 잦아드는듯했다. 그러나 허기진 감은 더한층 강해졌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사흘동안 정수네는 단 한개의 끓인 음식도 입에 대보지 못하고 건빵으로 끼니를 에웠었다. 서울이 해방되어 어린 나이에 강짜를 써서 입대한 그는 밤에 낮을 이은 행군도 힘겨웠지만 땀으로 미역을 감으면서도 간물마저 보충 못하여 속이 메스거리는데 몇갑절 더 배웠다.

구대원들이라고 다르랴만 누구 하나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금시 군복을 입은데 불과한 정수는 자신을 아직 군대로 생각지 않았다. 겉모양만 군대일 따름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당장은 끓인 음식이 그리웠다. 말들은 안했지만 다들 아침배소식을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들이였다.

《정수동무, 어렸을 때 이 도시에서 산 일이 있지?》

《예!》

정수는 몽클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며 흥분되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랬었다. 품팔이로 떠돌아다니는 아버지를 따라 유년시절의 한때를 이 도시에서 보냈었다.

《우편국자리가 기억나오?》

분대장이 또 물었다.

《기억납니다.》

정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소. 이제 가서 30 분내로 분대밥을 타오시오. 그래야 지장없이 차후 임무를 수행할수 있소.》

《알았습니다.》

정수는 용케도 제식대로 대답했다. 가까이에서 일하던 대원들이 그 말을 듣고 눈빛들이 밝아졌다.

입대후 하나에서 열까지 분대원들의 신세만을 저운 정수는 그들에게 다소나마 보답할 기회가 생긴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는 급히 개인용 밥통들을 모아가지고 중대취사장이 자리잡은 우편국으로 향했다.

거기까지는 한마장거리가 잘되었다.

면사도같이 연한 안개가 험상하게 마사진 도시를 어루만지듯 거리와 건물들에 감돌고있었지만 정수는 생생한 기억속에 떠오르는 거리를 주저없이 밟아나갔다. 정적을 깨뜨리며 둔중한 총포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걸음을 재촉했다.

포탄에 한쪽벽이 무너져나간 우편국건물앞에 가마마차가 전개되어있었다.

확 풍겨오는 열기와 함께 엇구수한 음식내를 맡으니 취할듯 머리가 핑 돌았다. 다른데서는 다 가져가고 정수네 몫만 남아있었다. 김이 문문나는 쌀밥과 반찬을 밥통들에 가득가득 나누어담아 랑손에 갈라쥐고 떠났다.

그가 곧게 뻗은 큰길이 거의 끝나 여러 골목으로 갈라지는 갈림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 골목집에서 불쑥 빠져나왔는지 계집애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 정수앞에 마주섰다. 그는 주춤 멈춰서서 쾅한 눈으로 계집애를 굽어보았다. 귀염성스러운게 나이는 예니곱살 됴직했다. 머리는 형클어졌고 살결이 맑은 몸에는 해진 몽당치마만이 걸려있었다. 이 반나마 허물어진 집들에 급히 들이닥친 전선으로 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사민들이 사는것이 틀림없었다.

《나 배고파, 밥...》

계집애는 매지구름이 낀 얼굴로 파리한 두팔을 내들었다. 정수는 부닥친 사태를 비로소 깨닫고

난색을 지으며 망설였다. 어쨌으면 좋을지 얼핏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빨리, 나 밥...》

이쪽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검색채자 계집애는 치마를 벌려줘며 더 바투 다가섰다.

(아니, 내가 왜 이러구 서있을가?)

정수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단호히 움직일 태세를 보이였다. 그러자 계집애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수는 못할짓이라도 저지른듯 가슴이 철렁하면서 발바닥이 붙은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감쳐물고 스르시 눈을 감았다. نوم들이 얼마나 악착하게 착취했으면 저 지경이 되었으랴.

그러자 눈앞의 계집애모습이 어린시절 자신의 모습으로 뒤바뀌었다. 앓는 어머니와 정수를 남겨놓고 서울로 돈벌이를 간 아버지에게서 소식이 없고 어머니마저 몸져누웠을 때 주린 창자를 달랠곳이란 길거리뿐이었다. 동냥을 구하던 그 나날, 어린 손바닥에 동전 한잎 던져주지 않던 신사들, 구명난 남비에 찬밥 한덩이 보태주지 않던 몰인정한 인간들이 얼마나 저주로왔던가... 더구나 미제놈이나 《국방군》놈들이 동냥을 구하는 아이들에게 매를 안기고 구두발질을 하던 광경이 떠오르면서 길을 막아선 어린것이 더없이 가공해보였다.

정수는 부드럽고 연약한 손이 팔목에 감기는것을 느끼며 놀라서 눈을 떴다.

계집애는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참 딱하구나. 별수없이 내 뒤통이라도 쥐야겠구나...)

그러나 다음순간 다른 생각이 머리를 들었다.

(그래두 일없을가?)

(이런 때야 별수 없지 않은가!)

정수는 이렇게 두번째 생각을 부정하며 밥통 한개를 열어 반쯤 갈라서 계집애의 치마폭에 폭 쏟아주었다. 그러자 계집애는 다시 빼앗길까봐 그러기라도 하듯 날새처럼 골목으로 사라졌다. 정수는 났나간 사람처럼 멍청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런데 그 계집애의 성공이 신호라도 된듯 길가의 이집저집에서 그리고 골목들에서 람루를 걸친 애들이 일시에 우르르 밀려들며 정수를 에워쌌다. 거의 여라문명 되었었다.

정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가슴이 아프더라도 단호히 잘랐어야 했으리라는 후회가 정수리를 찼다.

《아, 아, 이런 변이 있나!》

바빠맞은 정수는 아이들을 한옆으로 밀어제끼며 황급히 몇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고 켜붙어왔다. 그바람에 뒤따라붙던 어린것들이 넘어지며 울음을 터치고 큰것들

은 더구나 기를 쓰며 달라붙었다.

《울 얼마 않아요. 좀 살려줘요!》

《내 동생이 굶어서 누워있어요.》

《아저씨, 나 좀...》

아이들은 자기나름으로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이빠진 사발이며, 허름한 남비며, 때묻은 바가지 따위를 내대었다. 정수는 더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서고말았다. 까칠한 얼굴모습들과 허기져서 허우적이는 어린것들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시간을 짝어 임무를 주던 분대장의 얼굴과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분대동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이러면 나는 어찌라는거냐?)

아이들의 가공한 정성과 자신에 대한 딱한 생각으로 하여 정수의 눈에는 눈물이 핑 고이였다. 정수는 모진 마음먹고 밥통을 움켜쥐며 금시 움직일 태세를 취했다.

이쪽 의도를 간파한 아이들이 애원에 찬 눈길로 정수를 올려다보았다.

(이 철없는것들아, 내가 왜 너희들 사정을 모르겠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우. 나는 지금 명령을 집행하는중이야. 군대아저씨들이 이걸 먹어야 미제놈과 싸운다. 이런 사정 알구 좀 참아다오.)

정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절절히 웨치며 단호히 자리를 떴다. 그러자 아이들의 각이한 목소리와 급히 뒤따르는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정수는 강잉히 그 소음을 물리치며 걸음을 다그쳤다.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도 모르고 쫓기듯이...

이윽고 그는 땀에 폭 젖어 분대위치에 당도하였다.

《야 ! 오누만...》

《우리 꼬마가 수고했소.》

《저 땀 보라구!》

일손을 놓고 잠시 쉬고있던 분대원들이 우르르 마주나오며 정수를 에워쌌다.

정수는 분대원들이 그토록 치하하며 반기는데도 어찌서인지 기쁨보다도 그 어떤 죄의식으로 하여 초조감만 앞섰다.

정수는 당황해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고했구만, ... 무슨 일이 있었소?》

분대장이 벌써 눈치채고 물었다.

《...》

정수는 밝은 낯으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쭈뼛 거렸다. 적으나마 자의로 밥을 준것이며 아이들을 만났던 사실이며를 그냥 넘길수 없었다.

《사실은 승인없이...》

정수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을 떼다 말았다.

《무슨 일이요?》

분대장이 다우쳐물었다.

《내가 갈림길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힘들게 꼭지를 댔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채 계집애에게 밥을 준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때문에 그러나? …》

《그거야 잘한 일이지 뭘그래…》

《이 친구가 용한데.》

결에서 듣고있던 동무들이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주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러기말아요. 벌써 진짜 인민군대가 다 됐단 말이야, 응- ! 》

분대장도 대견한듯 미소를 띠며 정답게 정수의 손을 꼭 쥐어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수는 마음속의 한가닥 불안이 사라지는것과 함께 보다 큰 시름이 가슴에 떨어지는것을 느꼈다.

《이게 몇끼만이야 ! …》

《우리 꼬마덕에 앉아먹게 됐다.》

분대원들은 기꺼운 분위기속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밥과 반찬을 나누어놓았다.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수가 수고했다면서 저저마다 밥을 몇술씩 덧붙여주었다.

《조선사람한테는 그거 밥이 제일이라니…》

《글쎄말이야, 둘이 먹다 셋이 죽어두 모르겠구만…》 .

모두들 기분이 좋아서 식사들을 했다. 잠간 사이에 밥그릇들을 푹푹 축내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들을 보는 정수의 마음은 마냥 기뻛고 임무를 완성했다는 안도감에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있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방금 길에서 만났던 애들의 처량한 모습이 떠올랐다. 귀전에서 인민군대가 다됐다고 칭찬하던 대원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러자 가슴이 알찌근해오며 알수 없는 죄의식이 갈마들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정수, 왜 그래?》

정수와 마주앉은 대원이 축나지 않는 밥그릇을 넘겨다보며 의아해서 물었다.

《…》

정수는 대답대신 눈만 습벅이었다.

《어디 몸이 말썬가?》

누군가 걱정스레 하는 말에 모두의 눈길이 정수에게 쏠렸다.

《술길게 없이 시원히 말하오.》

《사실은 저…》 -

정수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주저주저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우!》

분대장이 재촉했다.

《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모두의 말을 듣고보니…》

이렇게 허두를 댔 정수는 계집애한테 밥을 준 후 술한 아이들이 물려든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뿌리치고 돌아서던 이야기를 하였다.

《뭘라구?!…》

분대장이 놀라는 소리를 지르며 듣고있던 밥그

릇을 내려놓았다. 정수는 놀라는 그 의미를 싣뜻 깨닫지 못하고 당황한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술질을 멈추고 낮빛이 굳어지는것이였다.

《그걸 왜 인제야 말하나… 그런것도 모르고 우린… 그 어린것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발길이 떨어집데?》 목소리는 낮았으나 흥분으로 떨리었다.

그순간 정수는 숨이 딱 막히는듯한 충격과 북받치는 걱정으로하여 《혹》 하고 흐느끼며 비오듯 주르르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지 못했다.

그것은 자기 실책의 본질을 깨우치는데서 오는, 아이들때문에 품었던 울적한 기분이 깨끗하게 정화되는데서 오는 걱정의 폭발이였다.

분대장과 동무들, 그들모두는 정수가 그토록 아파하던 그 마음과 한동아리가 되어 그리도 맛나게 치르던 식사마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구만…》

우리가 뭇때문에 피를 흘리구 목숨을 바치며 이 싸움을 하고있는지 아오, 헐벗고 굶주리는 그 애들때문이야 그 애들…》

분대장은 아픈 가슴을 억제하듯 군복앞단추를 끌러놓았다.

정수는 천대와 멸시와 굶주림만이 차례져야 했던 그 어린것들의 존엄을 옹호하며 말하는 분대장의 추궁이 너무도 뜨겁고 고마와 후후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그는 추궁을 듣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새삶을, 새 세상을 받아안은 벅찬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더 세차게 어깨가 들먹여지고 더 건잡지 못하게 눈물이 쏟아졌다.

《정수!》

분대장이 정수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군대를 왜 인민군대라고 이름지으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 인민을 떠나서 잠시도 존재할수 없는게 우리 인민군대야, 알겠소?》

《분대장동지!…》

정수는 순간에 놀랄만한 비약이 이루어지는 정신적충격을 느끼며 새로운 눈으로 분대장의 군복입은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자기 사명을 뚜렷이 자각한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듯한 환희와 긍지를 가슴터지게 느끼고있었다.

꾸르릉! 포소리가 울려왔다.

《자, 어서 식사들을 마저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한테 예비로 가지고있는 건빵을 모두게 합시다.》

분대장이 대원들을 향해 말하고나서 안심시키듯 정수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방금 떠오르는 아침해살에 군인들의 군모에서는 오각별이 빛나고있었다.

고개속인 금빛이삭아!

강명복

이삭아
토실토실한 금빛이삭아
소중한 네 열매
그 누가 다칠까
너 고개속이었느냐

물가의 버들잎 피기도전
세잎 네잎 그 시절엔
농장의 새봄이 좋아
뽕죽머리 쳐들면서
하늘하늘
물결춤만 추더니

불벌에도
폭우에도
넘치는 생명수에
모금모금 단비료에
너무 좋아 너울너울
파도춤만 추던 너

앞에 있는 먼 계절
아니기다려
어서 오라 당기며
두렁너머 고개들며
다투어 꽃잎열더니

금빛이삭아
너의 소원
알찬 열매
금관을 쓴 이 가을에야
뭐 그리 수집어
그렇듯 조용히
고개만 속이느냐

오늘의 이날 위해

봄 여름 가을
한순간처럼 받아온
사랑과 정성의 손길에
이렇듯 궁지로 부풀고
자랑으로 영글었건만
너 고개만 속이니
온 가을이 너를 따라
명상에 잠겼구나

푸른 강 저기 저 언덕
새김질하는 배부른 누렁소
큰눈 슴뻑
그 무슨 생각을 구울리는듯
지붕우의 빨간 고추
집집마다 넘쳐나는
가을의 환희이런듯... ,

풍년벌의 무용수
틀동고운 백학도
가을의 명상 흔들릴세라
소리없이 날으는 이 가을

봄 여름 가을
분주한 계절에
네 소원 다 꽃피준
은혜로운 태양
따사로운 햇빛
고마워 하도 고마워

하늘땅이 열싸안고 한껏 웃는
이 좋은 가을날
풍년가을의 큰 인사로
너는 깊이 고개속였구나
이삭아
금빛이삭아!

대학앞을 지나며

권강일

얼마만이냐 대학이여
사랑하는 나의 모교여
출장으로 왔던 몸 길은 바빠도
가까이 보고싶어 네앞을 못떠나는 마음

정문은 활짝 열려
전날처럼 나를 반기누나
버드나무 드리운 정원길로는
우리 존경하던 교수가 걸어간다

자라오른 나무들이 창문을 가리고
높다란 교사들도 더 일떠서
옛모습 많이 변한듯해도
네앞에 서니 되살아나누나
즐겁던 나날들이 동창들의 얼굴이

날마다 쌓이는 학습과제로 하여
바쁘기만 하던 그날에는 미처 몰랐다
자서전엔 몇줄 안되는 삶의 이 구간이
얼마나 미덥게 나를 받아들여주던가

정문가를 지나는 젊은 대학생들
그들은 아마도 나를 보며
흔히 찾아오는 학부형이라 생각할테지
언젠가는 나도 그앞을 지나며
시간을 아껴 때없이 책을 보았다

아, 잠시라도 들려가고싶구나
도서관에도, 기숙사호실에도
잊지 않고 언제나 기다리겠다면
그리운 스승들도 만나뵙고싶구나

허나 선듯 들어서기에는
발걸음 무거워라
내 지금 들고선 가방에는

출장길의 습관으로 넣고떠난 소설책 하나

땀을 쏟은 논문도 안고온것 없고
덥을세라 품고다니는 기사자격증은
다만 명예뿐, 위훈으로 빛내이지 못했거니
만나면 부끄럼이 앞서리
숙제를 못해온 학생과도 같이

오, 가리라 나의 일터로
용해장의 불노을 비낀 나의 연구소로
아낌없이 흘린 땀, 탐구의 밤들이
세찬 불바람되어, 열풍이 되어
기어이 새로운 쇠물폭포를 터쳐내릴 때

오리라
추억만을 안고는 들어설수 없는 집
우리 당에 기쁨드린 영광을 안고
크나큰 자랑안고 다시 오리라

...나는 바빠 가던길 채우친다
고개 돌려 바라보니
정다운 창문들이 따라서며 손짓하며
나를 배워워주는구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누나

나의 또 하루여

김휘조

나에겐 소중한데, 로동의 또 하루여
너는 이 아침도
타입공 나를 찾아왔구나
진동기소리 우뢰런듯
먼산에 메아리하는 순천의 건설장에

물탈물 오른 고무작업복
더운 땀으로 적시며
어서오라 하늘길에 기중기를 부르는
여기서 이제 비날론은 굵이치고

진동기 세찬소리 울려갈 때에
우리의 혁신의 자랑
울긋불긋 속보로 나불을 때
온 나라 온 거리가 더 밝아지거니

아, 두툼한 일력장을 번쳐가는
많고많은 나날에

이 하루가 그 무엇이랴만
그래도 오늘을 놓치면
소중한 그 모든것을 놓칠듯
무심히는 무심히는 보낼수 없는 마음아

건설자 우릴 믿어
당은 조국이 가는
휘황한 앞날을 이 땅에 펼쳤으니
로동의 또 하루여, 이 가슴엔 오늘도
비날론, 비날론이란 말로 가득차는구나
가장 간절한 념원의 말처럼
가장 뜨거운 맹세의 말처럼

아, 하루하루가 모여
나의 자랑찬 한생이 되고
그 한생이
이 땅의 빛나는 나날이 되는
나의 또 하루여, 로동의 또 하루여

문학창작에서 나타나는 자연주의적경향

박춘택

오늘 우리앞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이 이룩하여놓은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올린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연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문예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문학작품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가장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자연주의적경향이다.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부르쥔아 문학예술의 주되는 사상조류이다.

자연주의는 묘사대상을 선택하고 다루는데서부터 나타난다. 전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생활의 사말사들, 지엽적인것들이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되는데 그의 특징이 있다.

때문에 자연주의적작품에서는 생활의 진실이 외곡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이해할수 없게 만든다.

자연주의경향은 단순히 작가의 예술적사고나 현실에 대한 미학적인식과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적, 계급적 립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왜냐하면 생활에서 무엇을 본질적인것으로 보고 무엇을 비본질적인것으로 보는가, 또 무엇을 진실한것으로 보고 무엇을 허위적인것으로 보는가는 것은 작가의 당적 및 계급적 관점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실반영에서의 자연주의적경향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립장은 곧 그의 당적, 계급적 립장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은 부르쥔아문학예술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은 부르쥔아문학에서처럼 자연을 찬미하는 공공연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거나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외곡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는 그 표현에서 공공연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표현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는것이며 둘째는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현실을 외곡하는것이다.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는것은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정신에 배치된다.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생활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부족할 때 작가는 흔히 미화분식과 과장에 매여달리게 된다.

우리 생활의 미, 우리 시대의 위대성은 결코 화려하거나 어떤 요란스러운 외형에 있지 않고 보다 본질적이며 심오한 그 내용에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유모차같은것이 많이 있는 공원이나 거리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인삼탕을 먹는것이라든가 사람들의 지나치게 사치한 옷차림이나 많이 내놓는것만이 마치도 생활의 아름다움이나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말해주는것처럼 생각하거나 현실에 남아있는 일부 부정을 감추고 얼버무리며 모든것을 미끈하게만 그리는것이 전형창조의 옳은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그릇된 인식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생활을 화려하고 요란스럽게 꾸미거나 쓸데없이 치장하여 보여주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사실주의원칙에 어긋나며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 우리 문학에서 현실에 대한 이러한 미화분식은 자연주의의 중요한 표현형태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실에 대한 자연주의적외곡은 또한 우리 생활에 있는 결함에 대한 과장에서 나타난다.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부정을 비판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저하지도 않는다. 비판은 투쟁의 무기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비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있는 결함을 확대과장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훼손시키거나 신심에 넘치고 긍정의 열정으로 충만된 혁명적현실을 외곡하여 작품전반을 어두운 색조로 흐리게 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일부 나타나고있는 경향성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창작과정에서 긍정이 지배적이며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옳게 보여주지 못하고 부정을 인위적으로 과장함으로써 마치 우리 사회자체가 결함을 산생시킬수 있는것처럼 만들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로동계급을 형상한다고 하면서도 그 인물들중 긍정인물은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겨우 한두사람뿐이고 로동계급의 진실한 전형은 그려지지 못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현실에 대한 외곡이

다.

현실을 개인이기주의에 물젖어 나라와 인민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속물적인 인간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는것으로 보여줄 때에는 우리 생활의 법칙을 옳게 밝혀낼수 없는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부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부단히 극복되어나간다.

작가는 우리 사회의 부정을 그리면서 언제나 부정의 성격적특징과 그 지위를 명확히 알고 전형화해야 하며 그리고 부정인물들을 타도식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부정을 형상하면서 언제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탈선하면 자연주의적경향으로 떨어지게 된다.

교훈은 작가가 사회주의현실을 높은 정치적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꿰뚫어보지 못할 때 생활을 정당하게 이해할수 없고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생활을 참담게 사랑하는 작가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격동적인 생활을 이해할수 있고 생활을 깊이 아는 작가만이 생활을 뜻깊고 자연스럽게 현실 그대로 소박하게 그려낼수 있다.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은 또한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우리 현실을 외곡하는데서도 나타난다.

형상적비유는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작품창작의 필수적수단으로 되며 특히 시문학에서 그것은 형상화의 중요한 수법의 하나이다. 적중한 비유는 시형상의 생동성, 함축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미학정서적기능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형상적비유의 이 모든 기능과 가능성은 비유가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할 때 현실적으로 의의를 가진다.

만약 그것이 대상의 본질적속성을 옳게 드러내지 못하고 애매하게 표현할 때 생활을 외곡하고 모호한 표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자연주의적경향이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때문에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쓴 자연주의적경향은 그 비유의 부정확성과 애매성, 모호성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가사 《물결아 내 너처럼》이 발로시킨 자연주의적경향도 다른아닌 형상적비유의 그러한 부정확성에 기인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가사에서는 당을 물결과 대비하였는데 어떻게 물결을 우리 당과 대비할수 있겠는가.

가사는 1절과 2절에서 흐르는 물결을 계속 강조하면서 물결을 따라 변함없이 가겠다고 하다가 3절에서 당을 따라가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당을 물결에 비유하였다. 강철의 의지와 드물지 않는 답력을 가진 우리 당을 일정한 모양새도 갖추지 못하고 터쳐놓는대로 흘러내리는 변화많은 물결

과 대비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형상적비유는 어디까지나 가깝거나 비슷한 성질을 가진 두 사물현상이나 자연과 사회현상사이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다. 이 가사에서 비유되는 당과 물결 사이에는 그 어떤 비슷한 본질적인 성질도 없으며 따라서 이런 비유는 도저히 성립될수 없다. 비교하는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은 반드시 그 어떤 본질적인 특성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질적측면에서 공통성이 있어야만이 비교하는 대상을 통하여 비교되는 대상의 특성이 옳바로 밝혀질수 있다.

비교하는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공통성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비유를 통한 표현적효과라는것을 생각할수 없다.

이 가사의 경우 당을 흐르는 물결과 대비할 때 비교하는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사이에서 본질적인 특성에서 공통성이 전혀 없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물결을 당에 비긴 창작적과오의 엄중성이 있고 작품의 사상이 모호해지고 시인의 주관적의도와 상반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 까닭이 있는것이다.

위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당, 끝없이 넓고 자애롭고 따사로운 당의 품, 그것은 얼마나 많은 시와 가사들에서 의미깊은 형상적비유를 통하여 감명깊게 노래되었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경우 당의 위용은 언제나 뜨거운 은정, 자애, 깊은 사랑, 보살핌 그리고 숭고성, 불패성, 위대성 등 높은 존엄과만 결부되어 형상되었다. 당을 물결과 대비한 자연주의적표현은 우리 당의 위용에 대하여 깊은 정서적체험을 거쳐 심오하게 사색하지 않고 단순히 탁상문학을 한 시인자신의 그릇된 창작태도에 기인된다.

일반적으로 형상적비유의 문제는 작가의 어떤 기교상 문제이거나 예술적형상화의 숨씨와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대상자체를 얼마나 명백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파악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일뿐아니라 대상의 본질에 대하여 얼마나 심오하게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는것이다.

바로 이로부터 거기서 그의 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표현되는것이다.

가사 《물결아 너처럼》의 창작적교훈은 작가들이 높은 당적 및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대하지 않으며 현실을 피상적으로 대하게 될 때 생활을 외곡하게 되고 따라서 창작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을 발로시킬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당의 주체적인 문제사상과 이론,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확고히 무장함으로써 우리 작품에 자연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끼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불이여, 라오르라

(분신자살한 남조선인 한 청년의 시체앞에서 학우들이 부른 노래)

홍기품

열정에 빛나던 그 눈빛
어이하여 조용히 감겨졌느냐
항거에 타오르던 그 심장
어이하여 고통을 멈추었는가

땅을 치며 목메여 부르고불러도
대답없는 학우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투쟁의 거리를 누비며 높이 울리던
그대의 목소리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

학원의 민주와 삶의 자유가
독재앞에 무참히 짓눌린
억압의 동토대우에서
한줄기 해빛을 그리며
남몰래 피어오르던 배움의 옅은 꿈마저
파쑈의 광풍에 산산이 깨어진 땅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분노의 주먹을 틀어쥐고
그대와 우리 싸움의 광장에 뛰어나올 때
열혈의 가슴속에 솟구친것은 무엇이었던가

오! 그것은-불
압제의 세상을 태우는 불
캄캄한 남녘의 밤하늘을 태우는
투쟁의 불
항거의 불이었나니

《유신》의 썩은 오물과
양키들이 어지러이 란무하는
식민지 잡초밭을
이 땅에서 깨끗이 태우고싶어
그대는 제 한몸에 불을 지폈구나

그 불길 세차게 타올라
압제의 황무지우에
민주의 새싹은 움트고
자유의 생명수는 굽이치려니

학우여, 그대의 심장 고통을 멈추었어도
그 가슴에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저주와 분노 사무친 원한은
우리의 가슴에 화불을 지펴주며
아직도 그대의 몸에선 불길이 타고있다